금주의 법구-〈아함경〉
타인은 곧 나이고
나는 곧 타인이다.
남에게 상처줘선 안 된다.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255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3년 음력 6월 29일) 2019년 7월 31일 수요일

AI · 4차산업 시대 명상, 변화 이끈다

한국명상총협회, 8월 29~31일 대한민국 명상포럼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AI인공지능과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한 현대사회에서 명상이 필요한 이유, 그리고 명상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모색하는 대규모 명상포럼이 열린다.

사단법인 한국명상총협회(회장 각산)는 8월 29일부터 31일까지 동국대 일원서 '2019 대한민국 명상포럼'을 개최한다. 명상포럼은 명상의 현대화와 대중화를 추구하는 한국명상총협회의 출범 첫 공식행사다. 현재 협회에는 참불선원과 한국MBSR연구소, 힐리언스 선마을, VYG요가글로벌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번 행사는 한국참선지도자협회와 BBS불교방송이 공동 주최한다.

대한민국 명상포럼 국내 명상계에서 최초로 마련된 석학들의 대규모 강연이다. 현재 4차산업혁명으로 불리는 AI 인공지능을 넘어 IT 초지능 명상에 초점을 맞춘 명상과 인성교육법을 모색하고, 종교가 아닌 명상을 소재로 한국의 정신문화를 재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불교와 심리학, 의학, 뇌과학 등 각 분야의 석학들이 대거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포럼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인물은 단연 세계적 IT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아키텍트이자 명상가인 킴킴(Kim Kim)이다. 그는 마지막날 빅 데이터와 불이(不二)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선다. 이뿐만 아니라 이시형 한국자연의학종합연구원장과 조효남 서울불교대학원 석좌교수도 각각 '명상의 관점에서 바라본 자연의학과 생활건강' '명상과 정신과학의 상응성'을 주제로 강연한다.

명상포럼은 29일 오전 10시 동국대 본관 중강당서 개회식으로 문을 연다. 입재법문은 금강선원 조실 혜거 스님이 맡는다. 오후 1시 기조법문은 전국선원수좌회 상임대표 의정 스님이 맡으며, 바로 이어 명상실참이 진행된다. 이후 분과별로 각 3인의 강연이 서로 다른 장소에서 펼쳐진다.

1분과는 대각전, 2분과는 문화관 311호, 3분과는 문화간 315호에서 각각 진행된다. 먼저 1분과는 29일 오후 3시 직지사 선원장 의성 스님이 명상법을 강연한다. 2분과서는 행불선원장 월호 스님이 '인공지능 로봇스님과 간화선'을, 3분과는 안희영 한국MBSR 소장이 '서구사회의 마음챙김 혁명'을 주제로 강의한다.

30일에는 1분과서 자비명상 이사장 마가 스님의 '잠깐멈춤 명상법', 대흥사 유나 정찬 스님의 '시(詩)로 읽는 명상의 요체', 미황사 주지 금강 스님의 '선 명상 수행법의 길라잡이〈선가귀감〉'이 이어진다. 2분과는 전현수 정신건강의학 전문의의 '거시적, 미시적 관찰을 통해 본 존재의 본질'. 수도암선원 선현 종묵 스님의 '선수행 명상방법론의 역사', 대승사 선승 정과 스님의 '깨달음이란 무엇인가'가 진행된다. 3분과는 김열권 위빠사나붓다선원장이 '붓다의 깨달음 호흡명상법', 불교상담개발원장 선업 스님이 '마하화두선과 MTV통합명상' 등을 발제한다. 분과는 각각 강의 80분, 질의 30분, 휴식 10분으로 구성된다.

불교 · 심리학 · 의학 등 분야
스님과 전문가들 대거 참여
동국대 일원서 다양한 강의
5000여 명 규모 걷기명상도

무엇보다 행사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일정은 마지막 날 열리는 종합토론이다. 한국명상총협회장 각산 스님과 조효남 교수, 이시형 원장, 마이크로소프트사 킴킴의 발제에 종묵 스님과 정과 스님, 전현수 전문의, 백성호 중앙일보 기자가 패널로 참여한다. 종합토론에서는 '명상은 세상을 바꿀 수 있는가'라는 주제로 현 시대에 맞는 명상의 의미를 짚어본다.

행사에 앞서 7월 22일 열린 기자간담회서 각산 스님은 "현대사회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효율이다. 아무리 명상이 의미 있다고 해도 시대에 부응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면서 "인간의 정체성 변화로 요약되는 지금 시대에 한국인의 생활에 맞는 한국식 명상법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명상포럼 마지막 날인 31일 오전 10시에는 '남산걷기명상'이 진행된다. 동국대 운동장에서 남산순환둘레길 일대를 걷는 걷기명상은 각산 스님이 지도를 맡는다. 걷기명상은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 가능하며, 명상포럼 2박3일 참가비는 1인당 16만원이다. (02)451-0203



"내 물총을 받아라"… 사찰은 '워터파크'

지난해 사찰 내 수영장을 개설해 불교계 안팎으로 반향을 일으킨 서울 종로 조계사가 올해도 어린이 불자들을 위한 수영장을 개장했다. 7월 21일 조계사 뒷마당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앞마당에 펼쳐진 여름불교학교 물놀이 마당에서 어린이 불자들이 물총을 쏘며 즐겁게 물놀이를 하고 있다. 글=노덕현 기자 · 사진제공=조계사

진각종 제 13대 총인 경정 정사 추대

총인추대위 25일 회의서
8월 1일부터 5년 간 임기



진각종 제13대 총인에 경정 정사〈사진〉가 추대됐다.

진각종 총인추대위원회는 7월 25일 서울 총인원에서 회의를 열고 경정 정사를 추대했다.

이날 인의회 의원과 통리원장, 종의회의장, 현정원장, 교육원장으로 구성된 총인추대위원에서 투표선출 방식에 의거해 경정 정사를 5년 임기의 총인으로 추대했다. 임기는 8월 1일부터며, 법통승수식을 거행한 후 직무에 임하게 된다.

진각종 총인추대위원회 간사 관명 정사(총무부장)는 총인추대위원회 회의 후 가진 브리핑에서 "진각종 제13대 총인으로 경정 정사를 추대위원회 의결 절차에 따라 추대했다"면서 "진각종의 법통(法統)과 교법(教法)의 신성(神聖)을 상징하고 심인법통(心印法統)을 승수하는 최고 권위와 지위를 갖는 총인 추대법회는 추후 일정에 따라 봉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각종 총인법에는 '총인추대는 총인추대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자격은 '현직 또는 기로로서 행계 2급 종사 이상, 연령 60세 이상에서 75세 이하인 스승을 총인으로 추대한다' 고 명시돼 있다.

진각종 제13대 총인으로 추대된 경정 정사는 1948년 경북 영천 출생으로 1976년 동국대를 졸업하고 1981년 같은 대학 대학원을 졸업한 후 인도 델리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경정 정사는 종단 입문 후 진선여중 정교, 행원심인당 주교, 상륜심인당 주교, 불승심인당 주교, 신덕심인당 주교, 대전교구청장, 교육원 교법부장, 제7대 종의회 의원, 위덕대 불교학과 교수, 박물관장, 대학원장, 밀교문화연구원장, 부총장 등을 거쳤다. 또한 제10, 11대 교육원 교육원장, 진각종유지재단 이사, 세계불교도우의회 한국본부 이사 등을 역임했으며, 지난 2005년 4월 종사행계를 품수했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불교계 방송, 시청 평가 약진

BBS 종교방송 점유율 3위, BTN SKY평가 종교부문 1위

BBS불교방송(사장 선상신, 이하 BBS)과 BTN불교TV(대표 구본일, 이하 BTN)가 방송평가에서 약진하고 있다.

BBS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2018년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 산정 결과'에서 10개 종교방송 중 3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BBS의 시청점유율은 0.093%로 종교채널 중 1위인 CBS의 0.123%와 CTS의 0.101%에 뒤이었다. BTN은 0.084%로 4위를 차지했다.

시청 점유율은 전체 TV 방송에 대한 시청자의 총 시청 시간 중 특정 방송 채널에 대한 시청 시간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400여 개 채널을 대상으로 산정해 연 1회 이 결과를 발표한다.

이와 함께 BTN은 스카이라이프 방송채널 평가에서 종교부문 1위, 종합 9위에 올랐다. ㈜KT 스카이라이프가 총 146개 채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 5월 방송분에 대한 분야별 '채널 평가' 결과를 발표했으며 BTN은 종교 분야에서 최상위 'A' 등급에 선정됐다. 스카이라이프의 이번 평가는 고객 이용율(30%) · 콘텐츠경쟁력(30%) · 비용효율성(10%) · 기타(30%)등의 항목을 평가했으며, 장르 내 순위에 따라 상위부터 A~E 까지 5등급으로 분류했다.

BTN은 이번 결과에 대해 "급속하게 다변화된 미디어 시장과 불자 인구의 정체기 속에서 BTN이 종교채널 중 채널평가 1위로 'A' 등급 선정과 채널종합 9위에 오른 것은 의미 있는 결과"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감사의 큰 절 드리며

삼보에 귀의하옵니다.
지난 태허당 광우 명사 장례 기간에 조문해 주신 제방의 스님들과 불자님들께 엎드려 큰 절 올립니다.
은사스님의 갑작스런 입적에 경황이 없어 절차와 예법에 여러모로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결제철이고 백중 기도철인데도 불구하고 한걸음에 달려와 주신 분들의 은혜 두고두고 가슴에 새기며 정진하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정중히 찾아뵙고 인사 올려야 하나 지면으로 감사의 마음을 대신 드립니다.
무더위에 건강 잘 돌보시고 정진이 무장무애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2019년 7월 25일
상주 대표 정 목
삼가 큰 절 올립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교로8길 57-16 대한불교조계종 정각사 | Tel. 02)742-1231

“복지종사자 신앙생활 지침 만들자”

한국종교사회복지협, 박원순 서울시장에 공개 제안

서울시가 6월부터 7월 31일까지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종교행위 강요 특별신고센터’를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가운데, 한국종교계사회복지협의회가 신고센터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각 시설 종사자들을 위한 구체적 지침 마련을 서울시에 제안했다.

사단법인 한국종교계사회복지협의회(이하 한종사협)는 7월 25일 입장문을 내고 “서울시가 복지시설 종교행위 강요 특별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종교 강요’ 구체적 요건 없는
서울시 신고센터에 비판 입장
인권침해 방지 취지에는 공감
영성 프로그램 개발 · 지원 요청

한종사협은 “우리나라 사회복지가 발전하게 된 동기에는 사회복지 태동기로부터 IMF사태 등 국가와 사회가 어려움에 부딪힐 때마다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종교 법인들의 헌신적인 활동이 있었다”며 “종교 법인들은 각기 종교 본연의 가치와 목적을 정관에 명기하고 전문적인 영역의 복지사업 분야까지 반경을 넓혔다. 정부와 지자체 복지정책을 보완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우리나라 복지발전을 위해 역할을 묵묵히 수행해왔다”고 자평했다.

한종사협은 이어 인권침해 사례 개선을 위한 서울시의 특별신고센터 운영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또 다른 문제가 확산될 수 있다는 데 우려를 표했다.

한종사협은 “신고대상 사례로 언급한 ‘강요’를 어떻게 볼 것인지 지침이나 매뉴얼이 없다. 종교 법인의 이념과 가치, 이에 따르는 순기능과 종교 위상을 존중하지 않고, 사전 협의도 없었다. 피해사례를 접수해 이를 사회문제화하면서 부정적으로 공론화하려는 것 아닌가 의구심을 표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종사협은 서울시에 ‘사회복지시설 직원들의 종교와 신앙생활 존중을 위한 가이드 지침’을 함께 만들 것을 제안했다. 한종사협은 “이번 기회에 공유와 발전방향을 저해하지 않고, 서로의 신뢰를 다시 확인하기 위해 지침 마련을 제안한다”면서 “지침 배포와 교육을 통해 종교행위 강요 등 상처를 받는 사회복지시설 직원들이 없길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종사협은 사회복지시설 직원들의 심리적 안정과 영적 돌봄, 소진 예방을 위한 마음의 영성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하는 데 나설 것을 요청했다.

한종사협은 “이번 일을 계기로 서울시는 종교계 사회복지법인을 신고 대상이 아닌 협력과 발전 파트너로 인정하고,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관계 증진과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호섭 기자

조계종 종회의원 보궐 8월 29일 확정

직능 · 직선 등 5석, 입후보 등록 8월 5~7일



조계종 제17대 중앙종회의원 보궐선거가 8월 29일로 확정됐다.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세영)는 7월 2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분과회의실서 제359차 회의를 열고, 제17대 중앙종회의원 보궐선거 일정을 이 같이 확정했다.〈사진〉 현재 공석인 중앙종회의원은 제7교구 수덕사(주경 스님 사직), 제11교구 불국사(종민 스님 입적), 제17교구 금산사(일원 스님 사직), 제22교구 대흥사(법상 스님 사직), 직능대표 법제분야(초격 스님 사직) 등 총 5석이다.

이에 따라 입후보자 등록은 8월 5~7일 총 3일간 진행된다. 거주승 신고기간은 7월 27일부터 8월 2일이며, 선거인명부 열람기간은 8월 20~22일이다. 직능직은 8월 26일 열리는 직능대표 선출 위원회 회의서 선출되며, 직선직은 29일 각 교구본사에서 당선이 확정된다.

중앙종회의원 자격은 승납 15년 이상, 연령 35세 이상의 승려로 한다. 중앙종무기관 교역직 종무원과 본사주지, 특별분담사찰 주지 등은 겸직할 수 없다.

윤호섭 기자

“국가법령 피해사례 구제책 마련을”

조계종 교구본사주지협의회, 용주사서 63차 회의



조계종 제2교구본사 용주사에서 열린 전국교구본사주지협의회 63차 회의.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조계종 전국 교구본사주지스님들이 현행 국가법령에 따른 사찰들의 피해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구제하기 위한 대안 마련을 총무원 집행부에 요청했다.

조계종 전국교구본사주지협의회(회장 원경)는 7월 23일 제2교구본사 화성 용주사에서 63차 회의를 열고, 현재 조계종이 추진 중인 ‘불교관련 국가법령 제개정 추진경과’를 보고받았다. 이 자리서 총무원 측은 종단 내 ‘불교관련 국가법령 제개정 추진위원회’ 회의 결과를 보고하면서 사찰관련 각종 규제법령 폐지 및 대체입법 추진 현황을 설명했다.

현재 총무원은 문화재보호법에 명시된 문화재 범죄 공소시효를 상향 조정하고, 도난 문화재 은닉 등의 범죄에서 몰수 면제를 받는 선의취득에 대한 입증요건 추가 내용을 담은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함께 건축법 적용으로 인한 규제로 일부 사찰에서 피해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전통사찰 내 건축물의 경우 건축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건축법 개정안을 논의 중이다. 총무원에 따르면 1995년 건축법 개정 전까지 전통사찰 건축물은 건축법 적용 제외 대상이었다. 총무원은 이외에도 자연공원법을 비롯한 각종 국가법령에서 과도한 규제와 일원화되지 않는 행정을 수정하는 개정안들을 검토하고 있다.

총무원의 보고를 받은 본사주지스님들은 총무원이 관계부처와 적극적인 협의를 거쳐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할 것을 당부했다.

법령 제개정 추진위 활동 당부
문화재보호법 등 수정에 공감
백만원력 교구대회 일정 확정
전법사 활성화도 관심 갖기로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은 “종단에서 국가법령 제개정 추진위를 구성한 것은 고무적이다. 다만 현재 가장 큰 현안이 국립공원에 대한 내용인 만큼 이를 우선적으로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금산사 주지 성우 스님은 전통사찰 규제 등과 관련해 각 도별로 설치된 전통사찰위원회의 활성화 방안 모색을 주문했다. 이에 총무원 측은 “도 위원회를 존치하면서 문체부 산하에 전통사찰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전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승려복지회는 본사주지협의회가 지난 회의서 국민연금보험료 가입 대상자 중 본 · 말사 주지를 제외하는 방향을 논의해달라는 요청에 “본인부담금을 높여 비소임자와의 형평성을 맞추는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답변했다.

본사주지협의회는 지난 1월 회의서 주지소임자들은 사찰 경상비에서 의료비 등을 지출할 수 있기 때문에 비소임자들에게 복지혜택이 많이 돌아가야 한다는 취지로 지원대상 제외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이날 회의서는 제36대 집행부가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백만원력 결집불사’의 교구별 대법회 일정도 일부 정리됐다. 현재 화엄사가 10월 5일, 월정사가 10월 11일, 은해사가 10월 19일로 행사를 확정했으며, 수덕사 · 동화사 · 불국사 · 범어사 · 통도사가 일정을 조율 중이다.

교육원은 종단 내외에서 다양한 전법 포교활동을 실천할 승려를 위촉하는 ‘전법사 제도’가 활성화되도록 각 교구가 포교활동의 장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교육원에 따르면 전법사는 2018년 1기 84명, 2019년 2기 92명이 위촉돼 활동 중이다.

한편 본사주지협의회는 차기 회의를 9월 18일 오후 1시 수덕사에서 개최하기로 하고, 회의를 마무리했다.

편백운 스님 ‘구종법회’ 태고종 내홍 확산

사간동 총무원서 결의문 채택
구종위원회, 삼권분립도 위협
신원 확인하며 출입 통제 나서



편백운 스님이 7월 23일 서울 사간동 총무원에서 개최한 구종법회.

태고종 중앙종회와 원로회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불신임 된 제26대 총무원장 편백운 스님이 ‘종단사태 수습을 위한 구종법회’를 봉행하고, 총무원 주도 아래 중앙종회와 원로회의 등 각급 기관을 새로 구성하겠다고 밝혀 파문이 일고 있다. 제27대 총무원은 이를 “행정 권한조차 없는 전임자의 독단”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편백운 스님은 7월 23일 서울 사간동 총무원청사에서 ‘종단사태 수습을 위한 구종법회’를 봉행했다. 법회에는 편백운 스님을 비롯해 중앙승가강원장 탄해 스님, 정해정 전국신도회장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구종법회에서 구종위원회를 구성하고, 편백운 스님의 불신임을 결의한 중앙종회의 해산과 제27대 총무원장 선출 무효를 주장했다. 구종위원회는 “편백운 총무원장 취임 초기 종단부채를 해결해 종단이 안정되려던 차에 종회가 월권과 파행으로 1종단 2총무원이라는 식물종단을 만들었다”며 “종단안정과 정상화를 촉구하는 구종법회를 열고 대안을 제시해 실천할 것을 결의한다”고 밝혔다.

구종위는 △편백운 집행부에 전권 위임 △총무원장 불신임 원천무효 및 종회 해산 △제27대 총무원장 선출 불인정 △개혁종단의 틀 구성 등을 결의했다. 이에 따라 편백운 스님은 중앙종회와 원로회의를 새로 구성하겠다고 밝히면서 삼권분립을 위협한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게다가 구종위원회는 태고종 종헌종법상 설립 근거가 없고, 선출직인 중앙종회를 구종위원회 차원서 집행부에 전권을 위임해 구성하는 것은 오히려 종헌종법 위배된다는 점에서 논란을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편백운 스님의 주장대로라면 구종위원회는 종단의 어느 기관보다 초법적인 권한을 갖는 셈이다.

또한 종정 임기가 만료된 혜초 스님은 사태 해결이 아닌 구종법회에 희망을 갖게 됐다는 법어를 내려 종단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지적도 나온다. 혜초 스님은 지난 4월 종정 임기가 만료됐으며 원로회의서 재추대를 받지 못했다. 현재 태고종 종정은 공석인 상태다.

이 같은 구종법회에 대해 제27대 총무원은 “제26대 집행부는 아무런 행정 권한이 없다”며 “종도들에게 사실관계를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무원 관계자는 “구종법회 참석자 대부분이 동방불교대학 학인들이다. 학인들은 온라인교육을 받으면서 한 달에 한 번씩 모여 실습을 하는데, 편백운 스님은 학인을 볼모로 구종법회에 악용한 것”이라며 “학인들을 제외하면 법회 참석자는 20여 명 수준인 것으로 파악된다. 무슨 권한으로 종단의 전권을 부여한다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편백운 스님은 구종법회와 영산문화축제 등을 총무원청사에서 개최하면서 개인의 신분 확인을 거쳐 출입을 허용했다.

윤호섭 기자

“비누로 손·얼굴 한번 씻었는데 피가 맑아지고 뇌파가 안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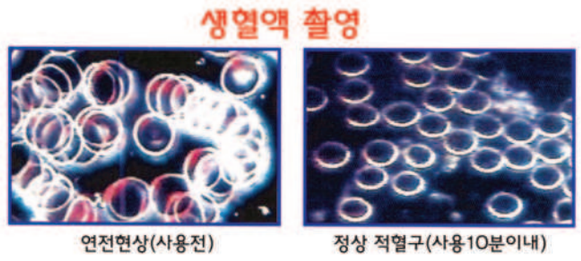
보약을 먹은 것도, 주사를 맞은 것도 아니고 BLOOD MATE® 단 한번 쓰고 20분도 채 안되어
“엉켜있던 적혈구가 정상 적혈구로, 불안정한 뇌파가 안정된다.”

항균(대장균, 포도상구균) 99.9%가 아토피, 검버섯, 무좀, 사타구니 가려움증, 뽀루지, 비듬, 여드름 등 각종 피부질환 개선은 물론 탈취 75%는 발냄새, 겨드랑이, 체취, 홀아비, 노인냄새 제거

BLOOD MATE®
CS137(세슘) 방사능 제거용

효과 : 8년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피폭자(8개현 5,600만명)의 방사능 치유 목적에 의해 세계 최초로 개발된 일본 정부의 예산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제품.

생혈액 촬영



연전현상(사용전) 정상 적혈구(사용10분이내)

탈모예방 발모촉진



사용전 사용6개월 후

피가 맑아져서 혈액순환이 정상화되고 뇌파가 안정되고 정신이 맑아진다면 혈액순환 장애로 일어나는 모든 질환과 뇌파의 불안정에 의한 정신 이상을 사전에 예방할 것입니다.

피가 맑아지고 뇌파가 안정되는 비누
BLOOD MATE®
항균 99.9% 탈취 75% 음이온 126cc 원적외선 방사 9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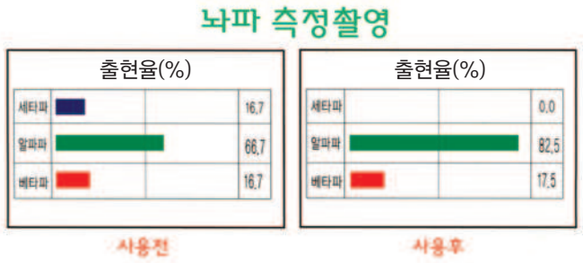
계면활성제가 없는 천연원료로만 제조된 제품입니다.

BLOOD MATE®의 인체에 미치는 유익한 영향들은어깨, 허리통증, 방사능 제거(세슘) 등 일일이 열거할 수가 없어 (약사법 등) 부득이 체험 (사용)에 의해 그 효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위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국가가 나서서 국민건강을 위하여 보호 지원 육성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에이스 삼강 02)353-9692 010-2791-3696 | 농협 301-0238-2776-51 예금주 : ㈜에이스 삼강

뇌파 측정촬영



사용전 사용후

검버섯 제거 현상



대행선 재조명, 첫 묘공학술상 시상

대행선연구원, 7월 21일
제1회 묘공학술상 시상식 개최

최우수상에 오용석 정재요 박사
대행스님 선법 현대적 해석
사회과학적 접근 높은 평가
우수상에 김경집 박사 선정
예비학자 6명 장학금도 전달



제1회 묘공학술상에 선정된 학자들과 재단 관계자 및 심사위원들의 모습. 사진 왼쪽 앞열부터 이평래 대행선연구원장, 최우수상 수상자 오용석 원광대 박사, 정재요 경북대 박사, 한마음선원 재단이사장 혜수 스님, 심사위원장 해주 스님, 한마음선원 안양본원 주지 혜솔 스님,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장 혜도 스님, 대행선연구원 연구실장 혜선 스님. 사진 뒷열 오른쪽 우수상 수상자 김경집 진각대 박사.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한마음선원 부설 대행선연구원(원장 이평래)이 불교학 연구자 지원을 위해 제정한 제1회 묘공학술상 시상식이 7월 21일 한마음선원 안양본원에서 열렸다.

첫 묘공학술상 최우수상의 영예는 오용석 원광대 박사의 '대행선사의 간화와 주인공 관법에 대한 고찰'과 정재요 경북대 박사의 '왜 민주주의에서 마음이 중요한가'로 돌아갔다. 이와 함께 김경집 진각대 박사의 '근대 일본불교의 한국 진출과 활동 양상'이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에 첫 시상식이 진행된 묘공학술상은 생활선 수행으로 중생교화에 힘쓴 묘공당 대행 스님의 생애와 사상을 체계적으로 재조명하고 홍포하기 위해 제정됐다. 묘공학술상은 불교학계 최대 규모의 상금을 자랑하는 학술상으로 2018년 공모, 18명의 학자들이 지원해 서류와 면접심사를 통과한 9명의 학자들이 논문을 제출했다. 완성된 논문은 묘공학술상 심사위원단(심사위원장 해주 스님, 동국대 명예교수)의 엄정한 심사를 거쳤다.

이날 한마음선원 재단이사장 혜수 스님은 "묘공이라는 큰스님의 법호가 담긴 학술상에 맞게 훌륭한 논문이 나올 수 있도록 사부대중이 마음을 내어주고, 학술장학을 받는 예비학자들은 미래의 훌륭한 학자로 거듭나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평래 대행선연구원장은 "대행선 및 불교학 발전을 바탕으로 대행선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보편성 확보를 위한 학술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속적인 연구원 사업을 통해 한마음선원의 3대 핵심목표인 생활불교, 현대불교, 세계불교를 달성할 수 있도록 대중의 마음을 모아달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심사위원장 해주 스님은 "세 편의 논문은 연구의 독창성, 논리의 체계성, 자료의 활용성, 논문의 완성도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판단됐다. 원전 자료가 정확하고 충분한 활용과 설득력 제고를 통해 이번 학술상 시상에서 선정되지 못한 대상까지 이르는 수준으로 높였으면 하면 바람"이라고 심사평을 전했다.

최우수상을 받은 오용석 원광대 박사는 "스님이 설하신 선법을 현대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현대적인 언어로 풀어낼 수 있을지가 주요한 내용이었다. 앞으로 연구는 선의 전통개념을 넘어 실생활에서의 구체적인 언어와 색으로 바꾸는데 천착하겠다. 대행 스님의 선은 현대적인 부분에 잘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 최우수상 수상자로 선정된 정재요 경북대 박사는 "평상시 큰스님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었고, 스님의 사상이 불교나 철학에 머무르지 않고 사회과학으로 응용될 필요가 있어 응모하게 됐다"며 "보다 더 학문에 정진해 불교뿐만 아니라 일반 학문에도 가르침이 확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우수상 수상자인 김경집 진각대 박사는 "근대 이후 일본불교가 포교소를 어디에 세웠는지를 살핀 논문으로 일제의 근현대 수탈과정에서 불교를 이용한 내용을 담고 있다"며 "공부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는 의미로 논문을 제출했는데 수상의 영광을 안아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묘공학술상 시상식에 이어 제1회 묘공학술장학금 수여식도 진행됐다.

생명나눔·광동학원 업무제휴 협약

19일 법인 산하 2개 학교… "바른 '생명나눔' 인식 전달"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 이하 생명나눔)와 학교법인 광동학원(이하 광동학원)이 청소년들에게 바른 '생명나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손을 잡았다.

생명나눔실천본부와 광동학원은 7월 19일 남양주 광동고 영어전용실에서 업무제휴 협약을 맺고 청소년들에게 생명나눔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사업을 전개키로 했다.

이날 협약은 광동학원 법인 산하 남양주 광동고와 의정부 광동고 2개 학교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남양주 광동고 협약식에는 이사장 일면 스님과 이천기 광동고등학교장, 정현숙 후원회장, 홍보위원 및 마하무용단원이 참석했으며, 의정부 광동고 협약식에는 박종우 홍보위원회장, 김석희 의정부광동학교장, 홍보위원이 참석해 협약을 각각 체결했다.

이번 광동학원과의 업무 협약은 최근 장기기증에 대한 행정이 변화하면서 이뤄졌다. 지금까지 만 19세 미만 청소년이 장기 및 조직기증희망자 등록신청서를 접수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자필 서명과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제출해야만 가능했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 7월 16일부터는 만 16세 이상의 고등학생들도 부모의 동의 없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장기 및 조직기증 희망등록을 할 수 있게 연령대를 낮췄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광동학원 재학 학생들도 생명나눔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광동학원은 △생명나눔운동 관련 동아리 개설 및 운영 △학교 축제 및 문화행사 시 장기기증 캠페인 실시 △생명나눔실천본부 법인 행사 시 동아리 부스 등을 운영한다.

생명나눔실천본부는 광동학원을 위해 △법인 소식지 활용해 광동고 동아리 활동 홍보 △동아리 학생 대상 장기기증 홍보교육 실시 △동아리 학생들을 위한 봉사시간 부여 △동아리 캠페인 진행에 따른 물품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사장 일면 스님은 "자라나는 청소년과 소중한 생명의 가치를 나누기 위한 이번 광동학원과의 업무제휴 협약을 통해 생명나눔 문화 확산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신성민 기자

공주시, 8월의 역사인물 '영규 대사' 선정

7월 24일 발표… 갑사 템플스테이 등 추진

임진왜란 당시 최초 승리인 청주성 전투를 승리로 이끈 승병장 기허당 영규대사(생년 미상~1592 · 사진)가 공주시의 '8월의 역사인물'로 선정됐다.

공주시(시장 김정섭)는 7월 24일 정례 브리핑에서 "공주시의 8월의 역사인물로 승병장 영규 대사를 선정하고 관련 기념사업을 펼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영규 대사는 공주 계룡면 월암리에 태어났으며, 본관은 밀양박씨, 호는 기허다. 최근 발굴된 〈영규사실기〉에 따르면 영규 대사는 19세에 계룡산 만정 북록(현 연천봉) 청련암에서 출가했으며, 영변 묘향산에서 서산 문하에서 20년간 수학하며 여러 범어경전과 외서를 공부했다. 공부를 마친 영규 대사는 은사의 뜻에 따라 갑사로 가서 주석하게 된다.

또한 영규 대사가 갑사에 있으면서 사제들을 도와 스스로 장작을 잡았고, 이를 쪼개 목검처럼 사용해 무예를 익혔다고 기록돼 있다.

대사의 검소함을 설명하는 대목도 있다. 기록에 따르면 영규 대사는 여름에는 베옷만, 겨울에는 솜도 넣지 않은 옷을 입었다. 이에 사중 대중들이 지나치게 검박하다고 지적하자, 대사는 "옷이라는 것은 단지 몸을 덮는 것이면 족하다"고 답했다.

영규 대사는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승병장이 되어 승병 800명을 이끌고 의병장 조헌과 함께 청주성을 수복하는 등 최초로 승병을 일으켰으며, 임진왜란 육전의 최초 승리를 이끌었다.

청주성 전투의 승리로 조정에서 영규대사에게 동지중추부사 벼슬(당상관)과 의복을 내렸으나 도착하기 전에 숨을 거두었고, 이후 승병(僧兵)이 곳곳에서 일어나는 계기가 됐다.

영규대사는 금산전투에서 부상당한 몸으로 갑사로 가다가 월암리 지금의 정려비각 부근에서 숨을 거두었다고 전해진다.

묘비는 1810년(순조 10)방계 후손들이 세웠으며, 1738년(영조 14) 승병장 휴정과 유정 그리고 영규의 영정을 봉안한 표충원이 건립돼 유교적 제향이 이뤄졌다. 1813년(순조 13)에는 충절비가 세워졌다.



영규대사 영정

공주에는 유평리에 영규대사묘(충남도 기념물 제15호), 월암리에 영규대사비(문화재자료 제56호)가 있다. 대사를 제향하는 표충원(문화재자료 제52호)이 갑사에 자리하고 있다.

공주시는 8월 역사인물 선정에 맞춰 영규 대사에 대한 다양한 기념사업을 추진한다.

이에 대해 공주시는 "영규 대사의 뜻과 공적을 기리기 위해 최초의 승병장 영규대사의 이야기를 알아보는 '영규대사와 함께하는 템플스테이'를 8월 30~31일 갑사에서 개최하며 9월 25일에는 계룡면 유평리 영규대사 묘역에서 '영규 대사 제향 및 추모제'를 개최한다"면서 "영규 대사의 숭고한 정신과 애국혼을 널리 현창하고 이를 후세에 기리는 사업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난치병 환아 조속한 쾌유 기원"

조계종사회복지재단, 난치병어린이 치료기금 전달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원행)이 난치병 투병 중인 어린이들에게 치료기금을 전달했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7월 17일 재단 사무실에서 '2019년 난치병어린이 치료기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날 재단은 금호청소년독서실과 답십리청소년독서실의 추천을 받아 치료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김령(횡문근육종) 환아와 황윤서(뇌병변) 환아에게 치료비 각 500만원, 700만원을 전달했다.

김령 환아는 중국에서 태어난 조선족 아이로 심한 통증의 원인을 찾지 못해 가족들이 한국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으며, 근육에 암이 생기는 횡문근육종 진단을 받았다. 세 번에 걸친 제거 수술을 받고, 암세포 전이로 두 차례 수술을 더 했다. 현재는 항암치료 중이다.

돌 무렵 다리에 이상을 보였지만 병원 검사결과 원인을 찾지 못했던 황윤서 환아는 결국 뇌병변으로 인한 다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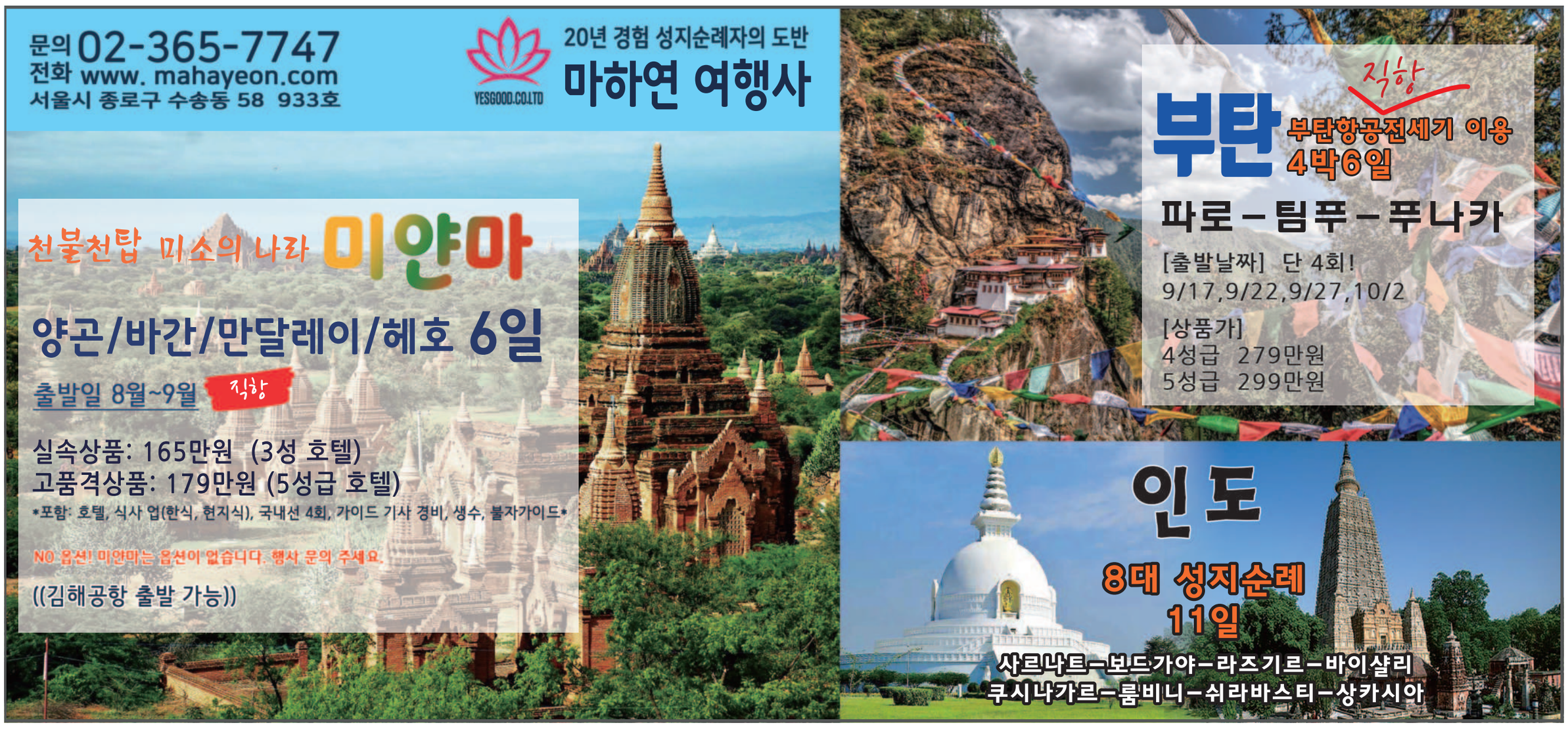


강직과 편마비가 발생했다. 재활치료를 받고 있지만 발의 변형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재단 상임이사 보인 스님은 "많은 사람들이 좋은 마음으로 관심 갖고 응원하며 조금씩 모은 기금이라 의미가 있다. 치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환아들의 쾌유를 기원했다.

한편 올해 '제19회 난치병어린이지원 300배 철야정진'을 통해 총 1억6800만원의 치료비를 모연한 재단은 국내 환아 18명과 라오스 환아 7명의 지원 대상자를 선정했다.

윤호섭 기자



통깨 파는 정성위에 세운 '포교 보금자리'

포교사단 부산지역단 7월 21일 회관 개소식

회관 18년 임대해 조직 운영
안정적 운영 위한 불사 발원
성지순례서 통깨 팔며 노력
입소문에 후원, 불사 원동력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조계종 포교사단 부산지역단은 7월 21일 부산 유원골든타워오피스텔에서 회관 이전 개소식을 개최했다.

조계종 포교사단 부산지역단 회관이 7월 21일 새롭게 문을 열었다. 회관 이전 개소가 있기까지 부산지역단 포교사들이 하나 된 원력으로 보여준 성과라 의미가 크다. 포교사들의 원력은 각 회원뿐 아니라 부산 불자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자발적으로 십시일반 후원에 동참해 포교활동을 응원하는 마음까지 담긴 사무실이 됐다.

조계종 포교사단 부산지역단(단장 정분남)은 7월 21일 부산 유원골든타워오피스텔에서 회관 이전 개소식을 개최했다.

포교사단 부산지역단은 18년간 회관을 임대해 지역단을 운영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부산지역단은 안정적인 재정여건을 마련하고자 지난해 1월 10대 단장 취임 후 회관 건립 계획을 세웠다.

포교사단 부산지역단 소속 포교사들은 건립 계획 수립 후 지난해 3월부터 서울 조계사를 시작으로 매월 교구본사 성지순례와 기도에 입재했다. 눈길을 끄는 것은 성지순례서 회관 불사금 마련을 위한 통깨를 판매한 것이다. 성지순례마다 불사에 동참하는 이들의 수가 늘어나며 이런 노력에 대한 입소문도 늘어났다. 이들의 원력은 부산불교계에 알려졌고 불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포교사단 부산지역단 회관 건립불사에 십시일반 후원금이 모였다. 성지순례에 함께 동참한 삼보회가 1000만원을 후원하는 등 점점 후원의 폭도 넓어졌다. 포교사로 합격한 부산지역 24기 합격자들도 500만원을 후원했다.

이런 각계 성원으로 포교사단 부산지역단은 1년 만에 불사금 1억 원을 모을 수 있었다. 이 불사금을 바탕으로 포교사단 부산지역단은 올해 6월 14일 부산 서면 중심지에 위치한 유원골든타워오피스텔 501호를 매입했고, 내부공사에 들어갔다. 비용 절감을 위해 포교사들이 직접 내부단장과 청소 등을 도맡았다.

정분남 부산지역단장은 "수행이 곧 포교이며 포교를 곧 수행으로 삼아 하나되어 정진하고 발로 찾아가는 포교사로 성장할 것"이라고 다짐을 전했다.

이런 의미에 이날 회관 개소식에는 부산불자들이 대거 참여했다. 개소식에는 범어사 주지 경선 스님, 조계종부산연합회 회장 원허 스님, 송광사 율주 지현 스님, 조계종 포교사단 방창덕 단장을 비롯해 부산지역단 역대 단장과 정분남 단장 등 사부대중 200여명이 동참해 축하했다. 개소를 축하하며 내빈들의 인사말이 이어졌으며 축하 케이크 절단 및 축가, 사홍서원 순으로 진행됐다.

경선 스님은 "새로운 자리서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하는 개원식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의하고 불법에 전념할 수 있는 훌륭한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며 "새 보금자리가 있기까지 여러 관계자 여러분이 동참하고 후원한 것을 안다. 포교활동의 구심점이 되어 발전의 원동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경선 스님은 후원금을 포교사단 부산지역단에 전달하고 격려했다. 정분남 단장은 "부산지역단 회관 개소식이 있기까지 역대 단장님들과 각 팀장님 그리고 640여명의 포교사들이 하나된 마음으로 잘 이끌어 주셨기에 가능했다"며 "부산지역단은 교구본사 성지순례를 통해 기도하며 팀원들과 화합하고 소통해 왔다. 앞으로 새로운 보금자리서 열심히 정진하고 포교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조계종포교사단 부산지역단은 1999년 부산·경남 포교사단으로 출범해 2012년 부산지역단으로 정식 출범했다. 이후 효율적인 조직관리 및 왕성한 포교 활동으로 전국 포교사단 가운데 모범 지역단으로 평가 받고 있다. 현재 군포교, 요양원 봉사, 문화재 안내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 가고 있으며 특히 전국 포교사단 가운데 유일하게 교구본사 성지순례를 진행해 회관을 건립하고 화합에 앞장서고 있다.

"올 여름 사찰음식 제대로 배워보자"

향적세계, 3차 수강 모집

세계적으로 사찰음식의 가치가 조명 받는 가운데, 사찰음식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강좌가 마련된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원경)이 운영하는 사찰음식 교육관 '향적세계'는 2019년 3차 사찰음식 정규강좌 수강생을 모집한다. 접수는 8월 30일까지, 선착순으로 마감된다. 이번 강좌에서는 사찰음식의 정의와 만드는 법, 계절별 사찰음식과 인문학으로 본 사찰음식 등 단순한 강의 및 실습이 아닌, 사찰음식의 역사와 가치를 전반적으로 다룬다.

강좌는 초급·중급·고급과정이 각각 2개씩 개강하며, 스님들이 수강할 수 있는 승가 고급과정도 마련된다. 강좌는 8월 13일부터 11월 21일까지 12주간 총 12회 진행된다. 모든 과정을 수료한 수강생에게는 '사찰음식 전문조리사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조계종 신도증 소시자와 스님은 수강료를 10% 할인받을 수 있다.

한편 향적세계는 초급·중급·고급 3단계 강좌로 사찰음식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사찰음식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일반인과 승가를 대상으로 교육을 이어오고 있다. 2011년 개관 이후 현재까지 약 1500명의 수강생을 배출했다. (02)2655-2776 **윤호섭 기자**

"사바 속히 오셔 보살원력 이뤄 주시길"

명사 광우 스님 영결식 7월 22일 엄수


광우 스님 영전에 헌화하는 참배객의 모습.

광우 스님의 법구를 모신 상여가 운구차에 오르자 스님의 마지막 모습에 대중들은 눈물을 터트렸다. '명사 태허당 광우 계민문도장 장의위원회'는 7월 22일 동국대 일산병원 영결식장에서 광우 스님 영결식을 거행했다.

광우 스님의 유지에 따라 문도장으로 엄수된 영결식에는 전 중앙승가대 총장 종범 스님, 조계종 원로의원 원행 스님, 운문사 회주 명성 스님, 전국비구니회장 육문 스님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영결식은 조계종 어산어장 인묵 스님의 영결법요를 시작으로 태연 스님과 정목 스님의 헌다와 헌향에 이어 계민문도 대표 현정 스님의 행장 소개, 추도 입정, 전국비구니회장 육문 스님의 영결사, 전 중앙승가대학 총장 종범 스님의 법어, 조계종 총무부장 금곡 스님의 총무원장 원행 스님 추도사 대독, 운문사 회주 명성 스님과 전 동국대 교수 호진 스님, 서윤길 동국대 명예교수의 조사, 상도선원장 미산 스님의 조시, 한마음선원 스님들의 조가와 각 대표들의 헌화 등으로 진행됐다. **노덕현 기자**

조계종 수행바라미 2차 정진 성료

'간경' 주제로 월정사·상원사서
포교·신도단체서 30여 명 동참


평창 월정사에서 7월 20일 참가대중이 신묘장구대다라니 철야정진을 하고 있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홍)이 주최하고 중앙신도회(회장 이기흥)가 주관하는 '2019 수행바라미 2차 정진 연수'가 7월 20~21일 평창 월정사 및 상원사, 중대사자암 등에서 진행됐다.

금번 연수에는 △경제인불자연합회 △조계종산악회 △한국세무사불자연합회 △전국금융인불자연합회 △공무원불자연합회 △3교구·4교구·6교구신도회·23교구신도회 등 10개 단체의 실무자 약 30여 명이 참가하였으며, 포교원 신도국장 혜안 스님을 포함하여 포교원·중앙신도회 실무자도 동행했다.

수행바라미 연수 참가자들은 월정사 도착 후 대법륜전에서 조계종 원로의원 원행 스님을 법사로 입재식을 연 뒤 △상원사 △중대 사자암 △적멸보궁 순으로 올라가며 참배했다. 참가자들은 아침부터 내리던 장맛비로 적멸보궁까지 오르는 내내 오대산의 정취를 더욱 느낄 수 있었다.

적멸보궁에서 부처님의 진신사리 친견 후 다시 중대 사자암으로 내려온 참가자들은 이번 수행 주제에 맞는 반야심경 사경과 1배 1알 108염주 만들기, 참선 등 수행에 들어갔다.

사자암 주지 해여 스님은 격려법문을 통해 "경전은 읽으면 읽을수록 더 깊어진다. 소리내지 않고 눈으로 읽을 때, 또 마음으로 읽을 때 모두 다른 깨달음과 깊이가 있으며 그 뜻을 음미하는 과정이 곧 수행"이라며 연수 주제인 '간경'의 중요성과 그에 맞는 수행법을 강조했다.

저녁공양 후 다시 월정사로 돌아온 참가자들은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의 법문을 시작으로 '신묘장구대다라니 철야정진'에 들어가 새벽예불을 끝으로 회향했다.

정념 스님은 "이번 기도를 통해 신행실천은 물론 불자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언제 어디서나 당당한 불자가 되길 바란다"며 참가자들에게 격려의 말을 전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진흥원, 덕조 스님 금강경 특강 개최

8월 5일부터 26일까지

대한불교진흥원 부설 대원불교문화대학은 송광사 승가대학 학장을 역임한 불일암 암주 덕조 스님 초청 '금강경 다시보기' 강좌를 개최한다.

덕조 스님 초청 금강경 다시보기 강좌는 8월 5일부터 26일까지 4주간 마포 다보빌딩 3층 다보원에서 진행되며 오후 2시부터 매일 2강씩 총 8강으로 구성됐다.

강의를 진행하는 덕조 스님은 법정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사단법인 맑고 향기롭게 이사, 서울 길상사 주지, 송광사 율원교수사 및 승가대학장 등을 역임했다.

진흥원 측은 "이번 강좌는 현대적인 시각에서 금강경을 재해석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금강경의 핵심 가르침을 통해 세상사는 이치를 고민하고 사고의 외연을 넓혀보자"고 참여를 당부했다. (02)707-1072 **노덕현 기자**



“빛고을 환경운동, 모범NGO의 씨앗”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11년째 이어온 자비행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가 2018년 ‘맑고향기로운 노래이야기’ 라는 주제로 개최한 음악회. 불교환경연대는 매년 어린이 · 청소년을 비롯해 다양한 계층을 위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이하 ‘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시각)가 출범 만 11년을 훌쩍 넘겼다. 그동안 광주전남지역 불교의 사회적 역할과 참여라는 화두 아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불교계 및 시민사회에 잔잔한 파장을 미쳐왔다. 특히 불교계 환경단체임에도 불구하고 환경운동을 넘어 지역 시민사회운동 분야는 물론이고, 불교환경연대가 10년 넘게 의욕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는 어린이 · 청소년사업은 전국 불교계에서 주목할 만한 프로그램으로 포교에 획기적인 변화를 도모해가고 있다.

불교환경연대는 처음부터 ‘사부대중공동체’를 지향했다. 바로 비구 · 비구니 · 우바이 · 우바새가 함께 ‘불교의 사회참여’를 모토로 부처님 가르침에 기반을 둔 다양한 대사회적 역할과 활동을 펼쳤다. 창립의 깃발은 지역 불교활동가 네 명이 들었다. 지역에 불교의 사회참여를 담보하는 조직이 하나 정도는 있어야 한다는 소박한 원력으로 뭉친 것이다. 네 명의 불교활동가들은 일단 출범 10년 안에 단체를 지역사회 속에 튼실히 뿌리내리는데 목적을 뒀다.

그리고 광주전남지역의 수많은 스님들을 찾아다니며 이 원력불사에 동참해달라고 간청했다. 맨 먼저 마음을 낸 스님은 바로 초대 상임대표를 역임한 법일 스님이었다. 그리고 스님은 당시 500만원을 선뜻 내어주며 주택가 작은 공간이라도 얻어 업무를 시작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여기에 지역 시민사회의 대모 역할을 한 행법 스님이 마음을 내었으며, 시각 스님과 무등 스님도 흔쾌히 동참해 네 스님이 대표단을 수락했다. 이를 바탕으로 사부대중이 참여하되 출재가 구분을 짓지 않고, 철저히 공적인 가치와 정신을 단체 속에 녹여내고 있다.

불교환경연대는 이렇게 재가자들이 첫 마음을 내어 출발하고, 여기에 스님들이 마음을 보태 주춧돌을 단단히 놓았다. 초대 상임대표를 맡은 법일 스님은 창립 때부터 8년간 불교환경연대의 기반을 닦는데 온 힘을 쏟았다. 그리고 지난 2015년 11월부터 현재까지 2대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시각 스님은 탁월한 리더십으로 불교환경연대를 지역의 시민사회와 환경단체, 그리고 지역 불교계를 넘어서 전국 불교계의 주목받는 단체로 변화를 도모했다.

불교계 기반이 약한 호남지역에서 불교의 사회적 역할, 다양한 환경운동, 그리고 어린이청소년사업을 다양하게 펼치면서 상임대표 소임을 맡은 시각 스님은 출범 당시의 소회를 밝혔다.

“지난 2008년 지역 네 명의 불교활동가가 불교환경연대를 만든다고 할 때 주저 없이 함께하겠다고 했습니다. 삭발염의한 출가수행자로서 내 자신을 닦는 수행도 중요하지만, 이웃과 세상에 보탬이 되고 기여하고 잘 쓰이는 수행자가 되는 게 늘 마음에 품고 있던 소망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호남지역은 광주학생독립운동, 5.18민중항쟁 등 역사적 어려움에 분연히 떨쳐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우리 불교계의 역할은 참으로 미미했습니다. 지선 스님과 진관 스님 등이 민주화운동을 견인해주었지만 2000년대 이후 광주불교는 대사회적 역할에 소홀했던 게 사실입니다. 지난 2008년 4월 불교환경연대를 발족할 때부터 함께해왔는데 어느새 11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그때 같이 시작한 행법 스님, 법일 스님, 무등 스님은 지금도 제가 참으로 존경하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오직 불교의 사회참여라는 화두에 공심으로 마음을 모아왔습니다. 오직 불교가 지금 이 시대 우리 지역사회에서 과연 무엇을 할 것인가만을 고민해 온 분들입니다.”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의 자비의 쌀 나누기 전달식에서 회원들이 더욱 다양한 활동을 다짐하는 모습.

2008년 불교활동가 4명 뜻 모아
지역스님 섭외하며 단체 조직해
‘사부대중의 불교 사회참여’ 모토
지역불교 위상 한 단계 끌어올려

어린이 · 청소년 프로그램 비롯해
자비나눔 · 소모임 등 사업 전개
내년 초 나무숲센터 건립불사도

불교환경연대는 어떻게 하면 자신의 수행과 더불어 사회적인 역할을 통해 불교가 부처님 가르침이 이 시대를 관통하고, 현대인들에게 믿음과 희망이 돼 의지처로 거듭날 것인가만을 고민하며 한 길을 걸어왔다. 이런 진정성 있는 마음이 모아졌기에 불교환경연대는 지역의 시민사회는 물론 전국의 불교계 시민사회가 주목하는 단체로 성장할 수 있었다.

불교환경연대는 활동의 폭이 굉장히 넓다. 불교환경운동, 불교의 사회참여활동, 회원소모임 활동, 어린이청소년사업, 그리고 불교계 및 시민사회단체와의 유기적인 연대사업 등을 씨줄날줄로 펼쳐오고 있다. 불교환경연대는 모든 사업에 회차를 붙여서 하기로 유명하다. 한번 시작한 일은 10년 이상 진행해보자는 회원들의 열의가 담겨있다고 한다.

2019년 7월 현재 △광주전남지역 공익활동가 자비의쌀 나누기(11회) △망월동구묘역 주먹밥 나누기(11회) △광주시민과 함께하는 연꽃등만들기(10회) △책읽는모임 보리수아래(49회) △생태문화기행모임 산애들애(82회) △대중공양모임 초록세상(20회) △친환경살림모임 에코맘데이(9회) △자따마따 1박2일(38회) △어린이생태학교(24회) △청소년리더십캠프(6회) △청소년자전거캠프(5회) △청소년지리산마음캠프(7회) △어린이담마스쿨(1회) △두근두근진로여행(2회) △선재역사문화탐방(10회) △청소년인문학교실(5회) △소식지 격월 발간(67호) 등 모든 사업에 회차를 붙이고 있다.



지난해 제15회 불교활동가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펼쳐오면서 쌓아온 믿음을 기반으로 불교환경연대는 다양한 소모임이 구성돼 있다. 풍물모임 간다르바, 책읽는모임 보리수아래, 생태문화기행모임 산애들애, 친환경살림모임 에코맘, 행복한엄마들모임 해피맘, 어린이청소년중창단 무지개선율, 청소년자원활동가모임 해피트리, 청소년지도자모임 아름드리까지 다양한 회원소모임을 통해 환경을 생각하고 생명을 생각하는 일들을 펼쳐나가고 있다.

대부분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역피라미드형 회원구조’를 가지고 있다면 불교환경연대는 ‘항아리형 회원구조’를 띈다. 이는 불교계나 시민사회할 것 없이 일반단체들의 회원 연령대가 50대 이상이 대부분인데 비해, 불교환경연대는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30~40대 학부모, 그리고 50~7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로 구성돼 있다. 앞으로 10년 이상 지속적으로 활동해갈 수 있는 초석을 닦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무엇보다도 어린이청소년 프로그램을 지난 11년간 지속적으로 해온 성과다. 그동안 불교환경연대 주관으로 1박2일 이상의 어린이청소년 캠프를 약 90차례 전국 템플스테이 사찰에서 진행해왔다.

이런 공로로 불교환경연대는 지난 2015년 12월, 조계종 포교원이 주관한 ‘어린이청소년포교활성화를 위한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그리고 메인 프로그램인 자따마따 1박2일 프로그램 매뉴얼 북을 포교원 후원으로 제작해 전국 사찰과 단체에 무료로 배포했다. 지난해에는 동출 스님이 진행하고 있는 ‘제15회 불교활동가 지원금’ 대상자에 불교환경연대가 선정됐고, 광주불교연합회 주관 ‘2017 빛고을불자대상’에도 선정됐다. 또한 광주시교육청의 후원을 받아 다양한 환경체험 어린이청소년 프로그램을 이어가고 있으며, 환경부 환경인증 프로그램 단체로 선정돼 그 위상과 역할을 높여가고 있다.

그리고 5.18민중항쟁 추모법회와 공익활동가를 위한 자비의 쌀나누기를 비롯해 평화와 통일, 인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사회단체와의 유기적인 연대활동은 시민사회에 불교계의 위상과 역량을 높여내는 역할을 자임해오고 있다. 이런 활동들을 통해 시민사회에서 불교계를 바라보는 시선이 상당히 높아졌다.

특히 올해는 지구의날 기념 제49주년 광주행사를 불교환경연대가 주관했다. 지난 4월 20일 ‘금남로 차없는거리’에서 이용섭 광주시장과 지역의 다양한 환경단체 대표들과 회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지구의날 기념행사를 여법하게 진행했다.

지구의날 광주행사를 아름답게 회향하고 나니 시에서나 지역환경단체에서 불교환경연대를 바라보는 위상이 한결 높아졌다는 게 관계자들 설명이다. 메이저 환경단체로 자리매김한 셈이다.

불교환경연대는 이제 환경의제에 필요한 다양한 회원교육과 실천을 통해 환경단체로서의 위상을 올곧게 세워가고자 새로운 변화와 도약을 향한 날갯짓을 하고 있다. 무엇보다 수많은 회원들이 십시일반 기금을 모아 진행하고 있는 ‘나무숲센터 건립불사’는 한국불교계의 새로운 역사를 써나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오는 2020년 2월, 광주남구 양림동 펭귄마을에 청소년쉼터, 그린담마명상홀, 환경체험학습장을 갖춘 나무숲센터 건립을 앞두고 있다.

생명평화를 애호하는 불교NGO, 불교환경연대에 따라붙는 캐치프레이즈다. 뭇 생명과 평화를 존중하며 종교를 넘어 진정 우리 시대에 꼭 필요한 일들을 찾아서 묵묵히 일들을 펼쳐가는 불교환경연대. 자연과 조화로운 삶, 세상과 함께하는 삶을 구현해가는 스님들과 재가자, 그리고 다양한 연령과 분야의 회원들이 무지개 빛 조화를 이루며 환경보살로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해가며 무소의 뿔처럼 묵묵히 정진해가고 있다.

세계에서 침 제일 의과대학, 중국 1위 대학 –

세계 100위 대학 남경대 재경

2019년도 남경 의대(중의학) 학생 모집



혜인스님
한국총장

조기유학생
어학단기반

모집
• 6년 ~ 고3 재학
• 남경사범대학 부속실험학교
www.njsdfc.co.kr

한국 유학생 중국의사 개업 취업
의료행위 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인 중국 의대졸업생 중국정부 중국 의사자격 취득한
외국인 개업 의사활동 허용한다고 중국정부는 발표했다.

❶ 특차모집(남경중의학대학)

학 과	학 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의학과	5년	100명	• 최종학력증명 1부 • 최종성적증명 1부 • 입학신청서 1부 • 여권용사진 10부
석사과정	3년	50명	
박사과정	3년	10명	
재경대학	4년	80명	• 법학,경제,경영,무역,식품,금융 등

❷ 지원자격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주지스님 추천자

❸ 학교소개
▶세계침구 1위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WTO 국제 전통의학 협력센터
▶부속병원3,제약공장,교육병원12,제약연구소 등 완비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군입대 연기 가능
▶현재 생활관리 담당교사 상주하여 학사 관리
▶학자금 대출 가능
▶서울시내 대학 편입 가능
▶중국내 개업 의사 가능

❹ 전형방법 및 모집기간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모집기간 : 2019년 8월 25일까지 수시전형

❺ 지원서 교부 및 접수
▶교부 : 한국 사무처 -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불교조계종 교학과에서 직접 교부 (지방은 우편으로 배부 가능) www.njutcm.co.kr
▶접수 : 불교조계종 한국분교(빠른 접수 가능)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 26가길 50-1(돈암동 83-2)
▶제출서류 특별전형 : 최종학력증명 및 성적증명서 각 1통
▶기 타 어학연수 및 조기유학에 관한 문의는 불교조계종 국제교류처(☎02-511-1080)으로 문의 바람.

❻ 학비(등록비 및 보험료 포함)
▶학사 과정 : 매년 25,800위안
▶석사 과정 : 매년 33,800위안
▶박사 과정 : 매년 41,800위안

▪남경중의약대학(南京中醫藥大學)
南京市仙林大道138號 (210023)
138 Xianlin Rd., Nanjing 210023, P.R.China
E-mail : overseas@njucm.edu.cn
Website : www.njucm.edu.cn

▪한국상담처 : 불교조계종 총무원교육부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 26가길 50-1 (돈암동 83-2)
▶교학처 : (02)511-2026, 2027 Fax (02)511-2028
▶총장실 : (02)511-1080
▶http://www.njutcm.co.kr

“선운사 중창원력, 수행정진 회향”

고창 선운사, 초대주지 남곡당 윤명 스님 추모재

조계종 24교구 선운사(주지 경우)는 7월 20일 선운사 초대주지를 역임한 남곡당 윤명대선사 36주기 추모재와 불기 2563년 기해년 하안거 포살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선운사 성보박물관에서 봉행된 남곡당 윤명대선사 추모재에는 남곡 스님의 문손 재곤 · 재석 · 재정스님을 비롯한 선운사 원로스님들과 주지 경우 스님, 한주 범여 스님, 종회의원 태효 스님, 내소사 주지 진성 스님 등 선운사 사부대중 150여 명이 참석해 생전 스님의 가르침을 되새겼다.

선운사 한주 재곤 스님은 남곡문도를 대표해 “선운사가 교구본사로 승격돼 많은 스님들이 수행에 전념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스님의 원력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며 “은사스님의 유지와 가르침을 받들어 더욱 수행정진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1931년 장성 백양사에서 영호 스님은 은사로 만암 스님을 계사로 득도한 남곡 스님은 1934년 만암 스님으로부터 구족계를 수지했다. 1963년 불교정화운동으로 격렬했던 비구대처 양설을 화합하는데 주력했으며, 총무원 재무부장, 교무부장, 조계사 주지 등을 역임했다. 1966년 초대 24교구 선운사 주지를 소임을 맡아 선운사 천왕문과 대웅보전, 도솔암을 중창하고, 1983년 세수 73세, 법납 54세로 선운사에서 입적했다.

앞서 선운사는 불기 2563년 기해년 하안거 포살법회를 봉행했다.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을 포살법사로 진행된 법회는 〈범망경보살계포살본〉을 중심으로 〈불설범망경〉 보살십지품, 십중대계, 사십팔경구계를 독송하고, 사부대중은 지계를 다짐하며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원력을 되새겼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가야문화 함께하는 ‘산사 북 콘서트’

8월 17일 김해 은허사서… 조용헌 박사 강연도

가야문화의 중심지인 김해에서 지역민을 위해 한여름 밤 무더위를 식혀줄 북 콘서트가 열린다.

가야문화진흥원(이사장 송산)은 8월 17일 오후 5시 30분 신어산 은하사에서 ‘가야문화와 함께하는 산사의 북 콘서트’를 개최한다. 강연은 칼럼니스트 조용헌 박사가 진행한다. 조용헌 박사는 원광대 원불교학대학원 불교민속학 박사이며, 건국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석좌교수다. 저서로는 〈조용헌의 인생독법〉 외 27권이 있다.

그 외 음악 무대는 효강 스님, 김성기 교수, 이수정 성악가가 담당한다. 효강 스님은 불교음악 연구원 전문위원으로 현대적인 불교 음악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가야문화진흥원은 “무더운 여름 시민들과 함께하는 북 콘서트를 개최한다”며 “편안하게 가족들과 함께하는 산사음악회이자 깊이 있는 인문학 강의로 시원한 여름을 선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울산불교환경연대, 제2기 녹색아카데미

9월 21일~10월 26일, 환경 · 인문학 강좌 마련

울산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능행)는 9월 21일~10월 26일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울산 황룡사에서 제2기 울산불교환경연대 녹색 아카데미를 진행한다. 강좌는 △환경위기시대, 불교사상과 녹색불교(유정길 불교환경연대 운영위원장) △쓰레기 문제와 자원재활용, 녹색사찰만들기(최원형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소장) △지구온난화시대, 우리는 어떻게 살까(송명섭 대구교육대학교 교수) △버드나무 방생, 숲을 지키고 생명을 살린다(이봉규 숲과함께 공동대표) △탈원전시대와 신재생에너지 사회(김익중 前동국대의과대학 교수)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울산의 환경의제(김태훈 UBS울산방송 PD) 등이 진행된다. 선착순 30명까지 접수하며 동참금은 10만원이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마음으로 이해하는 교사 될게요!”

한마음과학원, 부산서 한나무인성교육연구회 연수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아이들이 도와 달라고 찾아오면 도망가고 싶어요.”

학교 내 일어나는 많은 폭력 사건과 학부모의 지나친 영향력 행사 그리고 학업 성취까지 교사들에겐 모든 것이 짐이다. 학생들과의 관계에서 스승을 향한 참된 존중과 배려는 찾아보기 어려운 시기다. 학교에서 일어나는 팽팽한 긴장과 갈등 속에서 행복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교사와 학생이 함께 행복한 교실을 만들기 위한 특별한 연수가 마련됐다. 한마음과학원(운영위원장 혜찬)은 7월 22~26일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에서 ‘교사의 행복 찾기-서로를 살리는 공생교실(이하 공생교실)’을 전국 유치원과 초 · 중등 교사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공생교실은 일반 연수 프로그램과 달리 10여 년 전부터 일선 교사들이 직접 ‘주인공 관법’을 학교에서 적용하고 활용해 성공한 사례를 모아 만든 프로그램이다. 연수과정에서는 마음에 관한 원리 교육뿐 아니라 실제 학교에서 구체적으로 적용 가능한 대화법까지 제시했다.

한나무인성교육연구회는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잘 가르칠 수 있을까 고민하고 함께 연구하기 위해 모임을 시작했는데 결론은 각자 자기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게 됐다”며 “교사가 너무 힘든 현실이다. 행복한 교사가 돼야 비로소 현장에서 마음의 힘을 활용하며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다. 교사들이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프로그램을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프로그램은 △내 마음 들여다보기 △

‘교사 행복 찾기’ 주제로
7월 22~26일 3박4일간
심리전문가들 강의 펼쳐
“행복한 교실 위한 힐링”

내면을 향하여 △내 인생의 드라마-마음 찾기 △마음을 여는 대화 △마음의 원리로 접근하는 학생지도 △공생의 삶 △공감과 치유 △마음의 통신 등이며, 강사는 황수경 교수(동국대학교 명상심리학)와 박종래 교수(서울대) 등 10여 명이 참여해 전문화된 강의를 했다.

한나무인성교육연구회는 “학교현장에 문제들을 문제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자신의 근본이자 뿌리인 ‘주인공’에 믿고 맡겨 놓으며, 학생, 학부모, 동료 간의 마음과 연결돼 있음을 자각해야 한다”며 “마음을 마음으로 이해하다보면 다양한 상황들을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마음과학원이 주최한 ‘교사의 행복 찾기-서로를 살리는 공생교실’에서 황수경 교수가 강의하고 있다.

연수 교육에 참여한 교사들은 일반 연수와는 달리 참된 나를 돌아보고 마음의 힘을 얻는 시간이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전종필 교사(중현초)는 “학교생활에 지쳐있다 보니 마음의 에너지가 없어서 연수를 신청하게 됐다”며 “내면을 찾아가고 마음의 에너지를 채울 수 있는 시간이 됐다. 스스로를 많이 돌아보게 됐다”고 말했다.

김순영 교사(부산혜성학교)는 “그동안 나 자신에 대해 미뤄뒀던 생각을 하게 됐다. 가족과의 이별도 있고 마음이 많이 지쳐 있었다”며 “힐링이 되고 편안해지고 마음을 돌아보는 연습을 통해 나를 보게 되는 시간을 갖게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참여한 교사들을 향한 응원과 격려도 이어졌다.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장 혜도 스님은 “교사가 아이들과 공생하는 지혜를 터득해 가는 방법들이 연수 프로그램마다 녹아 들어가 있을 것이라 믿는다”며 “교육현장으로 돌아갔을 때 학생들에게 베풀어 줄 에너지를 차곡차곡 충전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러한 연수는 경기도 안산시 성안초교에서 ‘행복한 교실을 위한 쉼, 그리고 치유’라는 주제로 8월 5~9일 진행된다. 전국 유치원과 초 · 중등 교원을 비롯해 교육 전문직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031)470-3200

수산자비선원, 자비의 길 30년

무료급식 · 쉼터 제공 등 창원지역 복지활동 앞장
9월 중 기념법회 계획도

창원에 위치한 수산자비선원이 나눔과 복지의 길을 30년 동안 이어와 훈훈함을 남기고 있다. 주지 법상 스님은 오랜 시간 동안 나눔을 위해 함께 활동해 준 신도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복지의 길을 걸어갈 것이라고 의지를 전했다.



경남 복지의 선구자로 인정받고 있는 수산자비선원 주지 법상 스님과 신도들의 모습. 수산자비선원은 지난 6월 30주년을 맞았다.

수산자비선원(주지 법상)이 30주년을 맞았다. 주지 법상 스님은 “기념법회를 9월 중에 계획 중이며 앞으로도 복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법상 스님은 창원 복지의 선구자로 불린다. 1989년 6월 개원 당시 현재 위치한 수산자비선원에서 오갈 곳 없는 사람들을 위한 공간을 내어주고, 무료급식을 시작하며 복지의 길에 첫 발을 내딛었다. 당시 50여 명이 머물렀으며 현재도 10여 명이 무료로 의식주를 해결하며 보금자리로 삼고 있다.

법상 스님은 “당시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고 복지가 열악했다”며 “아기를 데리고 있는 가족들이 갈 곳이 없어 찾아온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수산자비선원은 창원에서 무료급식을 처음으로 진행한 곳으로도 유명하다. 매주 월~토 점심공양을 무료로 제공해 250여 명이 선원을 찾는다.

무료급식을 시작으로 전문적인 복지활동을 위해 법인을 창단하고 의료생활협동조합 자비요양병원을 설립했으며, 어르신 요양시설인 자비마을과 양 · 한방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법상 스님은 요양병원을 운영하며 노인의료복지뿐 아니라 스님들의 노후복지까지 책임지고 있다.

법상 스님은 “노스님들 가운데 임종이 다가오면 여전히 오갈 곳이 없어 힘든 시간을 맞을 때가 있다”며 “마지막 순간까지 편안하게 수행자로서 삶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법상 스님은 특히 어르신을 위한 복지에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스님은 “매년 불교인을 위한 단합대회를 열고, 어르신을 위한 경로 위안 잔치도 마련하고 있다.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참된 위로를 전하고 건강을 기원하기 위해서”라며 “앞으로도 복지의 길을 걸어가며 부처님의 자비 사상으로 포교의 삶을 살아 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법상 스님은 지난 7월 1일 복지나눔의 공로를 인정받아 세계불교평화대상 시상식서 평화대상을 수상했다. 이외에도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시민대상 종교복지 공로대상 및 다수의 상을 수상한 바 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우주의 신비가 호흡에 있다 - 호흡의 비밀을 풀다
만트라 염불禪치료 명상 과학 센타
기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공개 강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낮 12시 30분

4차 산업혁명과 AI 인공지능 시대에 미래의 대체의학인 기공(밀교의 의성신·금강신)을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입 문 : 고타마 싯다르타(석가모니)부처님의 호흡법을 발견 · 전수함.
■ 고 급 : 개인의 기공능력을 아무 부작용 없이(주화 입마, 상기병 등등) 키워나가면서 단기간에 최고의 경지에 이르고자 하는 분. (비법 전수)
■ 특 징 : 제 6차크라(제3의 눈 · 뇌의핵심<송과체> · 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피부호흡)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 (기에너지체) 고요 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호흡 선정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 (면접 상담 후 결정) ■ 등록번호 : 138-50-00260
■ 문 의 : ☎ 02-393-8027 (기공치료 예약 접수)

기공치료 명상가 처명(선광)스님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수료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전)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제 6 차크라 열리기 전·후 비교사진

2015년 8월 4일

2017년 1월 9일
페이스북에서 ‘Sung Ho Park’(처명선광) 검색

*후원계좌 : 국민은행 (371101-04-120586 박성호)

일행삼매 연구소(소장:처명)

부처님의 마음을 빗는 불상 불단 조성 전문업체
한국불상조성원
상담문의 010-3665-6696

정성과 신뢰로 짓습니다.
한국불상조성원에서는 예로부터 전해오는 전통불상제작 방법을 전수받아 한국 불상의 전통과 맥을 이어가고 색바램없이 영구적으로 모실 수 있는 기술적 자질을 보유하여 다양한 불상을 조성하며 전통적인 표현양식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상판매 뿐만 아니라 사찰에 관한 모든 필요한 것을 일체 컨설팅과 자문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한국불상조성원 대표 이 인 규 합장

불단, 수미단 | 닫집, 운각 | 특수불, 동불, 목불 | 단청개금, 순금개금 | 도금, FRP, 수지
소불, 대불, 모든 탱화 | 위패제작 | 건 축 | 맞춤 조성 가능 | 사찰 관련 컨설팅 및 자문

TEL 031-536-6696 | FAX 0504-398-6696



무문관 앞쪽에 위치한 설악산 백담사 계곡의 풍경은 선계와 같다. 신비로운 돌탑은 실상의 묘용을 숨김없이 드러내 주고 있다.

지원 스님의
선문답 이야기 ②



선문답, 언설 초월한 고도의 '상징언어'

선문답에는 정해진 원칙이 없다. 일거수일투족 모든 행위를 통해서 나타난다. 그러나 그것이 어렵기로는 죽을 때까지도 알아차리지 못하지만 쉽기로 말하면 세수하다 얼굴의 코를 만지는 것보다 수월하다.

둘째는 상징적이고 우회적이다. 단순하고 분명한 만큼 그 속에는 참으로 의미심장한 내용을 함축한다. 흔히 스승이 제자에게 질문하는 것으로 '어디서 왔는가' 라는 것이 있다. 이것은 단순히 어느 지방서 왔는가를 묻는 것이기도 하지만 대개는 '그대의 본래면목이 무엇이냐, 혹은 이 세상에 나온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혹은 그동안 무엇을 배웠느냐' 등등으로 제기되는 질문이다. 이같은 질문을 받은 제자는 순간 당황하기도 한다. 그리고 또한 어느 지방에서 왔다고 답하기도 한다. 모두 동문서답일 뿐이다. 그 같은 제자라면 아직 영글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다.

이에 대해 스승은 구체적인 답변을 제시하지 않는다. 제자 스스로 터득해 답변을 토로하길 기다린다. 그것이 몇 날이건 몇 달이건 몇 년이건 상관 없다. 스승은 제자로부터 평생 그에 대한 답변을 들을 수 없는 경우도 있다. 남악회양의 경우도 육조혜능으로부터 '무엇이 이렇게 여기에 왔느냐' 라는 질문을 받았다. 그러자 남악회양은 답을 못했다. 홀로 고군분투하면서 8년을 지낸 어느 날 스승에게 나아가 '무엇이라 말하는 것도 한낱 껍데기일 뿐입니다' 라는 한마디 답변을 제시했다. 그로 인해 정식으로 혜능으로부터 인가 받았다. 아마도 회양에게는 그 8년이라는 기간이 평생보다도 긴 세월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기다려주는 혜능은 또 얼마나 제자를 향한 지순한 자비를 베풀었던가.

스승과 제자 사이에 그 비유와 상징으로 가득찬 한 마디의 문답은 천만 마디의 설법보다 깊은 의미를 함축하는 행위요 언설이었다. 문답이 단순히 말을 통해 드러나고 답해지는 행위로만 그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선문답이 아니다. 일종의 수수께끼일 뿐이다. 단순한 언설로 표현된 선문답을 진정한 문답으로 거듭나게끔 만드는 것은 모종의 상징성을 담고 있다. 그래서 선문답은 단순한 언설이면서 언설이라는 형식을 초월해 있다는 것에 특징이 있다.

셋째는 문답이어서 주로 대화체 위주로 되어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대화는 몇 가지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곧 스승이 묻고 제자가 답하는가 하면, 제자가 묻고 스승이 답하는 경우가 있다. 꼭 문답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심정을 고함이나 행위로 드러내는 경우가 있다. 누가 답하고 누가 물어야 한다는 원칙이 없다. 단지 물음과 답변만이 있을 뿐이다. 그것이 물음이기 때문에 답해야 한다든가 답변이 전제된 물음이라는 어떤 형식에 얽매일 필요도 없다. 그 자리에서 입을 통해서 내뱉고 나면 그것으로 끝이다. 왜 그와 같은 질문을 했는가를 따지는 것이 아니다.

그와는 달리 바로 그 질문이 무엇인가를 스스로 참구하는 행위로 나타나야 한다. 그래서 질문이 대화체의 시작이라면 그에 대한 참구행위는 그 대화의 연장이다. 그 끝을 찾아 자각하는 순간이 곧 대화의 종결이다. 대화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다소의 시간이 필요하다. 아니 영원히 종결의 순간에 다다르지 못할지도 모른다. 그만큼 대화는 선문답이 이루어지는 그 자리에서 영원한 지금의 시간으로 이어진다.

선문답은 스승과 제자가 똑같이 선에 참여해 스스로 선이 되어 주고받는 문답이라야 한다. 따라서 질문의 주체가 정해져 있지 않다. 질문자가 답변자가 되기도 하고 답변자가 다시 질문자가 되기도 한다. 질문과 답변이 따로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질문이 그대로 답변으로 되돌아오기도 하고 답변이 질문으로 제기되기도 하는가 하면 질문 없는 답변과 답변 없는 질문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본다.

현칙이 청봉에게 물었다.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청봉이 답했다.
"병정동자가 와서 불을 찾는구나"
현칙은 무슨 의미인지 몰라 한동안 꿍꿍거리다가 정혜에게 물었다. 이에 정혜가 말했다. "불을 다루는 신인 병정이 오히려 불을 구한다고 하니 본인이 부처이면서도 다시 부처를 찾는 꼴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그러나 현칙은 궁금증이 풀리지 않았다. 혼자서 다시 여러모로 참구하면서 정혜를 시봉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정혜에게 물었다.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정혜가 답했다.
"병정동자가 와서 불을 찾는구나."

스승 · 제자사이 비유 가득 문답은
천 마디 설법보다 깊은 의미 함축
공안집 정리되며 점검형식 변화

이에 현칙이 크게 깨쳤다.

똑같은 질문과 똑같은 답변이건만 현칙에게는 같은 질문이 아니고 같은 답변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이전의 질문은 그것으로 끝나버린 것이고 이전의 답변도 이전의 답변으로 끝나버린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현칙에게는 질문이 더 이상 질문이 아니고 답변이 더 이상 그대로 답변이 아니었다. 자신이 내뱉은 질문이 어느 순간 답변으로 다가온 것이다. 그리고 청봉의 답변이 어느 순간 청봉의 답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정혜의 답변이고 자신의 답변으로 다가와 있었다. 현칙은 바로 그런 도리를 알고 스스로 질문과 답변을 적절하게 구사하고 분별할 수 있는 눈을 터득한 것이다.

이와 같이 선문답은 같은 질문이 같은 질문으로만 제기되는 것이 아니다. 답변도 또한 마찬가지이다. 스스로가 질문으로 여기고 제기한 경우는 어디까지나 질문일 뿐이다. 그리고 스스로가 그에 걸맞는 안목을 구비하고 대하는 순간 그것은 단순히 청봉과 정혜의 답변이 아니라 현칙 자신의 답변이었다. 이것이 곧 선문답이 지닌 질문과 답변의 존재방식이다.

넷째는 시대가 흐를수록 정형화된 공안집으로 정착되었다. 일단 형성된 하나의 선문답에는 후대의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연지 찍고 곤지 찍으면서 정형화된 작품으로 만들어 갔다. 그것은 선문답을 깨침에 나아가는 수단 내지 도구화시켜 선사들로 하여금 일정한 표준을 제시하려는 의도였다. 그래서 많은 선사들은 이전의 어떤 선문답을 선별해 그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붙이기도 하였다.

이 경우 이전의 어떤 선문답을 본칙(本則) 혹은 고칙(古則)이라 한다. 그 고칙에 대하여 편자가 자신의 견해를 게송으로 붙이기도 하고, 산문으로 붙이기도 한다. 고칙에 대하여 게송으로 나타내는 것을 송(頌)이라 하는데 이 경우 고칙과 송을 합하여 송고(頌古)라 한다. 곧 고칙에 송을 붙였다는 뜻이다. 그리고 고칙에 대해 산문으로 나타내는 것을 염(拈)이라 하는데 이 경우 고칙과 염을 합하여 염고(拈古)라 한다. 곧 고칙에 산문으로 해석을 붙였다는 뜻이다. 이 송고와 염고에 대하여 후대인이 다시 주석을 가하기도 했다. 이 경우 송고나 염고에 대하여 전체적인 의미를 송고나 염고 앞에 제시한 짤막한 산문을 시중(示衆)이라 한다. 그리고 송고나 염고의 각 어구마다 아주 짤막한 촌주를 붙였는데 이것을 착어(著語)라 한다. 송고나 염고를 들고 전체적으로 그에 얽힌 일화나 그에 관련된 내용을 장황하게 설명으로 풀어낸 것을 평창(評唱)이라 한다.

수많은 공안집 가운데 일례를 들어보기로 한다. 송대에 굉지정각이 예전의 고칙 100가지를 엄선하여 각각의 내용에다 게송을 붙였는데 이것을 〈굉지송고〉라 한다. 이에 대해 원대 초기에 만송행수가 각각 시중과 착어와 평창을 붙여 〈종용록〉이라는 책을 만들었다. 또한 당대 말기에 설두중현이 예전의 고칙 100가지를 엄선해 각각의 내용에다 게송을 붙였는데 이것을 〈설두송고〉라 한다. 이에 대해 송대에 원오극근이 각각 시중과 착어와 평창을 붙여 〈벽암록〉이라는 책을 만들었다. 이와 같이 본래의 선문답을 일정한 체계에 의하여 다듬고 견해를 붙여 만들어온 것이 오늘날까지 공안집으로 전해온다.

이런 선문답은 특히 송대 · 원대 · 명대를 거치면서 유행처럼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특히 간화선 수행 풍토서 이런 공안집들은 어디까지나 이전의 선문답을 언설로 표현된 형식만을 기준으로 편집되었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다시 선문답의 특징을 형성하게 됐다. 이쯤 되고 보면 선문답이 정형화되고 형해(形骸)화 되어 선문답을 위한 선문답으로 애초부터 의도적으로 만들어지기도 했다. 그래서 본래의 선문답이 지니고 있는 의미를 상실케 하는가 하면 오히려 반대로 본래의 선문답을 후대의 상황에 맞게끔 변형을 가하기도 했다.

이 선문답의 집대성인 공안집은 후대에 내려오면서 오늘날까지도 스승이 제자의 경지를 점검하는 시험문제와도 같은 인가의 표준으로 작용한다. 그 공안집 가운데서도 특별히 자주 응용되는 것이 있기도 하다. 그러나 스승은 어디까지나 모든 선문답을 제시해 그에 대해 제자에게 낱낱의 답변을 요구하기도 한다. 그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모든 사람이 모인 공개석상에서 선문답의 행사가 이루어진다. 제자는 그 통과의례를 아무런 탈이 없이 스승이 제시한 기준에 부합되도록 노력을 기울인다. 그리하여 마침내 스승에 의하여 제시된 선문답을 통하여 제자는 스승에게 인가를 받기도 한다.

여기에서 선문답은 예전의 생생한 선문답으로서의 본래기능을 상실해버리고 어떤 경지를 가늠하는 점검의 기준이 되어 깨침의 본질로부터 벗어난 부차적인 기능으로 전락해버렸다. 〈계속〉

〈前 조계종 포교원장, 육지장사 회주〉

수 천번 반복하는 내 염불 !

내 귀에 힘들면 질병! 내 귀에 편안하면 신명! (소리공학 논문에서)

수없이 봤지만 일반 기존 시설은 가격도 몇배지만 소리공학적으로 염불정서에는 도대체가 맞지 않아 질병을 부를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해결책 : 반드시 소리구경 조건으로만 부른 후 법당에서 견본품으로 충분하게 소리 비교를 해본 후 시설 상담을 하시면 가장 확실한 성공시설이 됩니다.

설악 신흥사 및 토굴까지 일천여곳 형편따라 소리공학 맞춤시공 (방문시 명단제공)

오직! 마이크 하나만 바꿈으로 현장체험 후 마이크만 구입 가능!
본 마이크는 시중에 없음. 있을시는 일천만원 포상(지금 이글은 법적증서)

▣ 사찰 전체음향 시설비는 일백구십만원~이백구십만원~삼백구십만원 ▣ 장기할부 가능

▣ 앰프1, 스피커 4개, LG오디오 1개, USB, 무선마이크 종류별로 4개, 유선마이크 1개(스탠드 포함) 완벽시설까지 390만원이면 명산대찰 수억대의 시설보다 염불소리가 확실히 월등함.
※ 각종 마이크, 방송장비 및 방생용 구경!

▣ **상담 구경 조건으로** : 055-343-1191, 010-9471-2026, 010-7740-2026

▣ **주소** : 경남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108 **하이텍사운드전자** **대표 박 공 희** (소리공학 전공, 명품소리훈련 원장, 전화상담)

진신사리의 말씀을 전합니다

소승은 경기도 연천 오봉사 주지 군맹서진이라 합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도 그 유래가 확실한 진신사리가 한국에 오시게 되어 1988년부터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깊은 불연으로 사리탑 건립불사를 발원하고 2019년 6월 29일부터 7월 7일까지 진신사리친견법회를 봉행하고 바로 봉안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진신사리께서 당신의 제자들과 인사하고 들어가셔야 하신다며 전국 사찰로 파발을 보내면 참다운 당신의 제자들이 인사하러 올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만날 제자들을 다 만나면 알려줄 터이니 그때 봉안하라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신비로운 현상으로 보아 소승의 망상으로만 치부할 수 없어 일단 지면상 석가모니 부처님의 참제자이신 한국불교대덕큰스님들께 진신사리의 말씀을 전합니다.

나무아미타불

적멸보궁 오봉사 | 주 지 **군맹서진** 합장

진신사리친견 안내

개별친견
- 매월 셋째주 일요일 오전 10시 (8월은 8월 18일 일요일 오전 10시)
- 서울 지하철 7호선 내방역 8번 출구에서 오전 8시 버스출발 (왕복 2만원)
- 친견 예약은 02-532-0012(강남불교대학) 또는 홈페이지(http://gangnambu.org)에서 3일전까지 예약 바라며 예약하지 않거나 10시 이후에 오시면 친견하실 수 없습니다.

단체친견
- 30명 이상의 단체친견일 경우, 전화로 일정을 조율하시기 바랍니다.
- Tel. 02-532-0012 강남불교대학

오봉사 진신사리의 유래는 유튜브채널 강남불교대학에서 [언제 또 이런 인연을 만나 이런 복을 지을 수 있을까요?] 라는 동영상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절개된 부처와 '참 나'의 깨달음



김원숙의
불교와 미학

⑭ 곤카르 갸초



곤카르 갸초, 〈나의 정체성: 1 (티벳 시절)〉, 2003 / 〈나의 정체성: 2 (중국 공산주의 체재기 화가)〉, 2003 / 〈나의 정체성: 3 (망명자로서의 예술가)〉, 2003 / 〈나의 정체성: 4 (런던 스튜디오)〉, 2003년, 디지털 사진, 56.6 x 70.6cm



곤카르 갸초, 〈절개된 석가모니불〉, 2010년, 실크스크린 위에 미디어, 콜라주, 연필 및 인도 잉크 혼합, 280 x 230cm, 개인소장, 뉴질랜드. 환하게 빛나는 곱고 찬란한 색채와 더불어, 한 편으로는 보는 이의 심상에 묘한 생경함을 던져 준다.

형상의 실루엣은 가부좌(跏趺坐)를 하고 있다. 오른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두 번째 손가락으로 땅을 가리키는 항마촉지인(降魔觸地印)의 수인을 한 석가모니불인데,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 형태를 구성하는 것들은 수많은 다양한 색채의 작은 스티커들이다. 이것은 작가가 전세계에서 모은 것들인데 여기에는 미키마우스, 팅커벨 같은 애니메이션 캐릭터, 사회정치적이면서도 극소수 컬트적 숭배의 대상이기도 한 체 게바라, 오사마 빈 라덴 등도 있고 맥도널드, KFC, IKEA 같은 회사의 스티커나 모택동, 오바마와 같은 정치인의 이름들도 보인다. 참으로 다양하기 그지없다.

석가모니불의 주변에는 새, 자동차, 말을 탄 사람, 파도타기를 하는 사람 등 다양한 작은 형태들이 그려져 있고, 카툰에서 흔히 사용되는 말 풍선들이 여기저기 그려져 있다. 석가모니불의 머리를 감싼 원광에서는 방사상으로 비행기들이 가로지른다.

이 작품은 티벳의 전통 탕카 제작 기법을 바탕으로 서구 현대 미술의 팝 아트 양식으로 재현되었다. 전체 도상은 보드가야의 보리수 나무 아래 앉은 고타마 싯다르타 주변에 마라가 보낸 수많은 야차들이 에워싸고 공격하는 모습이며, 수인은 '항마' 즉 마구니를 물리치고 깨달음을 얻는 '촉지'의 순간을 묘사하였다.

한편으로 이 작품에서는 대량 소비 사회의 여러 부정적 측면들이 우리들로 하여금 '참 나'에 대한 깨달음을 지속적으로 교란하는 듯한 중의적 이미지를 담고 있다. 화폭을 크게 아래 위로 가로지른 수직의 분할선인 "절개(dissection)"는 부처에 이르는 길, 곧 '참 나'에 이르는 길에 가로막힌 바리게이트 혹은 일종의 경고 표지판처럼 느껴진다.

작가는 부처의 심상을 소재로 한 이와 같은 스티커 콜라주 작품을 여러 점 제작하였다. 대부분 그 자신의 성장과정에서 배우고 체험한 티벳 전통의 불교 미술과, 후일 영국에서 수업시대를 거치며 받아들인 서구 현대미술이 잘 조화된 독특한 조형 언어로 자신의 예술 세계를 표현하였다.

곤카르 갸초(Gonkar Gyatso, 1961~, Tibet/China)는 1961년 티벳 라사에서 태어났다. 1950년부터 중국 공산당이 티벳을 지배했기에 갸초는 유년 시절을 그 영향 아래에서 보냈다. "집안의 모든 것들이 중국 물건이었으며, 가족 모두가 당의 지도를 엄격하게 따랐다"고 그는 기억한다. 그는 19세 때인 1980년 베이징으로 이주한 후 생애의 대부분을 고향인 라사를 떠나서 살았다.

베이징에서 갸초는 소수 민족을 위해 만들어진 교육기관에서 중국 전통 수묵화를 배웠다. 개인적 창의성이나 실험적 시도의 여지가 없는 도제적이고 엄격한 수업과정을 그는 썩 좋아하지는 않았으나, 대도시였던 베이징에서 서적을 통해서나마 처음으로 서양의 수많은 근,현대 회화를 접할 수 있었고, 미술관과 박물관도 접하게 되었다. 이때 그는 후기인상파, 큐비즘, 유럽의 고전 회화 등을 알게 되었고, 특히 장 프랑수아 밀레, 빈센트 반 고흐, 조지아 오키프의 그림을 좋아했다고 후일 회고하였다.

1989년 5월에 중국 사회를 크게 뒤흔든 천안문 사태가 일어났을 때, 갸초는 참여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술회한다. "그것은 나에게는 새로운 체험이었다. 그때 나는 완전한 혼돈에 빠졌으며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던 환상이 산산이 부서졌다." 중국 공산당의 제도권 교육에 의해 형성된 그의 정치적 신념 체계는 이 사건을 계기로 깊은 회의에 빠져들었다.

그 무렵, 갸초는 우연한 기회에 달라이 라마, 즉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그 14대 달라이 라마의 육성 녹음 테이프를 접하게 되었다. 물론 그것은 중국 당국의 냉혹한 감시와 통제를 피해 불법적으로 유통되었던, 참으로 어려운 물건이었다. 달라이 라마가 이야기하는 티벳의 역사와 불교의 정신은 그때까지 중국 공산당에 의해서 교육받아온 부정적이고 악의적인 내용과는 전혀 달랐다. 그는 자신의 눈에 덧씌워진 가리개를 버리고 조국 티벳과 불교의 참 모습을 보기 위해 머나먼 인도의 땅, 달라이 라마의 망명지인 다람살라로 향한다.

티벳인들에게 종교, 즉 불교는 바로 그들의 문화이자 삶 그 자체이며, 과거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삶의 기본 토대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상당수의 티벳 망명자들은 고향에서는 찾기 어려운 티벳의 전통을 이곳 다람살라에서 찾는다고 한다.

탱화와 흡사한 티벳 탕카 천착
서양에 새로운 미술 사조 전달

갸초의 이와 같은 역설적인 디아스포라는 여기 다람살라로부터 시작되었다. 달라이 라마는 중국에 의해 파괴되는 티벳의 전통 문화와 불교를 보존하고 전승하기 위해 많은 사찰, 박물관, 연구소 및 공연 예술 기관 등을 마련하였다. 1992년 다람살라에 도착한 갸초는 자신의 일생에 처음으로 이곳에서 불교에 대해 진지하게 배우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는 또 이곳에서 승려 불교 화가 상가이 예쉬(Sangay Yeshi)를 만나 1993년부터 1996년까지 탕카를 배우게 되었는데, 이는 그의 인생을 바꾼 경험이었다. 탕카(ཐང་ཀ, thangka)는 두루마리 형태의 걸개 그림으로 제작되는 불화(佛畵)인데, 우리나라의 탱화와 주제와 형식 그리고 그 용도에 있어서 매우 흡사하다. 사실 이러한 양식의 불화는 특이하게도 전세계에서 티벳과 한국 밖에는 없다. 티벳을 제외한 중국 지역에도 물론 불화가 존재하고 예로부터 전래되기는 하지만, 티벳의 탕카나 우리의 탱화처럼 직접적인 신앙의 대상으로서의 의미를 갖지는 않으며 사찰에 봉안되거나 여러 불교 의식에서 게시되지는 않는다. 갸초가 이 기간 동안 탕카의 수련에서 경험한 종교적, 미적 체험은 그의 작품 세계와 조형 언어를 특징짓는 요소가 된다.

이후 갸초는 런던으로 떠난다. 첼시 예술대학에서 대학원생으로 있던 그는 런던에서 지금까지 접하지 못했던 많은 경험을 하였다. 도시의 규모나 화려함은 차치하더라도 그때까지 그는 대가들의 작품을 실제로 보지 못하였고, 다만 도록이나 리프로덕션으로만 접했을 뿐이다. 미술관에서 직접 본 파울 클레, 바실리 칸딘스키, 아마데오 모딜리아니, 제임스 휘슬러, 노먼 록웰, 에드워드 호퍼 등 20세기의 대가 및 명성 있는 현대 작가의 그림들에서 갸초는 큰 감명을 받았다.

영국 왕립 미술 아카데미는 1997년 '사치 콜렉션'에서 청년 작가들의 작품을 중심으로 〈센세이션〉전을 열었고, 이후 형성된 yBa(young British artists) 그룹을 통해 상당수 작가들이 세계적 유명세를 얻는 사건이 있었다. 이 전시를 본 갸초는 커다란 충격을 받았으며, 그의 뇌리에 떠오른 생각을 이렇게 설명한다. "사치 전시를 보고 난 이후, 그리고 거기서 받은 문화 충격을 극복한 이후, 나는 어떤 통찰을 얻게 되었어요. 그 전시는 예술이 어떠해야 하는지 그리고 예술이 무엇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나의 생각을 바꿔 버렸어요. 나는 부처라는 주제를 잠시 잊고 실험적인 작업을 시작했어요"

현대 미술에 영감을 받은 갸초는 그 이전까지 자신을 지배했던 작품에 대한 고정관념을 잠시 접어두고, 새로운 세계의 새로운 사조에 몰입한다. 조금 더 넓은 관점에서 삶을 바라보고자 했던 그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물음을 던지며 〈나의 정체성 My Identity, 2003〉 연작 시리즈를 발표하여 화단의 주목을 끌게 된다.

티벳인으로 태어나 중국에서 교육을 받고 인도에서 여러 해를 보내다가 현재는 서양에서 작가로서 살아가고 있다. 오랜 피지배의 존재로서, 한때 망명자의 존재로서 그리고 지금은 이방인으로서 자아의 정체성에 대한 물음은, 어쩌면 갸초에겐 필연적이었을지도 모른다. 두렵고 때로 모호하고 낯설게 다가오던 삶의 여정에서 끊이지 않던 질문은 그의 작품의 주제가 되었다.

그의 연작 〈나의 정체성〉 4컷의 사진에서 갸초는 한 곳에선 티벳 전통 예복을 입은 '티벳인'이며, 다른 곳에선 중국 인민복과 붉은 완장을 착용하고 모택동의 초상 앞에 앉아있는 '중국인'이다. 다시 그는 망명지 라사에서 난민의 가방을 앞에 두고 탕카를 그리는 '망명자'이며, 마지막으로 이케아 스타일의 가구가 놓인 실내에서 팔레트를 들고 그림을 그리는 '예술가'이다.

이러한 여정 이후 갸초가 제작한 작품이 앞서 언급했던 〈절개된 석가모니불〉이다. 여기에는 어린 시절의 삶과 티벳의 불교문화, 탕카 수업 시절, 그리고 서구 사회에서 배우고 익혔던 현대미술과 새로운 사조의 충격, 이 모든 것이 갸초의 내면에 융해되어 하나의 작품으로 맺어졌다.

갸초는 이 시대의 티벳과 관련된 문제들을 문화적으로 그리고 복합적인 예술적 시각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특정 종교에 한정되지 않고, 동서양의 경계를 넘어서고 있다는 점에서 국제적인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작가는 지난 20년 동안 작품의 중심 모티브인 부처의 이미지를 21세기 깨달음의 상징으로 여긴다. 더 나아가 그는 "예술가는 부처의 형상을 캔버스처럼 자유롭게 사용해야 한다"고 말하며, "부처의 형상을 보여준다고 해서 다 부처가 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주장한다. "부처는 언제 부처가 아닌가?" 이러한 가초의 부처에 대한 생각은 부처란 고정된 형상이 아닌 바로 내면적, 정신적 투영(mental projection)이라고 하는 오랜 불교 사상에 철학적 근거를 두고 있다.

자아의 내면에는 자신의 모든 삶의 경험이 혼재한다. 작가의 디아스포라적 체험은 여기저기 금이 간 항아리처럼 아픔의 무수한 흔적일 수 있으며, 연이은 큰 파도에 밀려 도달한 낯선 해변의 삶인지도 모른다.

자신이 '누구인가'를 묻는 우리 모두는 어쩌면 고향을 찾아 헤매는 망명자다. 망명자는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고 싶어 한다. 티벳의 전통과 동시대 미술 현상이 융합된 특별한 미적 언어로 가득한 갸초의 작품세계는 이러한 인류의 오랜 물음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모색의 과정이다.

나의 여행은 길고 무척 먼 길입니다.
나는 이른 아침에 빛나는 햇살
의 수레를 타고 출발하였습니다.
그토록 많은 항성과 유성에 나의 자취
를 남기며 광막한 우주로 항해를 하였
습니다.
당신에게 가장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
가장 먼 길이며,
그 시련은 가장 단순한 가락을 따라가
는 가장 복잡한 것입니다.
순례자는 자신의 집에 이르기 위하여
낯선 문마다 두드려야 하고,
마지막 가장 깊은 성소에 다다르기 위해
온갖 바깥 세계를 방황해야 합니다.
나는 오랫동안 돌아다니다가 비로소
눈을 감고 말을 합니다.
"당신은 이곳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타고르의 『기탄잘리』 중에서

〈미술학자〉

연등시공전문기업 대광불교 연등자동승강장치 최초개발시공업체

대광불교는 연등전문 기업입니다. 대광불교만의 독특한 디자인과 숙련된 노하우로 각종 연등을 제작 보급하고 있습니다.
항상 등불을 밝히는 마음가짐으로 등 제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등 자동 승강장치



연등시공



대광불교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매자리길 113 | E-mail : hskhsg@naver.com | 010-9446-1862 | 010-2788-7270 | 031)768-7270 | 031)768-7271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 뮐세



임종욱의
붓다와 마주한 인생독법

⑭ 일본의 경제 보복과 불매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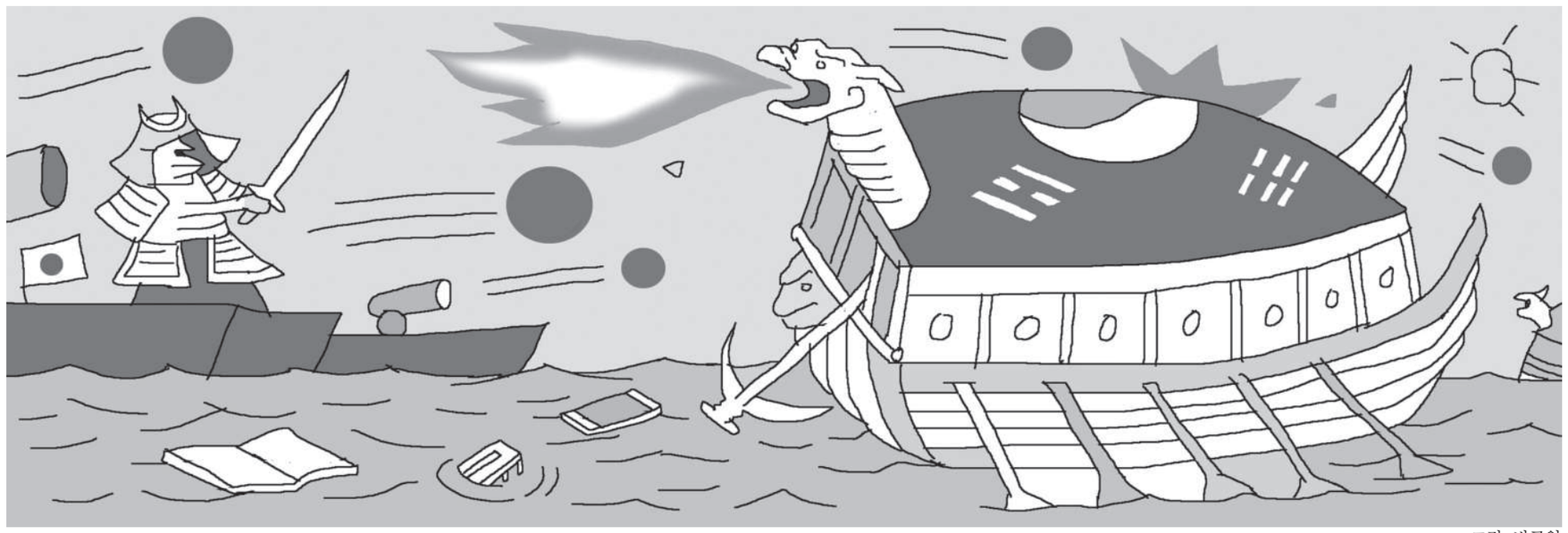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7월이 되자 생각지도 않았던 거대한 태풍이 나라 전체를 뒤덮고 있다. 여름에서 가을까지 북태평양 서부에서 발생하는 열대 저기압을 태풍이라 부르는데, 수명은 길어야 1주일에서 열흘 정도라고 한다. 그런데 이번 태풍은 일본의 비열한 정권 괴수의 터진 입에서 발화되어 북상했다. 예고편까지 준비하며 요란을 떠는 이 태풍은 가을도 지나 겨울까지, 아니 더 길고 질기게 불어올 것 같다.

태풍은 우리나라를 피해 빠져나가거나 세력이 약화되어 지나가기도 한다. 그런데 이번 일본발 요괴는 우리나라를 강타할 유일한 목적만 가지고 조장(助長)되었다. 그 위력도 만만치 않다.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를 들고 나왔지만, 그 품목이나 범위가 점점 늘어나 우리 경제 전반을 먹구름으로 덮을 기세다. 게다가 무기한이라 판단하고 대처해야 할 만큼 전면적이고 전격적이다.

일본발 태풍의 상륙은 이번이 처음도 아니다. 1592년에는 우리나라를 집어삼킬 마수를 드러내며 '임진왜란' 이란 이름으로 밀려와 7년 동안 우리를 괴롭혔다. 백여 년 전에도 '제국주의' 란 이름으로 몰아쳐서 35년 동안 이 나라를 통째로 삼켰다. 왜구(倭寇)라 불리는 자잘한 태풍이 들이닥친 숫자는 이루 헤아릴 수도 없다.

우리는 그런 태풍에 속절없이 당하기만 했던가? 그렇지 않았다. 피땀을 흘려가며 우리는 지혜롭게 그리고 끈질기게 저항해서 모두 물리쳤다. 전국에서 의병(義兵)이 들끓었고, 독립군(獨立軍)의 깃발 아래 단결해서 기어이 이 '마군(魔軍)의 하수인' 들을 몰아냈다.

지저분하기 짝이 없는 이번 일본발 태풍을 맞아 우리는 '불매운동' 이란 이름 아래 한마음이 되어 의병과 독립군의 비장한 결의로 불퇴전(不退轉)의 자세를 가다듬고 있다. 이번 전쟁은 칼과 총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고 경제 보복이라는 탈을 쓴 지배 야욕에 대한 쟁투니, 더욱 강인한 응전이 필요하다. 오랜 동안 서로가 적으로 대치했던 북한조차 섬나라 정권의 교활함을 질타하며 속이 후련할 만큼 명징한 논리와 비유로 토벌에 나섰다.

내가 사는 남해에도 일본에 뿌리를 둔 업체가 몇 군데 있다. 읍내에 있는 '다이소' 와 '티 큐브' 가 대표적이다. 다이소는 염가판매 전국체인인데, 매년 50억 원이 넘는 금액을 일본 법인 다이소에 지급했다고 한다. 티 큐브 역시 일본계 기업이 소유주로 알려져 있다. 티 큐브는 남해에 점포를 열 때부터 남해의 전통 상권을 잠식하고 일본계 기업이란 이유로 파장이 일기도 했다.

상품이 다양하고 저렴하다 보니 나도 읍내에 나갈 때면 이따금 두 점포를 이용해 왔다. 그런데 일본발 태풍에 시달리다 보니 그곳에 가서 지갑을 열 마음이 싹 사라졌다. "독립운동은 못했어도 불매운동은 하자"는 구호가 남의 일 같지 않아서다.

나는 문학 창작을 업으로 삼아 살아가는 사람이다. 주로 소설을 쓰는데, 지금까지 여덟 권의 작품을 출간했다. 작품이 시원찮으니 '베스트셀러' 의 꿈은 접은 지 오래지만 그래도 소설을 쓸 때면 나는 나만의 행복감에 사로잡힌다. 그런데 문학계만 국한하자면 한국과 일본 사이 무역 불균형은 크다는 정도를 넘어 끔찍한 지경이다. 거의 일방적인 학살이라고 봐도 틀린 말이 아닐 정도다.

해마다 우리나라에서 쏟아지는 일본 문학 작품의 번역량은 어마어마하다. 따로 통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수천 권도 넘을 것이다. 그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장르가 (내가 느끼는 한) 추리소설이다. 그에 따른 인세 지급 액수도 상당액일 게 분명하다. 몇 년 전 일본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의 소설 〈기사단장 죽이기〉 번역 판권을 따내기 위한 경쟁이 과열되어 선인세만 물경 20억 원을 불렀다는 출판사가 있었다면 말 다했다. 인세가 20억 원이 되려면 책이 적어도 백만 권은 팔려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 소설이 일본에서 소화되는 양은 얼마나 될까? 몇 십 권도 넘지 않을 성 싶다. 판매량도 대단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추리소설 작가 미야베 미유키나 히가시노 게이고의 작품은 거의 대부분이 번역되어 나왔고, 꽤 괜찮게 판매되고 있는데, 우리 작가나 작품이 일본에서 이런 성과를 올린 예를 나는 알지 못한다.

좋은 소설을 읽는 게 무슨 잘못이냐고, 그런 작품을 왜 우리나라 작가는 못 쓰냐고 따지면 굳이 할 말은 없다. 경제와 예술은 다른 영역이라고 반론할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예술이라고 독야청청(獨也靑靑)하는 분야도 아닐뿐더러 경제에서도 같은 논리는 유효하다. 경제가 종속당해 이런 치욕을 당하는데, 예술, 특히 문학의 종속은 마냥 관련 없다고 외면할 수 있을까?

의병이나 독립군들은 저들보다 훨씬 열악하고 무딘 무기를 들고 싸워 국난을 이겨냈다. 경제적 해방의 분위기가 고조되는 이때, 문학을 향유하는 독자들도 우리 문학에 힘을 실어주는 변화가 필요해 보인다. 더구나 내가 아는 한 우리 문학의 수준은 결코 낮지 않다. 문학에서도 '불매운동' 을 벌이자고 외치면 치졸하고 생각 짧은 삼류 작가의 헛소리라 비웃겠지만, 지금의 태풍을 보면 치외법권이 적용될 영역은 거의 없어 보인다.

간디도 연약한 샌님만은 아니었다

인도 독립의 아버지라 불리는 마하트마 간디(1869-1948)를 생각하면 가장 먼저 '비폭력 무저항' 이란 말이 떠오른다. 간디는 비교적 부유한 집안 출신으로, 식민지 인도에서 태어났다. 19살 때 영국으로 유학을 가 대학을 마친 뒤 변호사 자격증을 땄다. 인도의 민족시 〈바가바드기타〉를 탐독하던 그는 1894년에 인도인 국민회의를 결성하는 일에 앞장서기도 했고, 1895년에는 인두세(人頭稅) 반대 투쟁을 지도하기도 했다.

일본서 불어온 '수출규제' 태풍
선조의 주체적 극복 지혜 배워야
적극적 대응으로 민족의 힘 키우자

또 그는 약소민족의 자결 자주권을 주장했으며, 강대국들의 특권인 제국주의적 지배를 맹렬하게 비난했다. 이런 신념을 관철시키고자 그는 〈Young India〉라는 잡지도 발간했다. 그는 인도의 독립 약속을 저버린 영국 정부가 준 훈장을 반납했고, 영국 제품 불매 운동을 선언했으며, 물레를 쓰도록 장려했다. 무력에 의한 민족의 해방은 너무나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하고, 궁극적인 해결책도 아니기에 비폭력 무저항주의를 내세웠다. 그러나 2차 대전이 터지자 간디는 나치 독일의 잔학상을 폭로하면서 무력으로 항거할 것을 인도인에게 주문했다.

간디가 비폭력과 화해를 적극 외친 것은 1947년 8월 15일 인도가 해방된 전후부터였다. 무슬림과 힌두교도 사이의 갈등 때문에 조국이 인도와 파키스탄으로 나눠 독립되자 그는 독립 기념식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대신 전국을 다니면서 종교적 갈등을 해소하고, 민족이 단합하며, 평화를 중심으로 화해하자고 부르짖었다. 간디는 서로에게 대자대비(大慈大悲)하라고 외쳤다. 그에게 돌아온 것은 과격 힌두교 청년이 쏜 총탄이었지만, 간디가 평생 견지했던 정신의 핵심은 외세와 파쇼에 대한 강고한 저항이었다.

〈동물농장〉과 〈1984〉로 유명한 영국의 소설가 조지 오웰(1903-1950)은 인도 태생이다. 고등학교를 마친 그는 인도(정확하게는 지금의 미얀마[당시 버마])에 가서 5년 동안 제국주의 경찰로 살았다. 그곳에서 그는 제국주의 영국의 본질과 치부를 속속들이 깨달았고, 사직하고 돌아와 노숙자로 떠돌면서 참회와 성찰의 시간을 가졌다.

스스로 사회주의자라 자부했던 조지 오웰은 1937년 스페인 내전이 터지자 프랑코 독재에 맞서 싸우기 위해 참전했다. 목에 관통상을 입은 뒤 영국으로 돌아온 그는 그때의 체험을 〈카탈로니아 찬가〉란 책으로 세상에 알렸다. 그 경험에서 그는 소련의 스탈린 독재가 진정한 사회주의가 아니라 분열과 배신, 탄압과 처형으로 쌓아올린 피로 물든 제국주의 능선임을 알아차렸다. 그는 제국주의란, 식민지에 대한 비윤리적인 약탈 행위임과 동시에 피식민지인을 정신적으로 피폐하게 만드는 부도덕한 범죄임을 간파했다.

인도가 조국이었던 간디와 인도가 고향이었던 조지 오웰은 대단히 복잡한 삶을 살다간 인물이지만, 제국주의적인 선행(善行)의 허울 뒤에는 악마가 존재하고 있음을 정확하게 인식한 지식인이었다. 세상이 바람직하게 바뀌려면 이 악마들의 연저지인(吮疽之仁)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믿었다. 그것이 간디에게는 영국 제품 불매 운동이었고, 오웰에게는 목숨을 내건 적극적인 투쟁이었다.

우리의 오늘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한다

조선 말기와 구한말 때 의연한 자세로 일제와 맞선 의인(義人)들이 많았지만, 면암(勉菴) 최익현(崔益鉉, 1933-1906) 선생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사람이다. 1855년 과거에 급제해 정계에 발을 들인 그는 전형적인 유가(儒家) 지식인이었다. 1879년 단발령이 내려지자 "목을 자를지언정 머리카락은 자를 수 없다"며 격렬하게 반대했다가 투옥되기도 했다. 이때 그가 아낀 것은 머리카락이 아니라 우리의 자존심이었다.

1905년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그는 일본상품 불매운동의 전개를 촉구했고, 전북 태인에서 의병을 모집해 거병했다. 그리고 일본군에 체포되어 대마도로 유배되었다. 목숨보다 소중한 것이 나라의 자존(自存)과 자존(自尊)이었기에 그는 일본인이 주는 음식이라 해서 단식을 하다 끝내 이역 땅에서 세상을 버렸다. 이렇게 그가 뿌린 씨앗은 나라를 잃은 뒤인 1920년대 전개된 물산장려운동으로 열매를 맺었다.

이 나라를 뒤덮고 있는 일본발 태풍의 먹구름은 점점 더 마각을 드러내며 극악해지고 있다. 식민지 때 일본은 우리의 얼을 빼앗고자 갖은 모략과 학대를 자행했고, 대처승을 지지했던 일본 불교를 끌어들여 우리 불교를 오염시키려고도 했다. 그리고 이제 일본은 다시 제국주의적인 음모를 획책하고 있다. 내가 보기에 저들은 경제적 지배를 힘으로 강제하려는 저의를 넘어 우리들의 분열과 동요, 그리고 갈등을 유발해 저항의 원천을 끊어내려는 기획에 들어섰다.

지난 역사를 거울삼아 우리는 일본발 태풍에 넋 놓고 당하지 않고 주체적으로 극복했던 지혜를 배워야 하겠다. 태풍이 거세다고 방 안에 꼭꼭 숨어 지나가기만 기다리는 요행심은 더 큰 재앙을 불러올 뿐이다. 폭우와 질풍에 맞서면서 지붕을 여미고 버팀대를 세워야 우리의 집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싸움만이 능사가 아닌 것도 사실하지만, 오늘 우리가 싸움을 두려워하고 고개를 조아리면 내일 우리는 무장해제된 상태에서 죽기만 기다려야 할지도 모른다. 저들에게 사무라이 칼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싸울아비의 시퍼런 조선검이 있다.

〈소설가〉

한국불교의 미래를 리드하는
동방불교대학이 **새로운 인재**를
기다립니다.

동방불교대학 2019학년도

후기 신입생 모집 공고

입학문의 www.dongbang.org
한국불교태고종 종립 **동방불교대학 교학처**
(우)03062,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1길31(사간동 112)
Tel 02)745-2030 010-7236-0900 Fax 02)739-3470

모집요강

1. 본교는 본 종단의 종법(교육법 제19조/22조)이 정한 기본교육 기관으로서 출가득도자의 의무교육기관이다.
2. 본 종단의 합동득도수계산림을 통해 사미(니)계를 수지한 자 및 정사(재가승)는 본교에 입학해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승적취적 및 법계 등 각종 자격고시 응시자격을 부여받는다.
3. 본 종단으로 전종하여 입적할 승려는 본교에 입학해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한다.
4. 범패학과 신입생은 매년 1학년 입학을 원칙으로 한다.(편입학 불가)
5. 본교가 개설하고 있는 모든 학과 공히 출가자(사미/사미니 포함)와 재가자 모두 응시 가능하다.
6. 본교는 한국불교태고종이 설립한 종도양성 의무교육기관으로서 정부당국의 인가여부와 무관하다.

지원자격 ※ 본교 지원자는 공히 다음 사항 중 한 가지 이상의 자격을 갖춰야 한다.

1. 본 종단의 합동득도수계산림을 통해 사미(니)계를 수지한 자 및 정사(재가승)로서 교육이수의무 대상자
2. 본 종단으로 전종하여 입적한 승려로서 교육이수의무 대상자
3.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소지자로서 불교교학 · 불교의식을 수학하고자 하는 자
4. 본 종단 간부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불교교학 · 불교의식을 수학하고자 하는 자

모집인원 및 편제 ※ 접수인원 미달 시 폐강될 수 있습니다.

모집학과 불교학과(2년제 정규반) **모집인원** 00명

교육비 원서접수 전형료 : 5만원 | 입학금 : 20만원 | 등록금 : 학기당 100만원
계좌번호 : 농협 301-0212-6468-11 한국불교태고종 동방대불원

특전
- 승려가 동방불교대학 졸업시 선덕 법계 품수
- 동방불교대학 졸업후 사교/대교(2년) 졸업 시 중덕 법계 품수

전형일정

1. **원서 교부 및 접수** : 2019년 7월 15일 ~ 8월 23일
   - 인터넷 교부 : 동방불교대학 홈페이지 - www.dongbang.org
   - 방문 및 우편접수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1길31(사간동 112) 동방불교대학 교학처
   - 서류심사 : 2019년 8월 26일(입학전형의 서류심사는 학사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2. **합격자 발표** : 2019년 8월 27일(화) | 개별통지 및 본교 홈페이지

접수서류 ※ 우편접수 및 방문제출

1. 입학원서(소정서식) 1부
2.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1부
3. 기본증명서 1부
4. 수계증 사본 1부(해당자)
5. 승적 증명서 1부(해당자)
6. 종단간부 추천서 1부(해당자)
7. 사진 : 반명함판 3매, 명함판 2매 (득도수계자는 가사장삼 수한 모습)

‘禪’ 황금기 이끈 대표 선지식



정운 스님의
禪의 르네상스 이끈 선지식들

⑭ 남전보원 선사



중국에서 구입한 소장용 부채. 일반적으로 중국인들은 ‘평상심’이라는 글씨를 많이 소장한다.



중국 천동사의 ‘즉심시불’ 위패. 남전의 어록을 위패로 만들어 불상 옆에 모셨다.

조주에게 ‘平常心是道’ 전한 선사
조사선 시대 그대로 드러낸 사상
‘본래부처’ 인간적 주체의식 강조

마조 계승하며 자신 선법 구현해
임제종 · 조동종 더불어 韓불교 영향
사자산문 개산조 철감도윤이 제자

어느 승려가 남전선사에게 물었다.
“스님, 평상심이 무엇입니까?”
“졸리면 자고 앉고 싶으면 앉는 것이다.”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더우면 시원한 것을 먹고, 추우면 불을 쬐는 것이다.” **–〈전등록〉 ‘남전장’**

평상심(平常心). 많이 들어봄직한 단어이고 이야기일 것이다. 이와 똑같은 내용이 〈무문관〉19칙에도 전한다. 조주(778~897)가 스승 남전에게 이렇게 묻는다. “어떤 것이 도(道)입니까?”

이에 남전은 “평상심이 바로 도(平常心是道)이다”라고 답한다. ‘평상심시도’는 중국선의 르네상스 시대(조사선)의 캐치프레이즈나 다름없는 사상이다. 깨달아 있는 본래성불된 본각(本覺)에 입각해 있음을 말한다. 본 부처로서 행하고 말하기 때문에 평상의 그 마음이 바로 도요, 그 마음이 바로 부처라는 의미이다. 조사선 시대에 가장 중시되었던 것은 인간중심의 사상과 인간의 주체의식이 강조되었는데, 이 인간 중심사고를 가장 잘 대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평상심시도이다.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 언제 어디서나 자기의 주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자각적인 삶을 일구어 나가는 것이다. 이런 선문답으로 제자들을 지도하고 있는 남전은 어떤 선지식인가?

남전 보원(南泉普願, 748~834)은 조사선의 개조(開祖)인 마조(709~788)의 제자이다. 마치 안회가 공자의 총애를 받은 것처럼 남전도 마조의 총애를 받은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이 점은 다음 〈전등록〉의 일화를 토대로 한다.

어느 날 서당 · 백장 · 남전 세 사람이 마조를 모시고 달맞이를 갔다.

그 때 마조가 제자들에게 물었다. “바로 지금 같은 때에 무엇을 하면 가장 좋겠는가?”

서당지장이 말했다. “공양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백장회해는 “수행하기에 가장 좋겠습니다”라고 했다. 그런데 남전만 소매를 뿌리치면서 그냥 가버렸다.

그러자, 마조가 말했다. “경(經)은 서당에게 들어가고 선(禪)은 백장에게로 돌아가는데, 오직 남전만이 경계에서 벗어났구나.”

여기서 마조는 남전을 가장 수승한 인물로 보고 있다. 〈송고승전〉에는 마조 문하에 서당과 백장, 두 대사가 각립했다는 기록이 전한다. 그러나 원판(元版) 〈전등록〉에 와서는 남전이 첨가되어 세 선사가 각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게다가 ‘마조완월(馬祖玩月)’의 기연에도 남전이 첨가된 것은 송나라 때 선의 특징인 대기대용(大機大用)적인 선이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1138년에 발행된 〈고존숙어요〉에 남전계(남전 · 조주 · 자호)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남전의 선풍이 송나라 때에 재평가되었다고 볼 수 있다.



남전 보원의 진영.

남전의 휘호는 보원(普願), 속성은 왕(王)씨, 하남성(河南省) 정주(鄭州) 신정현(新鄭縣) 사람이다. 757년 10세에 대외산(大隈山) 대혜(大慧)에게 수업하고, 777년 30세에 숭산 회선사(會善寺)의 숭율사에게 구족계를 받았다. 남전은 계율과 경전을 공부하고, 이어서 용수보살의 삼론(百論 · 中論 · 十二門論)을 익히며 불법의 현묘한 도리에 심취해 있었다. 이후 남전은 마조선사를 만나 깨달음을 이루었으니, 사교입선(捨敎入禪)한 인물이라고 볼 수 있다.

795년 47세에 남전은 안휘성(安徽省) 지양(池陽) 남전산(南泉山)에 들어가 30년간 산에서 내려오지 않고 은둔하였다. 79세인 827년 지양 선성(宣城)의 겸사(廉使) 육선(陸亘)이 하산해 줄 것을 간청해 산을 내려와서 선풍을 펼쳤다. 이렇게 7년여 간 법을 펼친 뒤 세수 87세, 승랍은 58세로 입적하였다.

남전에 관한 일화는 어록 곳곳에 전한다. 남전의 사상이 드러난 몇 가지만 살펴보자. 남전이 마조 문하에 있을 때의 일이다.

남전이 대중들에게 죽을 급식하고 있는데, 스승 마조가 물었다. “통 안에 무엇이 있느냐?”

남전이 말했다. “이 노인네가 입도 움직이지 않고 말을 하네.”

마조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조록〉**

제자가 스승에게 막돼먹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선문답을 통해 스승과 제자와의 기량이 전개되는 모습이다. 남전이 스승 마조에게 말로서 제압하는 기연으로 보아 마조가 남전의 대기(大機)를 인정한 것으로 사료된다.

남전의 스승인 마조는 제자들에게 ‘즉심시불(卽心是佛)’을 권하며 법을 설했는데, 마조 이후에 즉심시불 사상을 잘못 받아들이는 이들이 많았다. 곧 즉심시불은 우는 아이를 달래기 위한 하나의 수시(隨時) 방편에 불과한데, 제자들 중에는 이를 집착하고 교조화하였다. 남전은 이런 시류를 비판하였다.

어느 승려가 물었다. “위의 조사로부터 마조에 이르기까지 모두 말씀하기를 ‘마음이 곧 부처요, 평상심이 도’라고 하셨는데 지금 화상께서는 어찌하여 ‘마음이 부처가 아니요, 지혜가 도가 아니다’라고 하십니까? 학인들 모두가 의심하고 있습니다. 화상께서 지도해 주십시오.”

남전이 소리를 버럭 지르며 말했다. “그대가 부처라면 다시 의심하지 말 일이지, 다시 내게 물으면서 어디에 그런 옆집의 부처를 의심하는가? 나는 부처도 아니요, 조사를 보지도 못했다. 그대가 그렇게 말하니 그대 혼자서 조사를 찾아보아라.”

또한 〈전등록〉에도 앞과 유사한 내용이 있다.

하루는 어떤 승려가 와서 물었다. “지금 화상께서 말씀하시기를 ‘곧 마음이 부처(卽心是佛)라고 해서도 안되고,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다(非心非佛)고 해서는 안된다’고 하는데, 스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대가 ‘곧 마음이 부처다’라고 믿으면 그만이지, 무얼 다시 되고 안 되고를 말하는가? 마치 그대가 밥 먹은 뒤 동랑(東廊)에서 서랑(西廊)으로 가면서 사람들을 붙잡고, 가도 되는지 안되는지를 묻고 있는 것과 같다.”

곧 원래 부처이니, 다시 찾을 것도 없거늘 왜 의심하고 문제를 일으키느냐는 말이다. 즉심시불이든, 비심비불이든 언구에 집착하지 말고, 마음이 부처임을 믿고 수행해 나갈 것을 강조한다. 조사선은 스승 마조에 의해 개창되었지만, 이를 전개하고 발전시킨 인물 중의 한 사람이 남전이라고 본다. 곧 평상심의 선이 한층 진일보되어 일상성의 종교로 전개되었다. 이런 선사상으로 인해 남전 문하에서 배출된 선사들이 간화선 발전에 영향을 미쳤다.

남전참묘(南泉斬猫)나 이류중행(異類中行, 수행자가 축생 등 중생 속에서 수행하며 교화에 힘쓸 것) 등 그와 관련된 공안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아 남전은 당시에 독특한 선풍을 펼친 소유자였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일원상과 관련된 남전의 선기(禪機)가 드러난 내용이다.

남전 · 귀종지상(歸宗智常) · 마곡보철(麻谷寶徹) 세 사람이 함께 남양혜충 국사에게 예를 드리러 가는 길이었다. 남전이 땅에 동그라미를 그리며 말했다. “말해보라 그러면 가겠다.”

귀종은 원상 안에 들어가 주저앉았고, 마곡은 허리를 굽혀 여인처럼 절을 했다.

남전이 말했다. “그렇게 하면 가지 않겠다.”

귀종이 말했다. “이게 무슨 마음인고.”

이 일화는 〈전등록〉뿐만 아니라 〈벽암록〉 69칙에 ‘남전일원상(南泉一圓相)’이라는 제목으로 수록되어 있다. 남전에게 독특한 두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는 그는 마조 생전에 세인들에게 널리 알려졌으며, 둘째는 마조의 선법을 계승하면서도 독특한 선법을 형성하고 있어서 임제종계 뿐만 아니라 조동종계에 이르기까지 두루 널리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다. 조동종의 동산 양개(洞山良价, 807~869)가 출가해 의지한 선사가 오설이다. 오설 선사는 양개의 근기가 수승함을 느끼고, 그를 떠나보내면서 “바른 깨달음을 얻으려면, 남전화상에게 가서 배우라”라고 하였다. 또한 당시 선사들 중, 수행이 잘 되지 않으면 남전을 찾아간 이들이 많이 있다.

남전 문하에 수백여 명의 제자들이 있었으며, 신라 사자산문(獅子山門)의 도윤(道允)도 포함된다. 남전 문하를 대표하는 제자로는 장사경잠(長沙景岑, ?~868) · 자호 이종(子湖利蹤, 800~880) · 조주 등이 있는데 이들은 모두 한 지역에서 선풍을 드날린 인물들이다.

경잠은 어려서 출가해 남전 문하에서 수행한 뒤, 그의 법을 받았다. 경잠은 호남성 장사 녹산에서 선풍을 전개하며, 제자들을 지도하였다. ‘백척간두진일보(百尺竿頭進一步)’라는 화두로 널리 알려진 선사이다. 백척간두란 수행해서 오르고자 하는 절대 경지를 뜻한다. 최고의 경지인 백척간두에 올라 혼자만의 적정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되돌아 중생을 제도한(進一步)는 뜻이다. 중생들 삶속에서 도를 추구했듯이 경잠의 공안에서 남전의 이류중행을 엿볼 수 있다.

〈조계종 불학연구소장〉



진정한 참회는 '개과천선'

〈改過遷善〉



新 불교사자성어

㉗ 이참사참(理懺事懺)

'이참사참(理懺事懺)' 은 이치적으로도 참회하고 행동적으로도 참회한다는 뜻이다. 잘못된 점이 있으면 마음과 생각으로도 참회(理懺)하고 실천적 행동적으로도 참회해야만(事懺) 진정한 참회가 된다는 뜻이다.

불교에서는 참회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참회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빈다는 뜻이다. 동시에 다시는 그와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각오가 담겨 있다. 잘못을 뉘우쳤다고 하더라도 반복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참회가 아닌 것이다.

이참사참(理懺事懺) 등 참회는 '개과천선(改過遷善)' 의 반성적 의미를 갖고 있다. 따라서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뉘우치고 반성하고 동시에 개과천선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입으로만 참회하는 구참(口懺)이고, 겉으로만 참회하는 '눈가림 참회' 라고 할 수 있다. 잘못이나 실수를 반복한다면 자신의 인성만 점점 악화시켜서 더 큰 실수나 파계 등 잘못을 저지르게 된다.

불교에서는 참회의 방법으로 주로 부처님 앞에 108배를 하는 '108참회' 를 많이 한다. 또 3천배도 있다. 108배, 3천배를 하면서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성찰한다. 그런데 겉으로는 108배, 3천배를 하면서 마음속으로는 '두고 보자' 라는 식도 있다. 그것은 악을 기르는 것이다.

인도불교에서는 매달 보름날(15일)과 그믐날(30일)에 대중들이 모두 모여서 계율을 한 조목씩 읽고 그것을 범한 사람은 대중 앞에서 고백, 참회하는 의식이 있다. 이것을 '포살(布薩)' 이라고 한다. 또 '자자(自恣)' 라고 하여 안거(安居, 결제)가 끝나는 날 저녁에 그동안 자기가 한 말이나 행동 가운데 잘못된 것이 있는지 주위 사람들에게 묻고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는 의식도 있다.

'지과필개(知過必改)' 라는 말이 있다. 자신의 허물, 단점, 잘못을 알았다면 반드시 고쳐야 한다는 말인데, 이런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다. 무지해서 모르는 사람도 있고 알아도 자존심 때문에 고치지 않는 사람도 있다. 이런 사람들은 성장, 발전하지 못한다. 60살이 되어도, 80살이 되어 죽을 때가 되어도 똑같다. 이런 사람은 태어나면서 부터 포맷이 잘못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참회는 잘못된 마음을 정화하는 작업이다. 나쁜 마음을 정화하여 착한 마음으로 고치는 기능이다. 정수기가 물을 정화하고 정화조가 화장실을 정화하는 것과 같다고 보면 된다. 불교에서 말하는 명상이나 참선, 위빠사나 등 수행의 목적도 마음(번뇌심)을 정화하는 데 있다. 증오심이나 분노 등이 정화되지 않는다면 그런 수행은 아무런 의미나 가치가 없다. 수행자가 스스로 마음을 조절하지 못한다면 그런 수행자는 일반인만도 못하다. 그래서 위빠사나 수행에서는 먼저 자비송(자비스러운 싯구)을 외운다. 자비심이 마음을 정화해주기 때문이다.

참회가 없는 수행은 '허상' 이다. 무엇보다도 먼저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참회를 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참회하는 순간, 시기와 질투, 분노, 증오, 등 좋지 못한 생각 등 악심(惡心)들이 정화되고 순화된다. 마음이 악에서 선으로 바뀌어 진다. 그것이 '개과천선(改過遷善)' 이다.

〈천수경〉에는 참회게가 있다. "내가 지난날 지은 모든 악업, 모두 '탐 · 진 · 치' 때문이었네. 신구의로 지은 죄를 지금 모두 참회합니다"라는 싯구는 깊이 마음으로 새겨야 할 싯구다.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1817~1875)의 참회록이 있다. 자신의 젊은 날을 참회한 기록인데,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의 지난날을 생각해 보니 너무나도 나쁜 삶이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죄 없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간음을 하기도 하고 도둑질도 하는 등 갖가지 나쁜 짓을 했는데, 그는 깊은 죄의식에 사로잡혔다. 그리하여 '도대체 인생은 무엇인가?' '나는 왜 사는가?' '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인가?' 이런 생각들이 걷잡을 수 없이 마음속을 파고들었다. 그는 통렬하게 반성하고 오열했다. '도대체 내가 무슨 이런 삶을 살았단 말인가?'

톨스토이는 참회록을 통해 통렬하게 반성하고 새롭게 거듭난다. 그리고 30년이 넘도록 이 반성을 토대로 '참되게 살기' , '바르게 살기' 에 올인했다. 〈전쟁과 평화〉 등 명작을 많이 남길 수 있었던 것도 자신의 삶에 대한 깊은 참회와 성찰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참회와 반성은 철저한 자기비판과 성찰에서 출발한다. 치열한 참회에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것이다. 〈윤창화 민족사 대표〉

조주에게 생긴 '옥의 티'



격절록 강설

㉗ 설봉고간 평창 3

[評唱 3]

只如 雪竇道 "如斯話會 深屈古人" 且道 是屈 是不屈. 懷和尚道 "作麼生會不答話底道理. 讚歎趙州即不無 還知趙州一片玉瑕生麼. 若點檢得出 相如不誑於秦王" 雪竇分明拈了也. 而今人却不去見趙州雪峯 却走去咬雪竇語句 去語脈上走 不知他雪竇一手擡 一手搦. 且道 阿誰是斬釘截鐵本分宗師. 阿誰是就下平高難為作者. 到這老直饒辨得去 也只是語脈上走

설두가 말했다.

"(대중이 모두 말하기를 '설봉은 이 스님의 물음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래서 조주가 긍정하지 않은 것이다' 고 한다.) 이와 같은 말은 고인을 몹시 억울하게 하는 것이다."

자, 말해보라! 억울하게 한 것인가, 억울하게 하지 않은 것인가?

회 화상(懷和尚, 천의의회)이 말했다.

"(설봉이) '대답하지 않겠다' 고 한 도리를 어떻게 알고 있는가? 조주를 찬탄한 것인 즉 없지는 않으나, 조주에게 한 조각 옥의 티가 생긴 것을 알겠는가? 만약 이를 점검해낸다면 상여(相如, 인상여)가 진왕(秦王)을 속이지 못했을 것이다."

설두는 분명하게 염(拈)을 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도리어 조주와 설봉이 만난 곳엔 가지 않고, 설두에게 달려가서 설두의 어구(語句)나 씹고 어맥(語脈)에만 치달리니, 저 설두가 한 손으로는 들어 올리고 한 손으로는 내리누른 것을 모르고 있는 것이다.

자, 말해보라! 못을 끊고 쇠를 자르는(斬釘截鐵) 본분종사(本分宗師)가 누구인가? 누가 낮은 곳을 취하여 높은 곳을 고르기에 작자가 되기 어려운 사람인가? 이 늙은이에게 와서 설사 분명하게 가려낸다하더라도 역시 다만 어맥에서 치달리는 것일 뿐이다.

❋천의의회(天衣義懷, 993~1064): 송대(宋代)의 스님. 운문종. 30세에 출가하여 법화지언(法華志言)에게 참학하고, 또 금란 선(金鑾善)과 섭현귀성(葉縣歸省)에게 참학한 후, 취봉사(翠峰寺) 설두중현(雪竇重顯)에게 참학하여 그의 법을 이어받음.

❋사기(史記)의 상여전(相如傳)을 참조하기 바란다.

❋선문염송집 고칙 785에서는 본 설봉고간화(雪峯古澗話)에 대한 원오의 송(頌)을 다음과 같이 전한다.

趙州象骨嵓 조주와 상골암(설봉)!

擧世無倫擬 온 세상에 견줄 사람 없네.

共撫沒絃琴 줄 없는 거문고(沒絃琴)를 함께 타고

千載淸人耳 천 년이나 사람들의 귀를 맑게 하네.

古澗寒泉 옛 골짜기의 찬 샘물

瞪目疑然 눈을 부릅뜨고 자세히 봐도 의심스럽고,

不從口入 입으로 들어가지 않으니

飮者忘筌 마시는 자는 통발을 잊어버리네.

重出語苦又死 거듭 말을 해서 쓰다 하고 죽는다 하지만

不答話同彼此 답하지 않은 것은 서로 같으니

相逢兩會家 두 대가(兩會家)가 서로 만나

打鼓弄琵琶 북 치고 비파를 뜯네.

个中誰是的 이 중에 누가 분명한가?

白馬入蘆花 백마가 갈대꽃 속으로 들어가네. 〈강승욱 법사〉



신해행증으로 본 백문백답

㉗ 이해의 길 7

연기적 사유는 인간의 책임

초등학교 시절 각 교실에는 급훈이 담긴 하얀 액자가 걸려있었다.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그 당시 급훈으로 많이 등장한 단어는 근면이나 성실, 정직과 같은 가치였다. 공부도 열심히 하면서 근면하고 성실하게 살면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이 담긴 단어들이다. 어찌 보면 경제성장을 중요하게 여겼던 70년대 산업사회에 꽤나 잘 어울리는 덕목이다.

그런데 보편적이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가치들도 사유(思惟)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누군가를 해치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를 여실히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제2차 세계대전에서 600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한 아이히만(Adolf Eichmann, 1906~1962)이다. 1961년 12월 예루살렘에서 전범 재판이 열렸는데, 그는 히틀러의 지시에 따라 임무를 성실히 수행했을 뿐 자신은 아무런 죄가 없다고 강변했다.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된 세기의 재판에 미국 잡지인 〈뉴요커〉의 요청으로 재판을 취재한 여성이 있었다. 바로 '악의 평범성(Banality of evil)' 이란 유명한 말을 탄생시킨 한나 아렌트(Hannah Arendt, 1906~1975)다. 그녀는 나치의 유대인 박해로 독일에서 프랑스를 거쳐 미국으로 망명한 정치철학자다. 그녀는 천인공노할 아이히만의 악행이 어디에서 왔는지 알기 위해 그를 집중 취재했다. 그리고 내놓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그로 하여금 그 시대의 엄청난 범죄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되게 한 것은 '순전한 무사유 (sheer thoughtlessness)' 였다."

아렌트의 유명한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이다. 그녀는 이러한 무사유가 인류의 모든 악을 합친 것보다 훨씬 많은 대파멸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 예루살렘에서 배운 교훈이라고 했다. 그녀에게 비친 아이히만은 성실하고 정직한 관료였다. 그는 사람들의 생각과는 달리 유대인을 좋아하는 친절하고 정직한 이웃집 아저씨와 같았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이처럼 엄청난 악행을 저지를 수 있었을까? 그것은 다름 아닌 자신의 행동이 상대에게 어떤 아픔과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아렌트의 판단이다.

그녀는 사유를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책임이라고 강조한다. 즉, 자신의 행동이 세계에 끼칠 영향과 의미를 '반드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에서 사유가 결여된 근면이나 성실, 정직과 같은 가치들이 엄청난 악행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아무런 생각 없이 행동을 하게 되면 악은 언제든지 평범하게 우리 앞에 다가올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아렌트가 우리에게 전한 메시지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나의 행동이 다른 이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생각해야 할까? 그것은 바로 모든 것은 서로 깊은 관계 속에서 연기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행동은 어떤 식으로든 세계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생각 없이 던진 한 마디 말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어 엄청난 사건으로 번지기도 하고, 반대로 작은 선행이 상대에게 위로나 용기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큰 의미가 되기도 한다. 따라서 사유는 책임이라는 아렌트의 통찰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큰 틀에서 보면 아렌트의 철학과 불교의 연기적 사유는 서로 통하고 있다. 인간과 세계를 독립적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복되는 말이지만 불교 전체를 일관하고 있는 메시지는 나와 세계가 연기적으로 존재한다는 실상을 깨쳐야 한다는 것이다. 불교에서 동체자비(同體慈悲)를 강조하는 것도 이것을 깨쳤을 때 비로소 진정한 사랑이 나오기 때문이다. 우리는 연기의 진리에서 사유의 의미와 책임을 읽을 줄 알아야 한다. 그것이 곧 문제의식을 갖고 오늘에 맞게 불교를 해석하는 일이다.

1980년 5월 광주에서 상부의 명령에 따라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했다고 말한다면 아이히만과 다를 바 없다. 우리 안에도 꽤 많은 아이히만이 잠자고 있지 않을까? 스스로 성찰해 볼 일이다. 연기의 진리는 잠들어있는 우리의 삶(生)을 일깨우는(覺) 혁명적 사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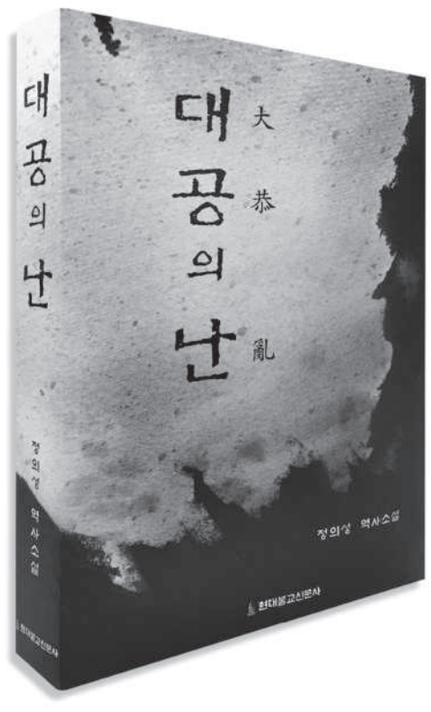
〈이일야 전북불교대학 학장〉

"운명의 화살은 일직선으로 날아가는 법이 없더라"

불법이 꽃을 피웠던 통일신라,
그러나 어둠이 짙으면 새벽이 더욱 밝게 열리듯이
법멸의 월식 기간이 있었으니,
그 시대를 건너야 했던 왕과 여왕,
화랑과 고승들, 그리고 천하제일을 다투는 검객들의
사랑과 운명이 밤하늘과 별처럼
오늘 우리의 가슴을 적신다.

작가 정의성 (鄭義成)

신라의 김대성 공은 전생의 부모를 위해
석불사를 지었고 현생의 부모를 위해 불국사를 지었습니다.
그 멋들어진 효성이 천이백 년이 훌쩍 지난 지금에도 남아있습니다.
저도 작게나마 부처님께 이 책을 지어 바쳐
부모님의 행복을 빌고자 합니다.



대공의 난

정의성 역사소설 | 신국판 | 704쪽 | 값 22,000원

현대불교신문사

현실을 꿈처럼 재해석하게 하는 불교적 환타지,
무협소설 같은 속도와 긴장,
삼국지를 연상시키는 지혜와 술수의 맞대결…

이 소설은 통일신라시대 중기에 일어난 대공의 난을 다루고 있다.
모름지기 소설은 첫째, 재미가 있어야 하는데 작가 정의성의 〈대공의 난〉은 그 첫째를 충족시키고도 남음이 있다. 암흑의 시기를 통과하는 청춘 남녀들의 사랑과 비극이 폭염 속의 단비 같고, 장마 속의 햇살 같은 신들린 작가의 손에 의해 반전에 반정을 거듭하며 절묘하게 펼쳐진다.
〈삼국사기〉,〈삼국유사〉가 갖는 비통일적인 특성들이 작가의 상상력에 의해 결합, 재창조되어 역사 속의 인물들을 더욱 생생하게 눈 앞에 되살려냄으로써 특별한 재미와 함께 인생사의 오묘한 이치를 사유하게 된다.
역사에 대한 깊은 연구와 방대한 자료조사, 검술과 진법에 대한 작가의 해박한 지식과 갈고 닦은 내공이 작품 속에 녹아 있어 삼국지를 연상시키는 박진감을 선사하면서, 영화나 드라마처럼 생생하게 펼쳐진다.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 구입처 : 현대불교 현불샵 ☎ 02)2004-8216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 대표이사 서성우



청소년에 불교자원봉사 홍보

탑사 · 쌍봉사, 진안 자원봉사 박람회서

진안 마이산 탑사(주지 진성)와 쌍봉사(주지 보경)가 제4회 진안군 청소년 자원봉사 박람회에 참여해 △합장주 만들기 △불교 상담 △떡볶이 스님 요리 △108염주 만들기 등의 체험부스를 운영하며 불교를 알리는데 앞장섰다.

7월 23일 진안군민자치센터 앞 광장에서 열린 이번 청소년 자원봉사 박람회는 총 20개 자원봉사단체 홍보부스와 체험부스가 마련됐으며, 다양한 체험프로그램과 봉사활동 정보를 400여 청소년들과 공유했다.

탑사 총무국장 정해 스님은 "박람회가 점차 규모도 커지고 내용이 풍부한 청소년 축제로 거듭나고 있다"며 "불교의 다양한 자원봉사 프로그램이 청소년들에게 다가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쌍봉사 주지 보경 스님은 "청소년 자원봉사 박람회를 통해 불교 자원봉사 활동을 소개하고, 청소년들이 원하는 정보도 교류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다문화가족 인권 향상 앞장"

착한벗들, 진선미 여가부장관 간담회

결혼이주여성 등 다문화가족을 지원하는 (사)착한벗들(이사장 회일, 참좋은우리절 주지)이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7월 23일 전북 전주시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회일 스님, 태고종 전북종무원장 진성 스님, 태고종 전북종무원 스님들과 전북다문화가족지원센터협회 회원, 전북 각 지역 다문화가족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진선미 장관은 목포와 익산에서 발생한 다문화가족 피해사례를 언급하면서 "그동안 많은 분들의 힘으로 다문화가족에 대한 대중의 인식 변화를 이끌어 왔지만, 여전히 공개되지 않은 많은 폭력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진 장관은 이어 "이러한 일련의 사태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풀기 위해 허심탄회한 의견을 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어진 진 장관과 다문화가족 간담회는 인권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해 비공개로 진행됐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청년 공동체 의식 경쟁사회 속 대안"

Interview

제10회 영부디스트캠프 여는 박유진 대불련 회장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수처작주 입처개진' 자세로
도반 가치 재인식하는 기회
법등별 모임 등 다양한 행사

"경쟁사회에 내몰려 친구도 라이벌이 되는 현실을 살아가는 대학생들이 부처님 가르침으로 공동체의 가치를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어디서나 주인이 되는 청년 붓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이번 10회 영부디스트 캠프를 특별하게 준비했어요."

청년들에게 가장 스트레스를 주는 것이 무엇일까. 대학내일 20대연구소 등이 발표한 '2019 대한민국 20대 불만 리포트'에 따르면 '라이벌이 된 친구'가 가장 큰 스트레스 요인이다. 경쟁 사회 속에서 20대들은 자존감이 떨어지고(55.3%), 친구를 경쟁자로 보며(46.0%), 가까운 친구와 멀어지는(35.0%) 것이 가장 스트레스를 주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런 상황에서 청년들이 함께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도반으로 발전해 갈 수 있는 새로운 장이 마련된다.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회장 박유진)가 8월 2일부터 5일까지 인제 만해마을과 양양 낙산사 일대에서 '가치 있는 청춘, 함께하는 우리'라는 주제로 제10회 영부디스트캠프(Y.B.C)를 여는 것이다. 이날 대회에는 이미 200여 명의 청년들이 참가를 신청한 상태다.

10회 대회인 만큼 이번 영부디스트 캠프는 기존과 조금 다르게 진행된다. 박유진 회장은 "이번 대불련 캠프는 전신인 한국불교 1600년 대회에 이어 새롭게 구성된 영부디스트캠프가 열 번째로 열리는 만큼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며 "청년들이 언제 어디서나 주인 되는 '수처작주 입처개진'의 자세로 긍정적인 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필요한 자질을 함양하고, 자신의 청춘이 가치 있음을 깨닫는 기회를 주고 싶다"고 바람을 밝혔다.

캠프에서는 삼귀의, 한글반야심경 독송, 대불련가, 사홍서원 등 입재식에 이어 법등별 모임이 구성된다. 이 법등에서의 활동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도록 유도한다. 또한 강연 및 자신의 가치를 돌아보는 미니북 만들기, 낙산사 순례, 불교상식 퀴즈 도전 붓다벨, 마음 나누기, 바다 물놀이 등도 진행된다.

박 회장은 "불교라는 공통분모로 청년 불자들이 만나 도반으로서 서로를 대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평소 학업을 위해 개인적으로 공부하던 이들이 단체활동을 통해 새로운 미래 비전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이어 "결국 개인만이 중요시되는 우리 사회에서 나와 너의 상관관계 속에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10회에 이어 향후 영부디스트캠프를 청년들의 공동체 의식을 높이는 대회로 만들어가는 데 주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인재 양성은 최고의 불사"

청도 운문사 법륜비구니장학회 10회 장학금 수여, 각 500만원

청도 운문사(주지 운산)는 7월 24알 운문사 경내 선열당에서 제10회 법륜비구니장학회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법륜비구니장학회 이사장 명성 스님(운문사 회주)과 상임이사 진성 스님(내원사 주지), 운문사 강주 일진 스님, 운문승가대학장 진광 스님, 운문사 주지 운산 스님, 이복자 법륜비구니장학회 이사 등 사부대중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전달식에서는 동국대 대학원 불교학과 도준 스님, 위덕대 대학원 불교학과 법휘 스님, 동국대 불교대학원 불교사회복지학과 정호 스님, 동국대 대학원 선학과 혜철 스님, 중앙대 예술대학원 예술경영학과 최완호 불자 등이 각각 500만원의 장학금을 받았다.

법륜비구니장학회 이사장 명성 스님은 "10년 뒤를 보고 나무를 심고, 100년 뒤를 보며 교육의 나무를 심어야 한다. 불사 가운데에는 인재불사가 으뜸이라 오늘 학문과 수행을 겸비하고, 정법구현과 불교발전에 이바지할 것을 다짐받아 소정의 장학금을 수여하게 됐다"면서 "장학금을 받은 여러분은 불교발전이라는 공공의 원력을 세워 한국불교가 이 땅에 오랫동안 이어지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법륜비구니장학회 이사장 명성 스님과 제10회 장학금 대상자들.

한편 법륜비구니장학회는 비구니 스님 및 불자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해 불교발전과 인재 양성에 기여하고자 설립됐다. 2009년 운문사 회주 명성 스님이 장학금 마련을 위한 서예작품전시회를 개최해 수익금 5억 원을 기부하면서 장학회가 시작됐으며, 지금까지 총 49명에게 2억4500만원의 장학금을 수여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종단협, 중국불교성지순례

中운남성 일대서, 각 종단 수장들 동참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원행, 조계종 총무원장)는 7월 21~27일 '제6차 한국불교지도자 해외성지순례'를 중국 운남성 일대에서 개최했다. 2013년부터 매년 불교성지순례를 통해 회원 종단간 화합과 우의 증진을 위해 진행하는 이 사업에는 올해 조계종 · 천태종 · 진각종 · 관음종 · 총지종 · 대각종 등 22개 종단서 총 39명이 참가했다. **윤호섭 기자**

"전북 가야문화 발굴 필요"

전북불교대학 곽장근 교수 초청 하계특강



전북불교대학(학장 이창구)은 7월 21일 대학 4층 큰법당서 곽장근 군산대 교수(가야문화연구소장)를 초청해 '가야문화를 만나다'라는 주제로 하계특강을 개최했다. 곽 교수는 "국내 문헌에는 나오지 않지만 고고학적 유물을 통해 전북 남원, 장수 등 7개 지역에서 가야문화 유적이 나타나고 있다. 가야사 복원을 통해 영호남의 상생과 잊힌 가야문화를 밝혀나가야 된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지역 복지공동체 구축 나서

신사종합복지관 '인사나누기 캠페인' 업무협약



서울 은평구 신사종합사회복지관(관장 지완)은 7월 22일 신사1동 주민센터,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가족 · 이웃 간 관계회복을 위한 인사나누기 캠페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캠페인은 '2019년 은평형 사회보장증진사업'에 선정된 것으로, 일상 속에서 주민참여의 인사캠페인을 전개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관계망을 확대하고, 복지공동체를 구축하고자 기획됐다. **윤호섭 기자**

붓다북 불교종합쇼핑몰 Buddha Book



지면에 진열된 상품들은 붓다북에서
미니불상으로
검색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www.buddhabook.co.kr

서울 성북구 보문로 38길 11 동일하이빌 지하 1층 (주) 운주사 Tel. 02-953-7181

(사)대한국불교조계종
승가회

총무원장 **호산 성보**

승가회 종도 일동
사부대중 일동

(사)대한국불교조계종 총본산 불광사

경남 창원시 마산 회원구 내서읍 호계리 53-1
Tel 055)232-7819

접 수 매주 월(月)~수(水)요일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
팩스 02)737-0696 또는 이메일 jabi2018@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3, 8214

가 격 ◆가로 4㎝ : 4만원/회 ◆가로 9㎝ : 8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생활 안내

1255호 | A13 | 전면광고

마음을 잘 절제하고 게으름 없이 노력하며
주의 깊은 마음 관찰 수행을 통해 자기 자신을
의지처로 삼는 지혜로운 이는 홍수로도
휩쓸리지 않는 섬을 쌓은 것과 같다.



부처님 말씀 읽기 - 《법구경》에서

관상(손금)
성철사주비법 전수
- 얼굴만 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 송사재판, 암, 질병, 간암, 묘터, 유산낙태 조상영가, 교통사고, 이혼수, 직장 승진운
- 스님, 무속인, 일반인, 철학인
- **출장 개인지도**, 관상학, 손금 명리구성학, 육임학, 성명학

010-4014-8822

범불교조계종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종도모집 및 승려증 발급종단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 찰 행 사 전 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0-9317-6686
「유튜브」에서 **대명스님**을 치세요!
대명 합장(부산)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무형문화재 작법무 연수원
1. 천수바라, 오공양 작법무
2. 다게작법, 운심게 작법무
3. 염불, 사물, 사주 명리, 회심곡

- 특별반 / 개인 3개월 과정 모집
- 사찰등록 및 승려증 발급

사 찰 행 사 전 문
(사)대한문화전통불교조계종
총무 010-5511-7000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점안,살풀이,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011-850-0176

49재,천도재,점안,의식대행
의식은 불교의 꽃입니다.
40년 수행공덕으로
귀 사찰행사를
성취해 드리겠습니다.
49재,천도재,점안의식
(바라,작법무,화청,살풀이,불교무용)
문의 010-3263-6544
010-5530-2388

점안식 49재 천도재
불공 사찰행사 전문
- 범음범패 실전위주교육 바라나비무,법고,화청,풍수, 명리,육효,주역,작명(학인모집)
- 남 · 여 결혼 성사 접수 중

대광명사 (동양불교대학)
031-953-3328
010-8893-8361

전통 사찰 등록 서류대행
◆ ◆ ◆
1.전통 사찰 등록 **서류대행**
2.개인 비영리 **법인 등록**
3.**종교법인 등록**
◆ ◆ ◆
010-9476-9001

★책-검색★
①**천기누설운**(運비밀공개)
②**종교의본질**(비교종교)
③**대박재테크운**(運재테크)
④**천기소설예언자**(삶인도)
⑤**기도와명상**(최상수행법)
⑥**자기계발핵심**(성공기술)

위 책이름검색 / 1권 구입해보세요
문의 010-5105-5000

특수한 비술기도
☎ 02)963-1148 / 011-741-0867
•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74-1 3층
백선사 대주스님 합장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우학스님 상좌 및 예비수행승(행자)모집
이 시대 불교를 리더할 참신한 예비수행승(행자)을 모집합니다
1. 수행 위주의 교육
2. 수계후공부100%(대학, 강원, 기본선원) 교육비전액지원
3. 공부 마친 후 국내도량, 해외도량, 복지시설 등에서 활동 할 수 있음
4. 본인의 희망에 따라 대구큰절, 감포도량 중 선택하여 행자생활함

문의: 054-753-8228, 010-8852-0075

신차 · 외제차 · 중고차
#리턴 포인트로 100% 캐시백 받으세요#
(물건을 사면 100%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❶ 찻값에 10%만 내시고 할부 끝날 때까7지 공짜고 타세요.
❷ 1년 지나면 소멸되는 자동차 보험도 100% 캐시백 받으세요.
❸ 삼성, LG 가전제품도 100% 캐시백 받으세요.
010-9469-1256

단원 정통 명리학
- 교육 : 수시접수 | 초급, 중급, 연구(격국)반 접수 | 1년 과정 — 수강료 : 360만원
- 단원 정통 명리학 : 실증철학 정규과정 수강생 접수 — 단원역리학협회 법인 자격증 제도
- 고자강, 이석영, 고단원, 이병렬 선생의 정통 학문

지현명리연구원 : 역학전문교육처 志晛 : 韓 基子(恩炅)
명리학 / 작명학 / 육효학 / 간지체성론과 육십갑자론(특허)

주 소 서울시 종로구 명륜4가 54-1 3층 웹사이트 cafe.daum.net/3332han cafe.naver.com/3332han
단원역리학협회 010-4470-6314

(종)한국불교조계종지도자연합회
귀의 삼보하옵고, 미래 사회를 밝혀나갈
새로운 종단 〈**한국불교조계종지도자연합회**〉에서
함께 할 종도님들을 모십니다.
입종 서류 및 기타 문의
총무원 – 산청 010-9422-1233
경남종무원 – 창원 010-4582-33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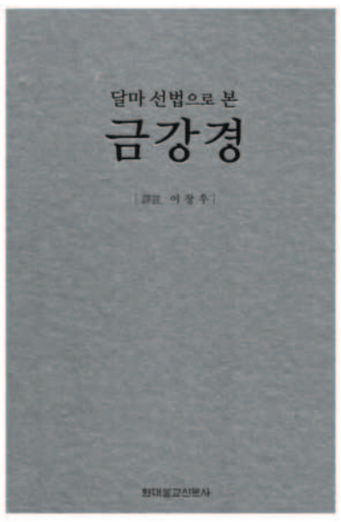
국제 붓다 평화봉사단
국내외 활동 자원 봉사자 환영합니다
지구촌 그늘진 곳곳에서 자비심이 가득한 사랑으로 같이 울고 웃으며 땀 흘려 봉사해온 여성 불자 봉사단 입단의 문이 항상 열려 있습니다.
02-733-5665

부산 도심 산에 있는
조그만 암자입니다.
전반적인 도량을
관리하여 주실
보살님을 찾습니다.
010-2168-2800

불교용품 고가매입전문
법당철거, 퇴불 정성을 다해 모셔드립니다. 소, 대불 탱화, 개금, 석불, 동불, 특수불 취급, 수미단 제작
이조불교재활용센타
010-9177-7842

공양주 보살
모십니다
대구, 70대 이상
010-3524-8930

봉사하는 마음으로
일해주실 신심있는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고양시 북한산 사찰
02-353-5016



깨달음은
공개된 부처를 비밀스레 찾은 신앙이 아니라
밝혀지지않은 자성불을 구현하여
제3의 생명으로 거듭남에 있음으로
남을 따르거나 흉내를 내어서는 안 된다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달마선의 참마음(眞心)으로 금강경을 풀이하다!

이 책은 참마음, 참나, 참자기, 본래면목, 불성, 자성, 진여일심, 한마음을 찾는 달마선법을 바탕으로 금강경을 풀이(주해 및 강의)한 책이다. 저자인 이창우 거사는 조계종 한마음선원장 대행 선사의 재가 제자로서 오랫동안 대행선사의 문하에서 가르침을 받고 마음공부를 한 결과물을 바탕으로 금강경을 오늘의 시대에 맞게 재해석해 냈다. 저자는 "마음을 몰록 놓는 삶은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것 같지만 발 가는 곳에 마음이 머무는 곳에 진리(부처)가 있으므로, 생활을 도량으로 삼으면 살아서는 안내자가 되고 죽으면 구세주가 되므로, '참자기'를 스승으로 삼고 '참마음'을 등불로 삼아야 한다"고 말한다.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개정판!
이창우 역주 | 19,000원
46배판 | 양장 | 573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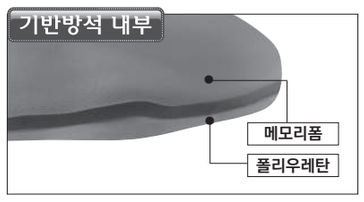
현대불교신문사

■ 구입문의 : 02)2004-8216 ■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세계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cm
세로	32cm
높이(뒷면)	8cm

제품의 특징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주문은 현불샵 TEL 02)2004-8216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좋은인연 대출안내
-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최장30년
- 설정비,감정료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법인,단체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이사장 이강욱 ☎ 010-9842-4200
상 무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수행도우미
미국FDA 등록인증 3009241067



발로해(두한족열양말)
노폐물 독소 쏙 빠지며 발 보들보들. 발냉명 즉시 해소
법당에서 절할 때 꼭 필요해요.



다보명차 (유기농 야생녹차)
최고의 향, 맛, 빛깔, 효능으로 머리 시원, 몸 따뜻
수행 짱! 아랫배 단전에 기운 모여 손발 따뜻!
우수한 제조 비법 100℃ 물에 차잎 생생~ 떫은 맛 NO!



氣 사라따
누구나 누워서 저절로 자동단전호흡 100%
피로회복, 氣모음 확실. 환자에게 최고의 선물



휴 ≈ 힐링베개 스스로 딱 맞게 조절하는 베개
잠이 스르르~ 저절로. 가슴답답, 우울, 수면장애,
어깨뻐근, 손발저림, 목아픔, 결림, 허리 뻐근 완전해결!
이완이 스르르 저절로 와선삼매 100% 체험



보디스킨
발목, 장단지, 허벅지, 엉덩이, 등허리, 목, 뒷골은
3분만 밀어도 氣 통하며 정신이 맑아지고 졸림, 나른,
피로회복 즉시 해소

세계최고! 다보명차, 슈퍼유산균 효소, 호두기름
www.법왕정사.net
010.3487.0035

알기쉬운
구단구궁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40-0863341 저작권등록번호 C-2011-003967
서비스표등록번호 41-0213393

저작권자, 상표권자 법화 종헌(속명 정흥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 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구단구궁법주」로서 자비의 방편학문인「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누가? 몇일?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 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내용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기판(답안지 5분) 작성시에는 과거, 미래 십년도 한눈에 일년 열두달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날짜별, 시간별도 마찬가지이다.)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귀신뽑아 조상천도 연계** ◆교수 이수 후 즉시 영업 활동 가능함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수강료	◆스 님 – 오십만원(책값 별도) ◆일반인 – 일백만원(책값 별도) ◆우체국 : 601401-01-001843(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부산 ❷,❸호선 덕천역 2번 출구 20m

구단구궁법 교실
cafe.daum.net/9dan9gung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198
(구포동 147-3) 3층 전층
전화 010-7415-0803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접 수 매주 월(月)~수(水)요일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
팩스 02)737-0696 또는 이메일 jabi2018@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3, 8214

가 격 ◆가로 5㎝: 5만원/회 ◆가로 7㎝: 7만원/회 ◆가로 10㎝: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정보

1255호 | A14 | 전면광고

부처님을 받들어 섬기며 정성으로 예배하면
얼굴이 단정해지고 음성이 맑고 청아해지며,
부귀하게 되고 좋은 집안에 태어나며 목숨을
마치면 천상에 태어나느니라.



부처님 말씀 읽기 - 《중일아함경》에서

삼보사찰 안내

◎ 위치 : 경북
◎ 대지 : 800평
◎ 법당 : 20평
◎ 요사 : 20평
◎ 가액 : 2억 8천

◎ 위치 : 인천
◎ 대지 : 101평
◎ 법당 : 34평
◎ 요사 : 34평
◎ 가액 : 12억

◎ 위치 : 부산
◎ 대지 : 196평
◎ 법당 : 30평
◎ 요사 : 35평
◎ 가액 : 6억 8천

❖ 오랜 전통 믿음과 신용으로 스님들의 가람을 일심으로 정진 불사하오며 만남의 장으로 환영합니다.
❖ 사찰, 포교원을 찾는 스님이 많이 이용하시여 뜻을 이루시고 나날이 발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절대 비밀보장 ●
전국사찰 급히 구합니다.

문의전화 010-6722-2211

포교원안내

●위치 : 서울시 은평구 진관동 대서문길 34 수원빌딩 2층 은혜사
●총 평수 60평 ●최상의 위치. 북한산 입구
●전세 보증금 3억 / 시설비 1억 5천

연락처 010-5384-6063
신도회장 010-2763-2767

사찰안내

●위치 :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부지 : 1648평(대지 927평)
●대웅전(25평). 지장전(15평). 독성각(5평). 목조건물
●요사채 : 조립식 건물 25평. 황토방 7평. 5평
●납골당 5000개 가능
●가액 : 12억 5천만원

010-5421-1536

사찰안내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용문산 자연휴양림 초입 소재(양평역 5분거리)
●대지 : 300평 현대식 건물
●건물 : 대웅전 30평 1동 / 카페, 공양간 30평 / 요사채 23평 2층 건물 1동 종무소, 객방 13평 1동
●가액 : 10억(답사 후 인연되는 분 절충)
●법회 즉시 가능합니다.

010-4813-2381

광진불사

◎ 위치 : 서울시
◎ 대지 : 1000평
◎ 법당 : 50평 외
◎ 요사 : 70평
◎ 매가 : 방문시 상담

◎ 위치 : 충남
◎ 부지 : 300평
◎ 법당 : 40평
◎ 요사 : 60평
◎ 매가 : 6억 5천만원 정

* 40년 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 상담 받습니다.
* 전국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합니다.
* 신행상담, 사찰순례, 골동품, 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광진불사 010-4586-4525

사찰안내

●위치 : 북한산(삼각산) 자락에 위치한 절임
●건물 : 법당, 산신각 ●평수 : 470평
●가액 : 6억 ●조건 : 양도시 모든 기물 포함(불상,불화등기타) ●주변 주차 시설 양호함 ●도시가스, 상수도임
●대중교통 편리함(도보로 5분 거리임)
●위치는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 쪽

010-3128-2399

사찰안내

●위치 : 경기 파주 지역
●대지 : 90평
●건평 : 1층 70평. 요사 2층 30평. 법당
●주차편리. 공기최상
●가액 : 4억 7천만원

010-4012-5500

사찰안내

●위치 : 광주광역시 광산구 운남동 326번지
●삼성아파트 후문/우방아파트/남양아파트 옆 도로 접
●재개발 지역. 전 162평. 옛날 단독주택 건물 약 80평. 단층 상가식. 전포 3칸
●창고 겸 생활하며 사주 철학 영업할 수 있음
●가액 : 7억 5천

주인직 010-8666-6210

전국사찰안내

●사찰 / 사찰터 / 암자 / 포교당 수익성 부동산 거래하실 분
●[30년] 전문 경험으로 연결하겠습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편안하게 연락주십시오.
●보물불감(작은 법당. 3존불 조각) 30년전 천만원 매입. 개인사정 급하여 파격으로 거래(상담환영). 원통지름 12㎝×높이 25㎝

불자공인중개 공신공인중개사

010-3382-0555

토굴임대안내

●위치 : 경기도 양평군 강남로 (남한강변)
●건물 : 약 50평(법당. 큰방. 거실. 중간방2. 주차공간 넓음)
●주변 환경이 매우 좋음
●즉시 법회 가능

010-3188-0511

사찰안내

●위치 : 경남 창원시 마산 진전면 오서리
●법당 : 38평 ●요사 : 65평
●대지 : 1천평 ●임야 : 4천평
●가액 : 12억(대출 2억 5천)

010-4547-4990

수행관(기도처)안내

●위치 : 김천시 지례면 거물길 379-21
●아주 조용한 산사. 면소재지. 도보 가능함
●수행자(기도인) 딱 맞는 수행관 안내합니다.
●원룸. 투룸. 쓰리룸. 한옥독채가 있습니다.
●금액은 보신 후 결정하시면 됩니다.
●전 · 월세 가능

010-5882-2452
010-5807-2452

포교당안내

●위치 : 경북 포항 냄구
●2층 상가 60평
●거주가능
●삼존불, 탱화 시설완비
●다량주차 가능
●몸만 오시면 법회가능
●가액 : 1억 2천만원

010-2857- 2811

일본포교당(급)안내

●위치 : 오사카 쯔루하시와 조선 이찌방 사이. 재래시장 입구. 대각사 포교당
●무속인, 신명제자, 법사 운행하는 자리로써 위치 최고 좋음.
●한국사찰 운영 관계로 급히 안내합니다.
●꼭 하실 분만 연락 바랍니다.

010-3545-5060
080-5358-5060
070-8836-5060

사찰안내

●위치 : 경남 진주시 혁신도시에서 10분 거리
●대지 : 360평 ●사용 가능 부지는 약 500평(하천 부지 포함)
●법당. 삼성각. 약사여래. 3층 탑. 석탑 요사채 2개. 창고 3개. 주차시설 완비
●몸만 오시면 즉시 법회 가능
●가액 : 4억

010-4583-4895

포교원안내

●위치 : 포항시 남구. 4층 건물 내 2층(45평). 시설 특A급
●법당 : 칠보 삼존불(석가, 관음, 지장) 천수천안. 신중단. 영단. 수미단 3단
●소불 : 550불. 법당, 요사, 공양간, 창고
●촛대, 향로, 불기, 다기(전체 방자) 등 320개
●보증금 1,000만원 / 월 35만원
●시설비 : 4,000만원

010-8424-0042

사찰안내

●위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대지 : 355평
●대웅전, 삼존불, 목불, 목후불탱화, 목조단청 12평
●요사채, 방3개, 목조단청 19평
●공양간, 방1개, 7평 목조단청
●화장실(남,여), 목조단청
●가액 : 상담 후 결정

010-3206-6622

사찰(급)안내

●위치 :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만수소방서 건너편)
●평수 : 단독건물. 지하 1층. 지상 3층. 건평 120평
●건물 : 지하 1층 - 창고형 / 1층 - 공양간(큰방 2개, 대형주방, 화장실) 2층 - 방 3개. 화장실 / 3층 - 법당 3존불. 지장불상. 칠성. 산신
●옥상 : 소각장 설치. 다용도로 사용
●답사하실 분만 연락요망(사찰연력 40여년)
●가액 : 3억 3천 5백만원(인연있는 분 절충가능)

010-8360-8259

포교원안내

●위치 : 부산 구포1동 신협과 농협 중간. 도시농업지원센터 앞
●건물 : 60평. 2층 단독 상가. 도심 속 청정기도 수행도량
●법당 : 삼존불. 칠성. 산신. 용왕. 소불 200불. 좌대법고
●방사 : 친견실. 객실. 편백황토방. 냉온방 시설
●시설 : 대형 주차시설 및 건물 내외 보안시설
●교통 : 지하철/버스 3분. 열차 5분. 공항 10분 거리
●가액 : 전세(보)2천 (월)30만 - 광열비 포함 (시)3청 8백 - 조정가능
●현 법회 중. 스님 건강 관계로 급양도

영상 확인 후 답사 010-4608-2568

포교당안내

●위치 : 서울 구로4동 남구로역 5번 출구 5분 거리. 시장 2분 거리
●3층 건물 중 2층 전체
●법당. 공양간. 상담실. 주지실. 실내 화장실
●약 35평 단독 계단 사용. 시설 완벽함
●가액 : 보증금 1천 / 월 1백만원
●시설 및 집기일체 : 1천만원
●몸만 오시면 됩니다.

010-4413-4268

(급)사찰안내

●위치 : 전남 해남읍에서 5분거리
●사찰도량 총 1,450평. 법당 20평 목조
●관음전, 종각, 공양간, 차실, 요사채
●방이 총 9개. 창고. 외부 화장실. 대형주차장 등
●가액 : 총 2억 5천만원

010-4628-5699

포교당안내

●위치 : 충남 공주 계룡
●평수 : 약 30평. 큰방. 거실. 중간방 2개. 마당. 기름보일러
●독채 전세. 위치 좋음
●가액 : 3500만원

010-3293-1705

포교원안내

●위치 :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미주상가 건너편
●마당 22평. 법당 및 사무실 40평. 요사채 18평
●청량리역 도보 3분거리. 교통요지. 1호선, 중앙선, 버스정류장 앞. 옥상사용 가능
●주차장 및 제반시설 완비
●가액 : 시설비 1,900만원
●보증금 1,000만원 / 월세 99만원

02-957-0824
010-7409-0490

포교당안내

●위치 : 경기도 안산시 고잔동 530-3 진양빌딩 2층 201호. 4층 건물
●시설 : 특A급(관음사)
●안산 중앙역 도보 5분 거리(롯데백화점 신관 맞은편)
●법당 : 석가. 관세음. 약사불(청동불). 소불관세음 100불(청동불)
●법당평수 : 약50평. 방2. 창고1. 주방1
●보증금 1천만원/월세 60만원
●권리금 : 1억원

010-4955-5026

포교원안내

●위치 : 충남 공주시 IC 옆
●부처님 법당. 삼성각
●비구. 비구니. 거사. 보살 최고 기도도량
●보증금 200만원 / 월 15만원
●시설비 1500만원
●몸만 오시면 즉시 법회 가능

010-3008-1269

포교원(급)안내

●위치 : 서울 강북 수유역 5분(주변 재래시장)
●64평(층전체). 도심 포교 최고입지(재기도 많음)
●3000만원/월 150만(주변 시세보다 저렴)
●시설비 4천 9백 소요(급 지방 이전으로 먼저 계약 하신 분께 7백만에 무조건 양도)
●도봉산, 삼각산 조망권 최고
●주차 및 시설 완벽. 직접 오셔서 확인하세요.

02-6053-9797

포교당안내

●위치 : 창원시 진해구
●2층. 40평. 방2개. 공양간. 화장실 창고. 베란다. 시설완벽함
●보증금 500 / 월세 50만원 / 시설비 2500만원
●몸만 오시면 법회할 수 있음. 금액 조정가능

010-9395-6675

사찰안내

●위치 : 군산시 옥산면
●대지 : 420평
●건물 : 법당 20평. 요사채 40평
●부속건물 : 삼성각. 관음전
●석가모니. 아미타불. 미륵석불
●녹차밭 300평
●가액 : 1억 8천

010-3906-3711

사찰(급)안내

●위치 : 창원역 15분. 마금산 온천 5분 거리. 신도시 개발지 인접 ●대웅전(단청완료). 삼성각. 주지상담실(황토방). 요사채. 공양간. 대형 저온창고 대형창고 2개. 차고. 주차장 500평 ●총면적 : 6,200평
●사찰 총 불사비용 35억 투자함
●가액 : 13억(대출금 5억 포함) ●계약 시 5억 주시면 등기부등본 넘겨줌. 나머지 3억은 5년간 연차적으로 불사금으로 완납 가능
●신도시 개발로 4차선 도로 공사 중

010-9647-0723

사찰안내

●위치 : 전주 중심지 한옥마을 인근
●이성계 태조대왕 천년 영험 기도터
●법당. 요사채. 극락전(최근2년신축)
●토지 : 총 약 500평. 국유지 1만평 무상 사용
●천년기도 용궁 약수터. 대나무 숲 울창 편백나무 3천그루(풍수명당 길지)
●석불 1억 5천만원 설치함
●가액 : 5억(대출 2억포함). 전세 2억 가능함
●계약 시 2억 받고 등기이전 해드림 잔금 1억(3년 간 불사하셔서 분할 납부)
●땅값만 받고 급매(5층 신축 가능 토지)

010-9647-0723

사찰(급)안내

●위치 : 경주시 시래동. 정남향
●대지 194평. 건평 43평
●법당. 칠성. 산신. 용왕. 나반. 방 친견실. 공양간. 샤워실. 화장실
●외부시설 : 용왕연못. 탑. 남여화장실 등
●시설일체. 최고입지요건 갖춘 암자
●가액 : 2억 3천만원(급양도)
●사전 전화요망

010-5427-3699

◑ 입종안내 ◐

입종 및 사찰 등록(제출서류)

① 주민등록등본 1통, 호적등본 1통
② 승적원부(본종 소정양식 : 총무부 비치)
③ 승적증빙서류(타 종단 승려는 승려증 사본)
④ 사찰 전경, 내 • 외부 사진 각 1부
⑤ 반 명함 사진 5매(대가사를 수한 사진)

참고사항

① 각종 구비서류는 최근 3개월 내 발행된 것으로 제출
② 제출된 서류는 반환치 않음

불교조계종대학림 02)511-1080

불교조계종(총무원) Tel 02)511-2026~7 | Fax 02)511-2028

친환경 삼베타올선물 SET

소중한 분께 마음을 전하세요~

삼베타올은 강원도에서 재배한 마의 속줄기를 삼베틀로 만들어 선조들의 지혜와 멋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곰팡이를 억제하는 항균성과 항독성이 있는 순수 천연 삼베(햄프)사와 죽사(대나무에 추출한 원사)를 합사하여 제조된 순식물성 제품입니다.



수분을 빨리 흡수, 배출하고 자외선을 차단해주어 피부 자극이 없으며 피부의 노폐물 제거와 혈액순환 촉진으로 곱고 탄력 있는 피부로 바꾸어 드리는 환경친화적 제품입니다.

샤워타올, 세안타올, 수세미
3종 세트
27,000원 (배송비 포함)

법회, 환갑, 돌잔치, 칠순 명절 등 각종 행사용 선물로 아주 좋습니다!

현대불교 현불샵 T.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 건포, 습포 마사지 특징

10분 정도 마른 수건 또는 젖은 수건으로 손발 끝에서부터 심장 쪽으로, 배꼽을 중심으로 둥글게 피부를 마사지합니다. 외출 후 샤워 전 워밍업으로 건포마사지를 해주면 몸의 신진대사가 왕성해지고 혈액순환이 활발해져 체내에 독소가 쌓이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피부 보호 및 면역력 향상에도 좋고, 감기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삼베샤워타올 (건포마사지)
* 혈액순환 및 피부 신진대사를 좋게 합니다.
* 피부의 더러움과 묵은 각질을 제거해 줍니다.
* 지치고 활력 없는 피부에 탄력과 윤기를 부여 합니다.
* 피지분비가 줄어드는 피부에 피지선의 기능을 활발히 해줍니다.
* 환자목욕용으로 사용해도 좋습니다.

값 15,000원

■ 삼베세안타올
* 삼베세안타올을 물에 적신 후 얼굴전체를 마사지 하듯 닦아줍니다.
* 특히 코 주변을 닦아주면 피지가 제거됩니다.
* 삼베세안타올을 물에 헹군 후 닦아줍니다.

값 6,000원



■ 삼베수세미
* 세제없이 식기세척이 가능합니다.
* 항균, 항독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 과일세척에도 세제없이 세척이 가능합니다.

값 4,000원



3일만에 깨치는 야포선 - 5권 묶음판매에 동참해주신 독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묶음판매를 종료합니다.
본 광고 이후 〈불서총판 운주사〉에서 전국서점에 공급합니다.



깨달음의 시작에서 완성까지
3일만에 깨치는 야포선
석호 지음
218쪽
값 12,000원

깨닫기 위한 3일의 실천과
그 뒤의 삶을 빛나게 하는 지침



금강경이 소설로 - 금강경 장편소설
하늘다이아몬드
석호 지음
292쪽
값 13,000원

물질만능시대 - 물질을 버리지 않으면서 동시에, 황폐해지지 않고 마음의 평화를 이루는 메시지

○ 매순간이 기적이다. 이 사실을 사무쳐 느끼는 자. 나는 그를 깨달은 이 - 붓다라고 부른다. <석호>

보급처 : 불서총판 **운주사** ☎ 02) 3672-7181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집에서 따는 '승려자격증'에 공분

日불교계, '재가승려 통신교육' 광고 강력 비판

박영빈 객원기자

출가자 감소문제가 심각하게 논의되고 있는 일본불교계. 출가자를 모집하기 위한 다양한 방식이 모색되는 가운데, 통신교육으로 '승려자격증'을 발급한다는 광고가 신문에 게재돼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광고는 불교계 SNS를 통해 퍼지면서 강한 비판을 받고 있다.

문제의 광고는 일본에서 통신교육으로 유명한 모 사단법인 산하의 교육프로그램이다. 광고는 "마음이 중요시되는 시대의 새로운 자격"이라는 문구가 담겼으며, '재가승려(在家僧侶)'를 양성하는 통신강좌로 게재됐다. 광고 내용에는 "재가승려란 사찰로 출가하거나 삭발을 하지 않은 채로, 평소와 같이 가족들과 자택에서 생활하며 승적을 갖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교육내용에 대해서는 "현역 주지스님이 근본불교에 기초한 불교의 시작부터 깊은 핵심까지 친절한 불교강좌로 교육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수강생들은 실제 수행으로 참선과 사경, 독경 등의 수행법을 각자에 맞게 선택해서 배우게 된다. 교육을 모두 이수한 수강생 중 희망자에게 법명, 도호(道號, 한국의 건당에 해당), 법계를 취득할 수 있으며 "재가승려로서 사람들을 이끌고 사회에 공헌할 수 있다"고 광고하고 있다.

'재가승려'가 된 한 수강생은 수강후기에 "불교의 깊은 뜻을 배우고서 매일이 충실해졌다. 이웃에게 법문을 하거나 상담을 해주는 등 승려로서의 소중함을 느끼고 있다"며 실제 출가자로서의 활동을 하고 있음을 밝혔다. 또 다른 수강생은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 없는 삶 속에서 '재가승려'의 길을 만났다. 덕분에 새로운 삶이 펼쳐졌다"고 후기를 남겼다.

통신교육으로 유명한 법인서
'재가승려' 교육프로그램 광고
교육자 종단 · 이름 등 안 밝혀
출 · 재가자 모두 회의적 반응



일본 신문에 게재된 '재가승려자격' 광고. 사진출처=페이스북

이에 불교계의 반응도 뜨거웠다. 자신의 페이스북에 해당 광고사진을 올린 한 스님은 "재가자로서 얼마든지 불교를 배우고, 활동할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구태여 '재가승려'라는 말을 사용한 의미를 알 수 없다. 교육을 진행한다는 주지스님의 종단이나 사찰, 이름도 밝히지 않고서 무슨 신뢰가 가겠는가?"라며 의문을 나타냈다.

또 다른 스님은 "20여 년 전 학인으로 수행할 때 봤던 광고가 부활했다"며 오래전에도 동일한 사건이 있었다고 전했다. 스님은 "당시엔 교육을 담당하는 사찰과 주지스님의 사진이 함께 실려서 광고가 됐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광고가 당시 불교계의 노력으로 사라졌으나 최근 평생교육과 통신교육이 인기를 끌면서 다시 부활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일반 재가자들 사이에서도 기가 막힌다는 반응이 쏟아졌다. 한 불자는 "포교사 자격 등은 각 종파에서 공인발급하고 있지만, 이 승려자격은 대체 어디에서 나오는지 알 수가 없다. 재가자는 재가자, 출가자는 출가자로 충분하다"고 견해를 밝혔다.

의문을 풀고자 직접 해당단체에 무료상담을 받아봤다는 한 불자는 "일시불로 교육비를 낼 경우 6만2000엔(한화 약 67만원)이라고 한다. 한 사람의 출가자가 되는데 참 저렴한 비용"이라며 "교육을 마친 후 수료증을 받고, 소위 '승적증명서'를 자택우편으로 받고선 스스로를 승려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겠는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다.

불교계에서 강한 비판이 쏟아지는 가운데, 해당 통신교육을 진행하는 단체에서는 별다른 대응을 하고 있지 않다. 단 과거에 동일한 사건이 있었던 만큼, 불교계의 대응에 따라 광고가 철회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요크 대성당 선 수행교육 잠정 중단

수년 전부터 기독교 복음주의자 항의 빗발쳐

영국 잉글랜드 노스요크셔 자치주 요크(York)에 위치한 영국국교회 성당 '요크 대성당(York Minster)'에서 5년 가까이 진행되던 선 수행교육이 결국 중단을 맞았다. 7월 16일 영국 '더 가디언'은 기독교 복음주의자들의 항의 끝에 선 수행교육이 중단된 요크 대성당 소식을 전했다.

요크 대성당의 선 수행교육은 매주 금요일 90분간 좌선을 중심으로, 대성당 도서관 건물에서 진행돼왔다. 교육은 요크 대성당 참사회 전 의장이었던 크리스토퍼 콜링우드(Christopher Collingwood) 신부가 이끌고 있다.

콜링우드 신부는 스스로 '이중 종교인'이라고 말하며 스스로 좌선수행과 교육을 이어왔다. 이를 통해 "좌선의 실천은 그리스도인을 더 깊은 영성으로 이끌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해당 내용을 담은 저서 '그리스도인을 위한 선의 지혜'를 출판, 대성당의 도서부에서 판매하고 있다.

그러나 3년 전부터 기독교 복음주의자들의 항의가 강하게 대두됐다. 복음주의자들은 "불교와 그리스도교는 양립할 수 없으며, (불교의) 명상수행을 허용한 대성당을 이해할 수 없다"고 공격했다. 영국국교회총회 회원인 안드레아 윌리엄스 신부는 "불교와 그리스도교의 혼합은 '기만적인 시도'이며, 예수 그리스도께 불명예스러운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러한 시도가 영국에서 가장 잘 알려진 성당 중 하나에서 일어난 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라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결국 요크 대성당은 오는 가을부터 일체의 선 수행교육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선 수행교육을 최초로 허가했던 전 요크 대성당 주임사제 비비안 폴 신부는 "(복음주의자들의 비판처럼) 이 교육은 새로운 종단이나 종교가 아니다. 만약 그런 시도가 있었다면 대성당에서의 수업을 허가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대성당의 결정에 실망을 표했다. 한편 교육을 이끄는 콜링우드 신부는 "교육은 잠정적인 중단일 뿐이다.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알고 새로운 장소를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우인 객원기자

400년 만에 공개되는 관음정토

日교토 천년고찰 닌나지 관음당 특별공개에 나서

일본 교토의 천년고찰이자 진언종 대본산으로 유명한 닌나지(仁和寺)에서 약 400년 만에 관음당을 공개한다. 불교미술의 보고로 불리는 관음당 특별공개를 '산케이 뉴스' '교토신문' 등 현지 언론이 특별 보도했다.

888년 창건된 닌나지는 진언종 오무로파(御室派)의 총본산이다. 100여 년 전까지는 일본의 황족이 출가해 주지를 맡았던 사찰로, 일본불교미술에서 중요한 작품과 건축물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

이번에 공개되는 닌나지 관음당은 사찰이 창건되고 약 40년 뒤 처음 세워졌다. 이후 몇 차례의 소실을 겪고, 1640년에 현재의 모습으로 재건됐다. 본존으로는 11면 천수천안관세음보살, 협시로 부동명왕과 항삼세명왕상이 모셔져 있으며, 삼존불의 주변으로 28부중 등의 신장을 모셔 총 33구의 불상이 법당에 봉안돼 있다. 또 관음당 내부 사방에는 33응신도와 관세음보살구난, 육도윤회도 등의 벽화가 극채색으로 화려하게 그려져 중세 불교미술의 보고로 불리고 있다.


약 400년 만에 온전한 모습으로 공개되는 닌나지 관음당. 사진출처=엑사이트 재팬

이러한 관음당의 예술성은 일본 내에서도 손에 꼽힌다. 지난해 초 도쿄국립박물관에서 열린 닌나지 특별전에선 관음당의 불단을 1대1로 재현해 전시했다. 당시 관음당이 재현됐다는 뉴스에 약 20만 명의 사람들이 전시회에 몰렸다.

닌나지는 2012년부터 6년에 걸쳐 관음당의 해체수리를 진행, 이를 기념해 7월 17일부터 9월 1일까지 특별공개에 나섰다. 관음당은 현재 수행도량으로 사용돼 일반인들의 출입이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다.

관음당은 지난 5월 수리종료를 기념해 한 차례 공개됐지만, 당시에는 불단이 모셔진 일부 불상의 수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였다. 하지만 이번 공개는 373년 만에 33구의 불상들이 모두 모인 상태로 공개된다는 점에서 기대를 모은다.

닌나지의 종무 총 집행을 맡는 요시다 세이유 스님은 "재건 당시의 기와와 목재를 최대한 살려 복원했다. 수행도량으로 쉽게 올 수 없는 곳인 만큼, 많은 분들이 관세음보살의 공덕과 직접 맞닿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이번 공개의 의의를 전했다.

또 닌나지로 이어지는 전차를 운영하는 라이덴 전차도 특별공개를 기념한 '관음전차'를 운행하기 시작했다. 관음전차는 천장에서 관음당의 본존인 11면 천수천안관세음보살의 손이 뻗어져 내려오는 장식으로 인터넷에서 화제를 끌고 있다.

닌나지 측은 관음당 공개와 함께 금당, 대장경이 모셔진 경장(經藏) 내부도 특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금당은 옛 교토어소(御所)의 정전이었던 자진전(紫宸殿)을 이축해 세운 것으로 유명하다. 많은 불자와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닌나지로 이어지는 가운데, 교토의 여름이 관세음보살로 뜨겁다. 박영빈 객원기자


훼불된 채 도로에 버려진 불상. 사진출처=네팔24시

네팔 지방도시서 훼불사건 발생

룸비니 인근 지역, 불상 5구 파괴돼 버려져

부처님이 탄생한 네팔의 지방도시에서 훼불사건이 발생했다. 특히 탄생성지인 룸비니와 가까운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이란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다. 7월 19일 '네팔리 산사르' '더 히말라얀 타임즈' '네팔 24시' 등의 현지 언론들은 이 소식을 대서특필했다.

사건은 네팔 남부 틸롯타마(Tilottama)시에서 일어났다. 탄생성지인 룸비니와는 40㎞정도 떨어진 소도시다. 파괴된 불상들은 도시를 가로지르는 4차선 도로의 화단에서 발견됐다. 불상들은 시멘트와 석회암을 혼합한 소재로 조성한 석가모니불상으로 모두 개금까지 마친 불상이었다. 경찰 조사결과 불상들은 4개월 전 틸롯타마시에서 네팔의 신년을 기념해 사회적, 종교적 화합의 뜻을 담아 조성한 22개의 불상 중 일부로 밝혀졌다.

틸롯타마시 경찰은 "7월 17일 심야를 틈타 정체를 알 수 없는 괴한들이 불상을 파괴한 것으로 생각된다. 원래 길의 좌우에 있던 불상을 파괴하고, 이를 감추기 위해 길 가운데 화단에 은닉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CCTV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 있던 불상들만 파괴된 것으로 보아, 다분히 고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파괴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전했다. 현재 틸롯타마시는 6인의 전문 수사관을 중심으로 대책반을 구성했다. 조우인 객원기자





마음을 다스리는 12가지 명상

강명희

〈12〉 11문–수식관

들숨 · 날숨으로 몸 상태 읽는다



수식관은 한자로 하면 셈 수(數), 숨 쉴 식(息), 관찰할 관(觀)을 씁니다. 뒤로 갈수록 중요해요. 수보다는 식이, 식보다는 관이 중요하지요. 관찰은 우리 마음을 두루 살펴보는 것이거든요. 숨을 쉴 때 들어오는 숨이 있고 나오는 숨이 있어요. 이 들숨과 날숨을 잘 관찰하는 게 수식관입니다. 숨이 들어오는 것은 산스크리트어로 '아나' 입니다. 숨이 나가는 것은 '빠나' 라고 해요. 합쳐서 '아나빠나' 라고 하지요. 그냥 숨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것만 계속 관찰하면 끝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왜 숫자를 붙이냐면, 관찰이 쉽지 않아서입니다. 잘 안 되니까 잘되게 하는 방법이 뭘까 궁리하다가 숨에 숫자를 붙였더니 잘 되었답니다. 들어오는 숨에 하나, 나가는 숨에 둘 이렇게 수를 붙이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놓치지 않고 잘 관찰했어요. 그래서 숨의 숫자를 세는 수식관이 발달했지요. 사실 수식관은 숨만 관찰하면 됩니다.

옛날에 부처님이 숨 관찰하는 방법에 대해 설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쉬워요. "들어오는 숨을 알고 나가는 숨을 알고, 숨이 들어왔는데 짧으면 짧다는 걸 알고, 길면 길다는 걸 알고, 숨이 돌면 도는 걸 알고, 숨이 막히면 막힘을 아는 것이다." 별거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지혜가 트이지요.

보통 숨을 잘 쉬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숨을 잘 쉬고 있지는 않아요. 숨을 마셨다가 내쉴 때는 숨이 모세혈관 끝까지 다 퍼져야 합니다. 몸이 막혀 있으면 숨이 안 퍼져요. 수술한 환자들이 숨 마시고 내쉬면서 관찰하면 어디가 막혀 있는지 알게 됩니다. 수술하면서 연결 고리들을 다 끊어놨기 때문에 막힌 게 느껴져요. 그럼 그것만 따라가세요. '숨을 잘 따라가겠다.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숨 마음대로 하겠다.' 이렇게 결심하세요.

숨의 숫자를 잘 세고, 숨을 잘 따라가는 것, 이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이것만 잘하면 수식관이 뭔지는 알 수 있어요. 숨 쉬는 방법은 가슴으로 쉬는 흉식호흡, 배로 쉬는 복식호흡이 있습니다. 복식이 태초부터 인간의 호흡법이지요. 뱃속에 있을 때 배로 숨을 쉬라고 엄마가 가르쳐줍니다. 애기들은 복식호흡을 하는데, 크면 이게 잘 안 됩니다. 안 좋은 음식 먹고 폭식하고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자는 시간 불규칙하면 스트레스가 위로 올라와서 흉식호흡을 합니다. 복식호흡을 통해서 수식관을 하면 건강이 좋아지면서 마음을 보는 데도 유리해요.

자, 앉는 자세부터 하겠습니다. 여자는 오른쪽 다리 올려놓고, 남자는 왼쪽 다리 올려놓습니다. 발은 다리 사이에 끼우세요. 허리가 똑바로 섰는지 확인하고, 어깨 긴장 풀고 턱을 살짝 당기고 눈을 감습니다. 팔은 편한 자세로 내려뜨리세요.

숨 마시고 내쉬는 데 집중하면 금방 알아요. 숨이 들어오면서 바깥의 것들이 들어오거든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숨이 들어오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숨을 5분만 안 쉬어도 죽습니다. 들어왔던 것들은 또 다 나가요. 수식관의 경지는 사실 엄청납니다. 현자들은 숨을 몇 번만 쉬어도 금방 알아요. '들어왔던 건 다 나가는구나. 숨만 나가는 게 아니라 인연들도 맺었다가 풀어지는구나. 내 것이라 생각한 건 다 네 것에서 왔구나.'

호흡마다 숫자 붙여 되뇌며
산소흡입량 점차 늘려나가면
몸에 일어나는 느낌 느껴져
일상생활서 많은 도움 얻는다

몸을 관찰해보면 몸을 잡고 있는 마음, 억울한 마음, 지나치게 고생했던 마음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 마음들을 잘 관찰하면 지혜가 떠서 녹아 버려요. 호흡만 잘해도 녹아요. 숨이 들어왔다가 나갈 때 숫자 하나를 세면 숨이 하자는 대로 할 수 있는데, 숨을 놓치면 딴 생각을 해서 업식을 따라갑니다. 업식 속으로 들어가면 업식이 사라지는데, 업식 속으로 안 들어가고 업식이 작용하는 대로 놔두면 본연의 마음이 열릴 수 있는 기회를 다 놓칩니다. 업식의 마음을 키워 놓으면, 그 인식층이 늘 '이렇게 사는 게 맞아' 하고 시킵니다.

케이크를 먹고 나서 그냥 뒀더니 개미들이 바글바글 몰려들어요. 나중에 보니까 개미가 없어요. 케이크 속에 들어갔다가 거기 박혀서 죽었어요. 우리가 욕망 때문에 그러고 살아갑니다. 욕망에 빠져서 죽을 데를 찾아가요. 욕망을 키우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잘하고 있다고 잘난 척합니다. 무지 덩어리라서 그렇지요. 어차피 욕망 속에서 살아가지만, 거기 빠져서 죽지는 말아야지요. 욕망이 제거되어야 욕망과 나, 몸과 내가 분리됩니다.

지금 하는 수식관은 복식호흡을 익혀서 마음과 통하는 사띠 기법으로 업장을 소멸하는 것입니다. 숨을 따라가면서 관찰하세요. 딴 생각이 들 때마다 빨리 알아차리고 다시 숨으로 돌아와야지요. 배가 많이 나오는 것이 기본입니다. 처음에는 의도적으로 배를 많이 부풀리는 게 좋아요. 배의 용량을 키워야 하니까요. 배가 나오게 계속 숨 쉬다 보면 근육이 이완되고 퍼지면서 숨이 많이 들어가요. 계속 연습하세요.

숨에 숫자를 붙이면서 숨 쉬다 보면 집중이 잘 됩니다. 숨 마쉬고 내쉬고 하나, 숨 시고 내쉬고 둘 이렇게 숫자를 붙입니다. 그게 잘 안 되면 숨을 마시면서 하나, 내쉬면서 둘, 마시면서 셋, 내쉬면서 넷 이렇게 해도 됩니다. 원래 들숨과 날숨을 한 세트로 셉니다. 순산수로 하다가 자꾸 놓치면 다른 방법으로 할 수도 있어요. 산수 수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역산수 수식관은 들숨과 날숨 끝에 숫자를 거꾸로 붙여요. 숨 마시고 내쉬고 10, 숨 마시고 내쉬고 9 이런 식입니다. 뺄산수도 있습니다. 들숨과 날숨에 10, 8 이렇게 하지요. 들숨과 날숨에 2, 4, 6 이렇게 곱산수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잘되면 승진산수를 해도 됩니다. 승진산수는 숨 마시고 내쉬고 숨 마시고 내쉬고 두 번에 숫자 하나를 붙입니다. 잘되면 세 번에 숫자를 붙이고 열 번에 숫자를 붙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만, 십만까지 숫자를 안 놓쳤을 때 숫자를 버립니다. 숨의 숫자를 세는 수식관을 하려면 얼마나 집중해야 하는지 알겠지요? 집중이 안 되면 수행이 안 되거든요. 자, 숫자를 세면서 50까지 해보겠습니다.

수행하면 욕망부터 떨어져 나갑니다. 특히 탐욕 같은 게 제거되지요. 욕망 중에서 탐욕은 지나친 거니까. 변화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 데가 손발입니다. 손발이 실행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변화가 많이 나타나요. 고관절, 천골,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에도 변화가 많아요. 마음은 색수상행식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색은 물질계입니다. 물질계가 배꼽 밑을 관장하기 때문에 욕망을 집지하는 라인이 대부분 밑에 있어서 하단전, 배꼽 밑이 반응해요. 그 다음엔 감정라인인데, 감정은 대부분 장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몸통, 배꼽 윗부분에 장기가 있어요.

숨의 숫자를 세는 수식관을 한 다음에는 숨을 따라가는 수식관을 합니다. 원래 숨을 잘 따라가기 위해서 숨의 숫자를 세는 수식관을 하지요. 따를 수자 수식관은 들숨과 날숨으로 하는 입출식관입니다. 입출식을 따라가면서 신수심법 4념처에 집중하지요. 몸의 현상을 따라가면서 입출식하는 신념처, 몸의 느낌이나 감각을 관찰하면서 입출식하는 수념처,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군상들인 아뢰야식을 알아차리면서 입출식하는 심념처, 대상과 부딪혔을 때 일어나는 강한 생각과 관념에 집중하면서 입출식하는 법념처를 통해 몸과 마음, 개념에 호흡을 결합하는 명상법입니다.

사실 수식관은 몸의 느낌이 일어나는 곳을 관찰하면서 입출식하는 게 중요해요. 5관으로 수식관을 할 때는 눈 쪽으로, 귀 쪽으로, 코 쪽으로, 몸 쪽으로 날숨을 내보냅니다. 잘 안 되면 몸으로 복식호흡을 하고 내쉴 때는 반응이 있는 곳으로 내보냅니다. 원래 느낌이 있었던 곳, 아니면 느낌이 드러나는 곳으로 내쉬는 것이지요. 나중에는 거기를 보면서 마시고 내쉬어도 됩니다. 그것이 수식관의 핵심적인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장기를 따라서 입출식합니다. 간장, 심장, 위장, 폐장, 신장 순서대로 하든지 반응하는 순서대로 하세요. 눈은 모든 장기와 관련이 있지만, 제일 밀접한 곳은 간입니다. 코는 폐, 귀는 신장, 입은 비장과 위장, 혀는 심장과 직결되어 있어요. 입이 위장과 심장을 맞잡고 있기 때문에 입은 관찰하기가 비교적 쉽습니다. 눈으로 보면서 위장이 더 반응하는 사람도 있어요. 보면서 먹는 것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은 위장이 반응합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눈을 관찰하면 간이 같이 좋아집니다.

마음이 여러 가지를 통과해서 나오는데, 심폐와 관련된 마음이 목에 있는 경추에 많이 쌓여 있습니다. 물질과 관련되어 심장의 감정과 폐의 관념이 충돌하는 것은 천골에 많이 담겨 있어요. 심폐가 그런 기능을 하기 때문에 5관 관찰을 하거나 5장 관찰을 하면서 수식관을 할 수 있습니다. 수식관 하면서 그 마음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결합할 수 있는 요소가 많아요.

몸의 느낌을 관찰하는 수념처는 몸에서 일어나는 통증과 느낌을 알아차리며 입출식합니다. 들숨보다는 날숨을 느낌이 일어난 쪽으로 길고 깊게 내쉬는 게 좋아요. 어깨가 아프면 어깨를 바라보면서 들숨과 날숨을 하세요. 마음의 현상을 알아차리면서 입출식하는 심념처는 생각이 일어나는 것에 포인트를 잡고, 생각을 날숨으로 지우면서 입출식을 합니다. 법념처는 대상과 부딪혔을 때 일어나는 생각과 관념에 집중하는 것이므로, 5관과 의식이 대상과 결합할 때 일어나는 현상을 알아차리면서 입출식을 합니다. 이것이 따를 수자 수식관의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수식관을 하면 지혜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기도 하지만, 일단은 산소흡입량이 많아집니다. 모세혈관 하나하나에 숨을 전달하기 때문에 몸이 안 좋을 때 수식관을 하면 좋습니다. 비염이 있거나 코가 막혀 있으면 숨이 깊숙하게 안 들어가요. 생각이 너무 많은 사람은 생각을 끊을 수 있습니다. 숨에 오롯이 집중하다 보면 생각이 안 일어나거든요. 수식관은 건강해진다, 생각을 끊을 수 있다는 두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심신의 안정을 이루면서 경계를 알아차릴 수 있기 때문에 수식관을 생활화하면 현실에서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어요. 부지런히 연습해서 수식관을 몸에 익히기 바랍니다.

이 글은 강명희의 〈마음을 다스리는 12가지 명상〉(담앤북스)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승가전통 건강활력

마 가 목(원액)



허산 대진스님
(용문산 참나선원)

강원도에는 옛부터 전해오는 속설에 노인이 마가목 지팡이를 짚으면 굽은 허리가 펴지고 아이를 못낳는 여인네가 방안에 마가목 가지를 두기만 해도 수태를 한다는 신령한 나무로서 지금도 승가의 선원에서 참선수도하는 스님들은 기력을 돋우기 위해 마가목 차를 드시고 있으며 산승이 비법을 전수받아 진귀한 마가목과 약초로 맑고 향기롭게 정성껏 달여서 (한달분 60봉, 두 재 분량, 한박스) 요청에 의해 보내드립니다.

■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 KBS2 TV "건강하게 삽시다" 「강원도 오대산 승가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 방영
■ 2000년 10월 25일 수요일 – KBS1 TV 아침방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나무차 소개」 방영
■ 2010년 10월24일 일요일 – 오전7시20분 MBC TV "고향이 좋다" 「마가목」 효능방영
■ 2014년 7월 31일 목요일
– 오후7시30분 KBS-1 TV '한국인의 밥상' 경남 밀양 얼음골 「마가목」 건강식 방영
■ 2014년 10월 6일 일요일
– KBS-1 TV 오전5시10분 '내고향 스페셜' 설악산 백담사마을 「마가목」 방영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위하여 마 가 목(원액)

※계절이 바뀌면서 체질변화로 인해 항상 피로하고 노곤하며 기운이 없는 사람에게 활력이 생깁니다.
※시주하시는 불자님의 요청에만 보시합니다.

상담문의 010–9049–2848 (공휴일 및 야간전화 사절)

• 농협 : 227027–51–090791 (예금주 : 남궁성균) ※ 제방선원이나 수행스님께 대중공양 올릴 불자님 연락바랍니다 ※

불자의 긍지 | 신행의 기쁨

현대불교 전국 지사 안내

구독신청 기사제보 광고게재

항상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사명	지사장	연락처	
대구지사	손문철	T 053-768-8008	H 010-2813-8008
부산지사	이도경	T 051-405-9402	H 010-5640-8883
광주전남지사	양행선	T 062-512-5003	H 010-2629-1508
전북지사	조동제	T 063-910-8977	H 010-8642-7733
경남지사	성낙두	T 051-512-1761	H 010-3860-7008
영주지국	박영애	T 054-634-3429	H 010-9373-3778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



대행 스님

우리가 자유인으로서 부처인데 왜 한 겹을 벗지 못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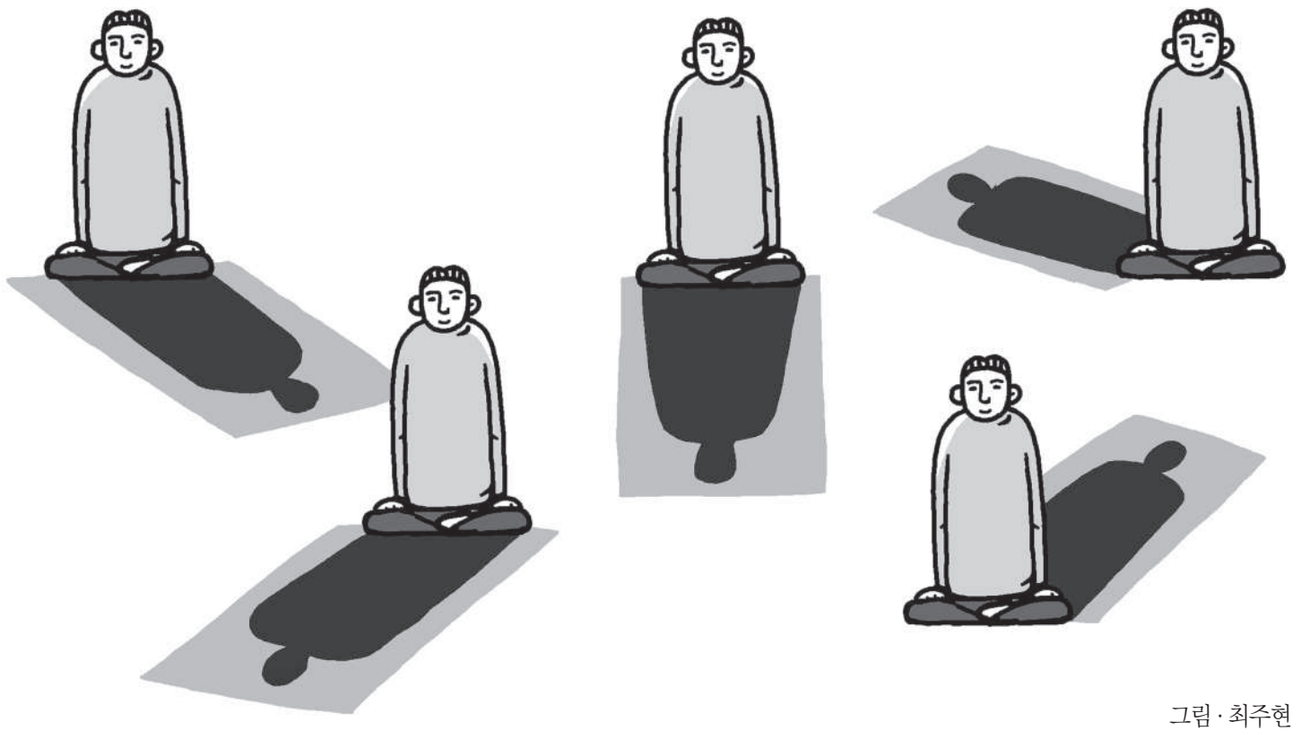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여러분께서 한자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늦도록 기다려 주시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 다 바쁘신 줄로 알고 있는데, 그 바쁜 것을 다 제치고 이렇게 한자리 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참, 마음이라는 것이 상당히 요상합니다. 색깔도, 보이지도 않는 것을, 마음 내기 이전을 말해서 자기 불성이라고 하죠. 영원한 근본이라고도 하고 뿌리라고도 하죠. 그런데 그 마음을 냈다 하면 법신(法身)이라고 하고, 그 마음에 따라서 육체가 움죽거린다 하면 화신(化身), 응신(應身)이라고 하죠. 화신은 바뀌지는 걸 말하고 응신은 서로가 대하는 걸 말하죠. 그래서 그걸 종합해서 주인공(主人空)이라고 했던 거죠.

그런데 마음을 안 냈을 때 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을 냈을 때 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육체를 움죽거릴 때 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또 내 몸속에 많은 중생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장이냐, 심장이냐, 위냐, 식도냐, 방광이냐, 콩팥이냐, 정맥이냐, 동맥이냐 하는, 일체 이름해서 움죽거리는 그 자체가 바로 어떠한 부분에서 움죽거릴 때 나라고 할 수 있겠느냐. 정맥이 움죽거릴 때 나라고 할 수 있겠느냐, 동맥이 움죽거릴 때 나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 많은 생명체들이 작용을 하는데 어떠한 것이 작용할 때에 내가 했다고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이 잘 생각해서 알아보신다면 참 기가 막힐 일입니다. 왜냐하면 생각나기 이전에도 내가 했다고 할 수가 없고, 또 생각을 냈을 때도 내가 했다고 할 수 없고, 몸이 움죽거릴 때나 육체 속에서 정맥 동맥이 움죽거릴 때, 또는 눈 귀가 움죽거릴 때도 내가 했다고 할 수 없죠. 그런데 이 천차만별의 이름이 전부 내 한 그릇에 있습니다, 내 몸뚱이 한 그릇에. 그런데 그게 다 누가 하는 거죠? 누가 하는 겁니까? 모두 본인이 하는 거죠? 남이라고 할 수 없죠? 몸 안에 들어 있는 것도, 어떠한 거위 한 마리도 나 아님이 없죠? 그러니 내가 했다고도 할 수 없고 안 했다고 할 수도 없어요. 그런 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 어떠한 거를 할 때 내가 했다고 할 수 없으니 '나는 없다' 하는 겁니다. 나는 없다! 여러분이 생각해 보실 때, 여러분 자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맥, 동맥이 쉬지 않고 뛰면서 이어져 돌아가는데, 정맥이 뛸 때 내가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동맥이 뛸 때 내가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체를 볼 때에 어떤 걸 내가 했다고 할 수 없으니까 "내가 없어!"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없어! 나는 공동체야! 공동체니만큼 모든 것을 해도 함이 없이 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 몸이 함이 없이 하기 때문에 손도 손 없는 손이 하고 있다. 그리고 없는 발이 한자리를 디뎠다. 이게 평발의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부처님 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고 항상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러분 법이,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 작용하는 생활이 그대로 부처님 법이고, 여러분이 법신이자 부처님이자 바로 화신입니다. 그리고 상대성 원리로서 상대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기 때문에 상대가 있는 거니까 항상 응신으로서 베푼다 이겁니다. 타의의 어떠한 신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니까 나 자체부터 알아야 합니다, 나 자체부터. 나 자체가 이 세상에 나왔기 때문에 상대가 있다는 걸요. 나 자체가 나왔으니까, 내 몸뚱이 속에 있는 그 자체가 모두, 바로 악업 선업이 인과가 돼서 영혼의 근본과 더불어 같이, 어머니의 살을 빌리고 아버지의 뼈를 빌려서, 즉 정자와 난자를 말하죠. 그래서 합류화돼서 합성체제로서 형성이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몸속에서 작용을 하는 거나 외부에서 내 몸뚱이가 작용하는 거나 모든 것이 전체가 함이 없이 하는 겁니다. 왜? 어떤 걸 했을 때 내가 했다고 할 수 없으니까 말입니다.

항상 여러분한테 이렇게 말하죠. 가정에서 아버지 노릇 하랴, 남편 노릇 하랴, 아들 노릇 하랴, 형님 노릇 하랴, 아우 노릇 하랴, 사위 노릇 하랴, 친구 노릇 하랴, 사회에 나가서 어떠한 회사나 직장에 있다든가 어떠한 지위를 가졌을 때 또 이름이 붙죠? 그러니 따로따로, 몸뚱이 체가 따로 있어서 따로 행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동적으로…, 아주 묘법이죠. 그게 묘법입니다. 내가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여보!" 하면 뜻과 행과 말이 동시에 남편이 되는 거죠. 그런데 남편 노릇 할 때 내가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들 노릇 할 때 내가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나라고 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죠. 아버지 노릇 할 때 나라고 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죠. 그거나 그 지금 말씀드린 거나 모두가 하나로 통과가 됩니다. 이 모두가 내가 했다고 할 수 없고, 내가 됐다고 할 수 없고, 내가 말했다고 할 수 없는 까닭에 모두가 공했다는 겁니다.

모두가 공하고, 모두가 함이 없이 했고, 모두가 비었다. 어느 것도 내가 아니다. 내가 없다! 내가 없으니 물이 있으랴. 물이 없으니 강을 건널 게 있으랴.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한 찰나, 찰나라고 하는 소리도 그 까닭입니다. 찰나에 아버지가 됐다 찰나에 남편이 됐다 이렇게 하듯, 부처님의 마음도 역시 그렇게 찰나에 바로 칠성부처가 됐다가 지장이 됐다가 관세음보살이 됐다가, 약사가 됐다가 용신이 됐다가 지신이 됐다가, 온통 그렇게 화해서 나투죠. 자동적으로 이게 됐다 저게 됐다, 이게 됐다 저게 됐다 하는데, 여러분이 지금 실질적으로 생활 속에서 하고 계시니까 그걸 납득을 하시죠?

그래서 부처님 마음도 동방에 이름을 지어 놓든가, 서방에 이름을 지어 놓든가, 지장이라는 이름을 지어 놓든가 어떠한 이름이든지 그거는 이름일 뿐입니다. 지금 생활 속에서도 아버지다 남편이다 아들이다 하는 거는 바로 이름일 뿐이죠. 그런데 이름이 자동적으로 누구한테나 주어졌지만 누구한테나 주어진 그 이름이 진실하기도 합니다. 영원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알고 본다면 "그렇게 공하고 그렇게 내가 없는 가운데 바로 너는 너대로 있고 나는 나대로 있구나. 산과 물이 둘이 아닌 까닭에 물은 물대로 있고 산은 산대로 있구나." 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러니 마음이라는 것이 참 묘하기도 하고 말로 어떻게 형용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잘 배우고 권세나 모든 게 아무리 다 좋다 하더라도, 그 마음이 그 사람에게 작용을 한다면 망하든지 흥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미치든지 성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순전히 마음의 꼭지에 달려서 끌려다니고 움죽거리는 체(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마음이 주인이 아니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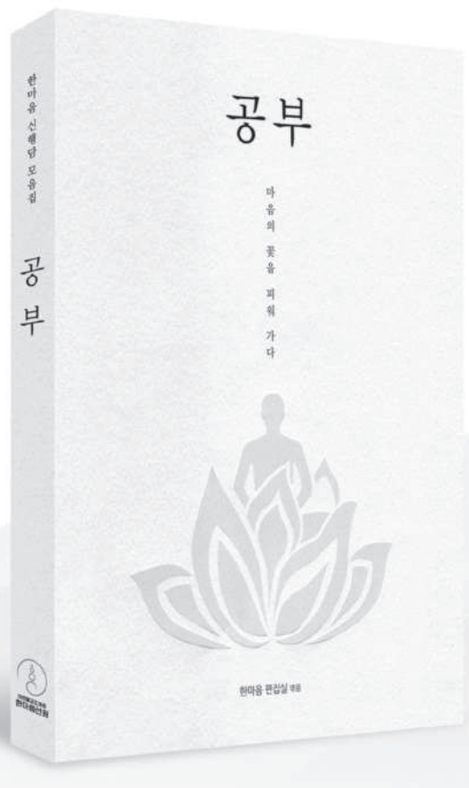
내가 항상 스스로 생각하는 거지만 참, 마음이라는 게 너무나 묘해요. 엊그저께도 이런 예가 있었죠. 이거는 내가 너무나 새삼스럽게 느낀 겁니다. 제가 느낀 것을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어느 젊은이가 유학을 가서 내내 공부를 참 열심히 해서 박사 학위까지 땄습니다. 박사 학위를 따 놓고 일 년 동안 마무리를 다 하고 난 뒤에 입산을 하러 왔습니다. 어때요? 그 마음이라는 게. 어디다 세워 놔도 살 수 없는 사람이 아니고, 어디다 세워 놔도 빠지지 않고 어디다 세워 놔도 아주 모범이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게 웬 말입니까? 다시 생각을 해 볼 수 없겠느냐고 해도 막무가내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저는 지금까지 헛살았습니다. 부모를 모셔야 할 형편인데, 부모의 육을 모시는 것보다도 진짜 어머니의 마음을 내가 모시기 위해서라도 꼭 입산을 해야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당치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신도1(남)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큰스님 그런데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요상하지 않습니까? 하하하…. 아니, 입산을 하겠다고 생각을 한 그 마음이 요상하고, '저렇게 배워 가지고 왜 그렇게 해?' 하는 마음이 또 요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훌륭하다고 하는 그 마음이 또 요상하지 않습니까? 모두가 요상한 거예요. 참 묘한 거예요. 마음이 말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도깨비처럼 마음이 요랬다 조랬다, 이렇게 생각했다 저렇

☞ A18면으로 계속

마음의 꽃을 피워 가다 공부



《공부》는 마음공부에 관한 책이자
인생 공부에 관한 책입니다.

길을 함께 걸어가는 도반들의 진솔한 이야기,
다시 꺼내 보니 새삼 와 닿는 이야기, 그래서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고픈 39편의 다양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한마음 편집실 엮음 | 256쪽 | 값 12,000원

판매처
●현대불교신문사 02-2004-8216
●운주사 02-3672-7181
●한마음선원 본원 무진향 031-470-3118
●전국 온라인 서점 판매
●온라인 주문 현불샵 http://www.hyunbulshop.com
한마음 블로그 『한그루의 숲』 http://blog.naver.com/hanjournal1

한마음선원 신행 포교지인 〈한마음〉에 실렸던
신행담들 중에서 일부를 선별하여 엮은 책입니다.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13908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282
TEL : 031)470-3100 FAX : 031)470-3116
www.hanmaum.org

부처는 중생 속에 있고 중생은 부처 속에 있다

☞ A17면에서 계속

게 생각했다 할 수 있는지….

그런데 마음이 그렇게 자유스럽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유스럽지 못하게 모두 생활들을 하시거든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마음대로 생각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고, 권리를 가지고 있어서 당당한데도 불구하고 마음대로 생각지를 못하세요, 모두. 하, 참! 그래서 말입니다, 우리가 자유인으로서 "부처다" 이랬는데도 왜 한 겹을 벗지 못하고 그렇게 극매는지…. 내 마음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못 한다는 건 말도 안 돼요. 그 요상한 그 마음 말입니다, 그거를 잘 다루어서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다면 얼마나 훌륭한 법입니까?

나는 입산을 하러 왔을 때도 '아이구, 참 이렇게 잘 배운 사람이 잘 왔다.' 이게 아니라, 못 배웠든지 잘 배웠든지 말입니다, '마음이 참 요상하다' 는 생각에, 그 마음이 너무나 요상하게 보여서 웃었습니다. 하하하…. 마음이 얼마나 요상합니까? 그런데 그 요상한 마음을 내가 다스려서 마음대로 쓸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도 마음대로 쓸 수 없는 것도 다 입력이 돼요. 그냥 허탕 이렇게 가는 게 아닙니다! 그, 마음 내기 이전이 꼭지가 붙어 가지고…. 그 꼭지가 뭐냐? 그게 오신통이에요. 그 꼭지가요.

거기에는 숙명통도 들어 있고, 타심통도 들어 있고, 천안통도 들어 있고, 또 신족통도 들어 있고, 천이통도 들어 있어요. 다섯 가지가 다 들어 있는 동시에 이 마음의 꼭지가 붙어 있는 데서, 자기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마음을 냈든 마음대로 쓸 수 없는 마음을 냈든 그 꼭지에서 신호가 차악 두뇌로 갑니다. 두뇌라는 건 우리가 지금 그냥 보통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두뇌로 가서 모든 것을 사대(四大)로 통신을 하게 돼 있죠. 통신을 해서 이 속에 있는 생명체들이 마음을 다 알 수 있게끔요. 내 몸뚱이가 어디로 가고 어디에서 오고 무엇을 하는지를 알게끔 신호를 다 주는 거죠, 안팎이 다. 안에서 내가 움죽거리는 걸 다 알게 돼 있고, 또 내가 안에서 움죽거리는 거를 다 알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통과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마음공부를 안 하는 사람들은 누진(漏盡), 즉 두뇌라고 하는 게 누진을 말하죠, 이게 누진에 통신이 되질 않고 이 사대에, 오장육부에 통신이 되질 않기 때문에 이 몸뚱이가 어디로 돌아다니는지, 뭐를 어떻게 하고 가는지, 잘못하고 가는지 잘하고 가는지 이것도 일체 중생들이 모르고 있는 거죠. 그것이 의심이 가걸랑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지구가 어디로 돌아다니는지, 무엇을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모두? 우리는 지금 몸뚱이 속에서 별성들이, 그 중생들이 다 살고 있는데, 한 발 더 나아가서 보면 우리가 지구 속에서 또 살고 있어요. 지구가 찰나찰나라는 언어도 붙지 않게 시공을 초월해서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 돌아간다는 거는 알고 있지만 무엇을 하는지, 어디로 다니는지 그건 도무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마음공부를 하는데 상대와 부딪친다 하더라도 내가 이 세상에 나왔으니 내 탓이지 왜 남의 탓으로 돌리느냐 이겁니다. 안으로 모든 것을, 내가 하고 있는 그 자체를 모두 '네가 하고 있는 거니까 네가 해결해라.' 이렇게 돌려서 놓는 거죠. 놓는다는 것이 맡겨 놓는다는 거죠. 즉 말하자면 맡겨 놓는 것만이 아니라 굴려서 놓는 거죠. 내가 모를 때, 이렇게 해야 할지 저렇게 해야 할지 모를 때 '너만이 알아서 할 수 있어.' 하고 그냥 맡겨만 놓으면 아주 정식대로 다 해 나가죠. 그런데 내가 알고 있을 때,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해야겠다 할 수 있을 때는 '이렇게 하는 것도 너밖에 없어!' 하고 놔야 굴려 놓는 거죠. 구정물이 들어왔을 때 바로 그 구정물을 새 물로 바꿔 쓰는 거나 똑같죠. 어떤 물체가 아니라 이건 마음의 장난이기 때문입니다. 물체는 맨 나중에 나오게끔 돼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보이지 않는 데서 먼저 해결이 나야 보이는 데로 나오게 돼 있어요!

> 여러분 자체가 이 세상에 나지 않았다면
> 어디 상대가 있고 세상이 있고
> 우주가 있겠습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하는 이런 말은 어느 책에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한테 책에 쓰여 있는 걸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책으로 나오기 이전, 우리가 지금 생활하는 자체가 그런 겁니다. 어떻게 그걸 말로 다 하며 어떻게 글로 다 쓰리까? 이렇게 우리가 자유스럽게 살 수 있고 자유스럽게 마음을 낼 수 있으니, 찰나찰나 돌아가는 이 생활과 시공을 초월해서 돌아가는 지구 및 우주의 섭류를 파악해서 바로 자유인으로서 살아나가는 계기를 만들자는 거죠. 또 부처님께서도 그런 계기가 돼서 '너희들은 자유스럽게 살 수 있다' 하는 그런 명시를 하신 겁니다.

그런데 사십구 년이다, 삼천 년 전이다 해도 부처님 말씀을 우리가 알아낸 게 무엇이 있습니까? 자기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자기가 지금 어디서 왔고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이며, 또는 자기가 내면에 그렇게 많다는 거를 모르기 때문이며, 이 몸뚱이라는 집합소에 자기라는 모습이 천차만별로 돼서 한 바구니에 지금 들어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몸뚱이는 내가 작용하는 집합소입니다. 그래서 중생이라고 하는 거고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부처이기 때문에 마음으로 다스려라 이겁니다. 그래서 부처 중생이 둘이 아니요, 부처는 중생 속에 있고 중생은 부처 속에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니 딴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체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자체가 없다면, 그리고 생활이 없다면, 여러분 자체가 이 세상에 나지 않았다면 어디 상대가 있고 세상이 있고 우주가 있겠습니까? 아주 냉철하게 생각을 잘해 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종교를 따로 떨어진 어떤 것으로 알지 마십시오. 우리 생활 자체가 그대로 종교며 불교입니다. 이렇게 가깝게 종교 속에서 살고 있고, 지금 생활을 접하고 있으면서도 이 종교니 저 종교니, 또는 "난 종교 안 믿어!" 이러거든요. "난 불교 안 믿어!" 이러거든요. 안 믿긴 뭘 안 믿습니까? 벌써 생명이 있고 움죽거림이 있고, 벌써 통신을 하고 돌아가고 있고 이러는데 불교가 아닙니까? 천체 생명이 있는 것은 다 불(佛)이요, 바로 마음과 마음이 전달되는 거, 말로 전달되는 거, 바로 통신으로 전달되는 게 다 교(敎)인데, 어떻게 불교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라고 그러면서도 여전히 살고 있거든요.

어떤 때 여러분 모습을 봤을 때 참 혈기 왕성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보이고 그래도, 잘 보면 모습은 건강하나 속이, 마음이 좀 상처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뭐, 꼭 보려고 해서 보는 게 아니라 심심하면 그렇게 되는 때도 있죠. 그런데 그렇게 될 때마다, 내가 너그럽지 못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아주 딱한 생각이 들면서…. 그게 다 부질없는 생각이겠죠? 여러분이 모두 잘하고 가시는데 내가 부질없는 생각을 하는 건지 그건 몰라도, 딱한 일들이 한두 건이 아니에요.

그거는, 얼른 쉽게 말해서 딴 사람으로 생각을 한다면 뭐, 그냥 지나가는 사람 본 셈치고 아무렇지 않게 그냥 갈 수도 있겠지만, 내면적으로 외부적으로 한데 합쳐서 100%를 본다면 이건 남이 아니에요, 전부가. 줄창 여러분한테 말했지마는 억겁을 통해서 모습을 자꾸 바꿔 가면서 이게 되고 저게 될 때 모였던 인연으로 모두 부모가 되고 자식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할 때마다 이것이 인연이 되거든요. 그러니 어떻게 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산천초목의 나무들도 이름은 각각이지만 모두 자리는 한자리하고 있습니다. 한자리에서, 한 어머니 속에서 다 자라고 있듯이 이 산하대지에서 모두 살고 있습니다. 밤나무니 소나무니 이름은 다 각각이지만 그렇게 다 각각 살면서도 한자리에 살고 있듯이, 우리도 한자리에서 항상 화해서 돌아가서 또 탄생을 하게 되죠. 그런데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지금 나온 것이고, 지금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미래의 오늘, 바로 그 모습을 해 가지고 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오는 동시에 만날 바뀌어서 같이 만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어저께 부모가 내 부모겠습니까, 또 오늘 다시 모습을 가지고 그 부모 속에서 나왔으니 그 부모가 내 부모겠습니까? 그러니 부모 아닌 게 없고 자식 아닌 게 없고 형제 아닌 게 없어요, 더 넓게 본다면. 우리가 잘못하고 가면 독사도 되고 뭐, 뱀도 되고 곤충도 되는데 곤충이 되는 것을, 즉 말하자면 오간지옥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런 모습을 해 가지고 나오는 것까지도 모두가 화해서 이렇게 돌아가니까 네 생명이 따로 있고 내 생명이 따로 있고, 네가 따로 있고 내가 따로 있고 그런 게 아닙니다, 알고 본다면.

그러니 그렇게 알면 '나' 이기 때문에 하나도 죽이지 말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또 묘한 도리가 있습니다. 죽여야 그 무명을 벗고 사람이 될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이 묘한 도리를 어찌 다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소가 소로 보이면 고기를 못 먹고, 소가 약으로 보인다면 약으로 먹고 무명을 벗긴다 이 소립니다. 그런데 이 마음 도리를 공부하는 사람에 한해서만이 그런 게 주어진다는 얘기죠. 기복으로써 만날 복이나 빌러 다니는 사람들하곤 다르죠. 천지 차이죠.

그래서 우주간 삼세를 다 한마음이 포착하는 거죠. 그러니 이걸로 태어나고 저걸로 태어날 것도 없는 거죠. 내가 마음먹으면 그대로 그것이 법이 돼서 그대로 행하게 되는 거니까요. 컴퓨터에 입력을 해 넣으면 지금 현재 컴퓨터에서 다 그렇게 나오듯이 말입니다. 그러니 과거든 미래든 현재든 그 삼합이 체인지가 되어서 같이 내 한마음에서 그냥 돌아가니까 하나도 법에 저촉되는 게 없죠. 그러니까 죽여도 살리는 법, 살려도 살리는 법. 이게 전체가 자비가 되죠. 이 원리가 그러하다 이겁니다.

그러하니 여러분께서 이 생에서만 이렇게 다니는 게 아니니까 한 생, 한 철 지내려 나온 지금 이 도리를 완전히 파악한다면, 이제는 삼세를 포착하고, 부처님을 집어삼키고 중생을 모두 집어삼켰기 때문에, 삼천대천세계(三千大千世界)를 다 집어삼켰기 때문에, 태양이든지 은하계든지 어떠한 혹성도 다 포착해서 집어삼켰기 때문에, 이렇게 다 집어삼켜서 자리를 만들어도 그 마음자리가 작지 않더라 이겁니다. 이것은 우주를 내 마음으로써 아주 축소시켜서 먼지 하나로 만들려고 해도 만들 수 있고, 내 손가락 하나로 삼천대천세계를 다 들 수도 있는, 그런 대대적인 바로 삶의 포착이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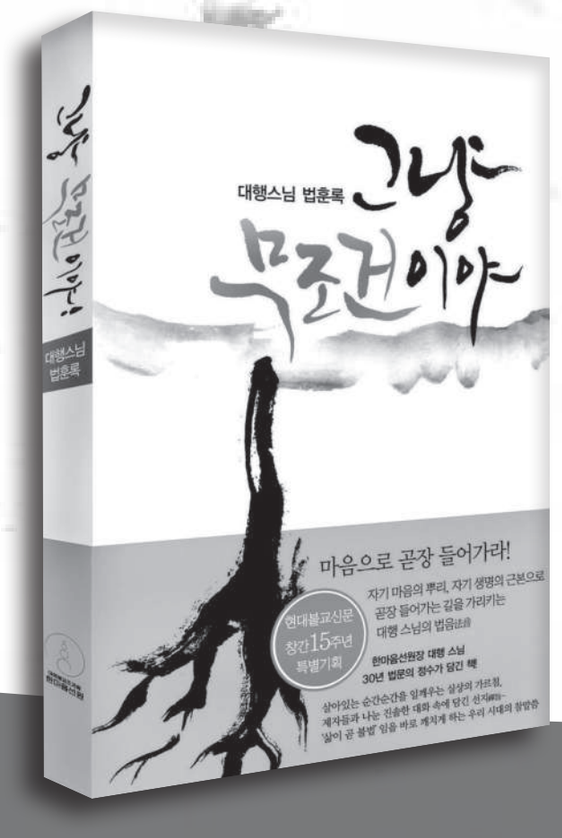
그러니 만약에 내 몸이 이 선원에 와서 마음공부 하기 이전부터 병이 들어서 어쩔 수 없이 몸이 없어지게 되는 한이 있더라도, 즉 집은 망가져서 헐어 버려야 될 지경에 있다 할지라도 새로 짓는 집을 잘 지어야 하니까요. 그 안의 주인이 삼라만상 대천세계를 다 쥐고 자유스럽게 건질 수 있고, 줄 수 있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가고 옴이 없이 가고 올 수 있는 그런 자유인이 되기 위해서 새 집을 지어야 하니까, 지금 집이, 오두막집이 아주 헐어진다 하더라도 그거를 겁내지 말고 대치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그냥 훌떡 벗어 버리면 됩니다. 마음대로 입을 수도 없고, 벗어 버릴 수도 없고, 마음대로 살 수도 없고 이렇다면 이 공부 하나 마나죠. 사실은 마음대로 못 사는 것도 마음대로 사는 거고, 하하하…, 마음대로 사는 것도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그것을 포착만 한다면 이 세상을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감사함과 더불어 크나큰…, '하이고! 이럴 수가 있나! 이럴 수가 있나!' 하고서…, 허, 그건 말로 형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육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마음이 말입니다, 육을 살리기 위해서 육 속에 있는 중생들을 먹여야 됩니다, 이제. 하하하…. 그래서 안으로는 먹이고 거죽으로는 살리고자 해서, 지금 먹여 살리려면 어떠한 짓이라도 하겠다고 하는데, 그 용기를 바로 내면에다 두세요. 지금 세상에 육신이 못 먹어서 죽을까 봐 애쓸 필요는 별로 없다고 봐요. 전 그걸 고문받듯이 많이 배웠어요. 하하하….

(다음 호에 계속)

※위 법문은 1993년 7월 4일 법형제 법회에서 설법하신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삶이 곧 불법'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시대의 참 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www.hyunbulshop.com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6길 36, 606호 현대불교 현불샵

| 현불 논단 |

한일 갈등과 민족주의



방영준
성신여대 명예교수

日 경제보복 인해 韓 분노 상황
아베, 민족주의 이용 통치권 유지
한국도 민족주의적 대응으로 맞서

현 갈등서 '민족주의 그림자' 본다
근현대사 비극 민족주의 충돌 기인
통치자들 권력 유지 도구로 활용해

규탄 대상, 일본인 아닌 '아베 집단'
한국 사회 '시민 민족주의' 지향하며
민족 간 공존의 국제평화주의 선도를

현해탄을 사이에 둔 한 · 일 양국 간의 갈등 파도가 심상치 않다.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한국인의 분노도 점점 높아가고 있고, 구한말 일본 제국주의 침탈에 저항하는 의병 용어들이 언론 지면에 등장하고 있다. 한일관계의 갈등과 불화를 보면서 필자는 민족주의의 어두운 그림자를 본다.

아베 일본 총리는 민족주의가 가지고 있는 요소들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자신의 통치권을 유지하고 확장하고 있다. 한국에 대한 경제적 보복 조치도 바로 민족주의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 요소를 이용하여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다지자는 것이다. 조선을 병합하고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황국사관(皇國史觀)의 이념 틀을 계승하고 이용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에 대응하는 우리의 자세도 민족주의적 성향을 띠기 시작하고 있다.

민족주의는 개인을 정치 공동체로 뭉치게 하는 가장 강력한 이데올로기로서, 양면성을 지닌 패러독스에 가득 찬 이념이다. 정치 통치자들은 민족주의가 지닌 종족 본능을 자극하는 '원시적 통합성' 때문에 이를 통치 방법으로 이용하고픈 유혹을 항상 받는다. 근현대의 많은 정치적 비극은 민족주의의 충돌에서 야기되고 있다. 많은 통치자는 이 충돌을 자기의 권력을 정당화하고 유지시키는 도구로 사용한다.

필자는 한국에 대한 일본의 경제적 보복 행위는 단순히 강제 징용에 대한 재판 결과에 대한 불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본다. 동아시아의 역학 관계 변화와 세계경제의 재편 과정에서 형성된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원인에서 나온 결과라고 본다. 또한 일본을 옥죄고 있는 평화 헌법을 파기하고 새로운 욱일승천을 꿈꾸는 아베 집단의 욕망이 표출된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우리의 대응방안도 다차원적이고 거시적인 시각에서 큰 틀로 접근해야 한다.

오늘날 국가는 세계화의 관계망 속에 편입되어 있다. 민족국가의 성격도 변해가고 있으며, 국가가 정치적 운명 공동체라는 관념도 변화고 있다. 민족주의는 크게 '인종적 민족주의' '국민적 민족주의' 그리고 '시민적 민족주의'로 나눌 수 있다.

우리가 지향해야 할 민족주의는 '시민적 민족주의'라고 생각한다. 시민적 민족국가의 구성원은 자신의 지방성과 세계 시민성을 동등하게 겸비한 자아를 지닌다. 이러한 시민적 민족주의는 다양성 속의 통일이라는 다원주의와 자기 존재감을 가지면서 민족 간의 공존을 지향하는 국제 평화주의를 지향한다.

일본의 경제 보복은 우리 자신을 돌보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우리의 경제 시스템과 일상적인 경제적 삶의 방식에 대해 가슴에 못을 박는 아픔과 자성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필자는 일본의 경제 보복 행위에 대해 국민 개개인은 품격 있는 대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본과 일본인은 미워해야 할 대상이 아니다. 규탄해야 할 대상은 아베 집단과 그 야망이다. 품격 있는 대응의 대표적인 사례는 한국에 온 일본인에게 따뜻한 시선을 보내는 것이다. 개인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대응방안은 일본인이 한국의 문화와 풍습을 좋아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시민 민족주의의 길일 것이다.

한국인으로서의 자존감을 가지면서 일본인에 대해 열린 배려의 자세를 가질 때 많은 일본인이 한국의 팬이 되는 것이다. 바로 그 일본인이 일본을 좋은 이웃 국가로 만들 것이다.

붓다의 가르침을 따르는 불자는 민족과 국가의 단위를 떠난 큰 지혜의 틀에서 한일 문제를 바라보았으면 한다. 팔정도(八正道)를 지금의 세간사로 해석하여 한일 갈등에 대입하면 해결의 길이 보일 것이다.



천미희의 **환경칼럼**

지구 위한 '장바구니' 패션 코드

지난해 여름, 인도 콜카타에 며칠 머물다 왔다. 그곳에 머무는 며칠 동안 내가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노 플라스틱(No plastic)'이었다. 하루에도 수없이 그 말을 외친 주인공은 나의 인도인 친구 밀라였다. 밀라와의 인연은 조선소 기술자로 일하는 남편을 따라 부산에서 살던 밀라가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을 찾아오면서 시작됐다.

각별한 우정을 나누다 인도로 돌아간 뒤 부산에 있을 때보다 더 자주 연락을 해왔던 밀라의 간절한 요청에 못 이겨 방글라데시 방문길에 아들과 함께 콜카타로 날아갔다. 그리고 끊임없이 들었던 두 마디 외침! "No plastic!"

짧은 체류기간이어서 다른 곳에 갈 엄두를 못 내고 콜카타에만 머물며 현지인처럼 살았다. 가까운 공원을 거닐고 재리시장에서 장을 보았다. 그렇게 밀라와 일상을 함께 하니 그녀의 삶이 그대로 보였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어디를 가든지 들고 다니는 그녀의 낡은 천 가방이었다. 그리 크지 않은 천 가방 두 개는 어딜 가나 그녀 손에 쥐어져 있었고 어디서 무엇을 사든 거의 기계적으로 비닐봉지를 꺼내드는 사람들을 향해 그녀는 외쳤다. "No plastic!"

그리고 천 가방 입구를 커다랗게 벌리고 물건들을 넣었다. 재래시장에 갔을 때는 저러다 목 아프겠다 싶을 정도로 수없이 그 말을 반복해야만 했다. 줄 지어 선 노점들을 따라 걸으며 모든 상인들에게 같은 말을 외친 후 콩, 바나나 꽃, 오이, 당근, 토마토 등을 모두 천 가방에 받아 들었다. 어느새 묵직해진 밀라의 천가방 중 하나를 받아 메고 걸으며 내심 그녀의 철저한 실천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나의 실천을 부끄러움과 함께 돌아보게 되었고 이렇게 철저하게 실천하는 사람이 지구 한편에 살고 있다는 것에 감사와 안도를 느꼈다. 밀라가 내가 머무는 동안 쓴 비닐봉지는 단 한 장. 젖어 있는 진흙을 장바구니에 그냥 넣을 수 없어 난처해하며 쓴 게 유일했다.

한국으로 돌아와 나는 달라질 수밖에 없었다. 그전에도 나름 환경을 생각하며 실천하려고 노력해왔지만 그건 턱없이 부족했음을 인정해야했다.

한국에 돌아와 한국에서 유학 중인 밀라의 딸을 만났다. 딸은 엄마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누가 엄마한테 비닐봉지에 무언가를 담아주면 우리 엄마는 거의 울어요"라고. 그러고 보니 나는 내 친구 밀라가 울 일을 참 많이도 하고 살았다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이후 나의 비닐봉지 소비량은 급격하게 줄었다.

비닐봉지 대신 장바구니를 내미는 게 나에게도 일상이 되어가고 있다. 플라스틱이나 비닐봉지를 사용하기 전, 내 친구 밀라를 기억할 수 있길 바란다. 그녀가 하루에도 수도 없이 외쳤던 지구를 위한 진실한 말, "No plastic"을 함께 외치고 싶다.

'패션의 완성은 가방에 있다'는 말이 있다. 이 말이 성립하는지는 확신이 없다. 패션에 관심이 많지 않는 나로서는 더더욱 그렇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지구를 구하는 패션의 완성은 장바구니에 있다'는 것이다. 낡은 장바구니를 들고 있던 밀라가 그토록 아름다웠으니 지구를 위한 장바구니 패션, 우리의 패션 코드로 손색 없지 않겠는가.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기획실장〉

社 說

진각종 제 13대 총인 추대에 부쳐

진각종 제13대 총인에 경정 정사가 추대됐다는 소식이다. 진각종 총인추대위원회는 7월 25일 서울 총인원에서 회의를 열고 경정 정사를 추대했다.

경정 정사의 임기는 8월 1일부터 5년간으로, 법통승수식을 거행한 후 본격적인 직무에 임하게 된다.

총인은 진각종의 법통과 교법의 신성을 상징하는 최고 권위를 갖는 직책이다. 그만큼 '총인'이라는 지위가 갖는 무게는 남다르다.

제13대 총인으로 추대된 경정 정사는 일선 포교 현장의 주교부터 종단 교육원장, 위덕대 교수 · 부총장 등 교육기관 수장까지 두루 거친 진각종단의 스승이다.

올해 초 진각종은 종단 산하 진각복지재단 내 직원 성추행 사건으로 한동안 내홍을 겪었다.

당시 문제가 된 재단의 고위 관계자는 당시 총인 회정 정사의 자제여서 더 충격을 줬다. 결국 지난 5월 9일 진각종 신도 기구인 총금강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공정 수사를 촉구하고 나서기도 했다. 안팎으로 비판 여론이 커지자 결국 5월 25일 회정 정사는 총인에서 물러났다.

전임 총인 사퇴 후 63일, 약 2개월 만에 새로운 총인이 추대됐다. 새 총인이 된 경정 정사는 그간 흩어진 종단의 원력과 역량을 다시 추스르고 모아 진각종이 화합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가졌다.

한국불교의 정통 밀교 대표 종단은 진각종이다. 생활불교와 실천불교를 지향하는 진각종이 새로 추대된 총인과 함께 한국불교 발전을 견인하는 종단으로 나아가길 기대한다.

부산 포교사단 회관 건립 '귀감'

부산 불교계의 십시일반 정성으로 문을 연 포교사단 회관 개소식 이야기가 불자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전하고 있다.

조계종 포교사단 부산지역단(단장 정분남)은 7월 21일 부산 유원골든타워오피스텔에서 회관 이전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번 포교사단 부산지역단 회관을 위해 부산 포교사들은 지난해 3월부터 성지순례를 진행했다.

특히 부산지역 포교사들은 성지순례마다 통깨를 주부들에게 팔며 불사금을 모았다. 한두푼 작은 돈이지만 조금씩 불사금이 모이기 시작했다. 땡볕에서도 회관 건립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은 부산 불자들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했다.

이들의 활동 소식을 들은 부산불교계에서 다양한 후원금이 모연됐고 1년여 만에 회관을 마련할 수 있는 기금이 만들어졌다. 여기서 더 나아가 이들은 직접 회관 내부 인테리어와 공사까지 진행했다.

그동안 불교계에서는 포교활동의 구심점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대표적으로 상주인력이 필요한 사무실과 같은 물리적 공간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하지만 이번 포교사단 부산지역단의 사례를 보면 그 구심점을 어디에 둬야 하는지 나타난다. 물리적인 포교회관이 아닌 부산지역단 소속 포교사들이 보여준 하나된 마음이 바로 포교의 구심점이 아닐까. 지역단 회관 개소를 위해 부산지역 640여 포교사들이 보여준 모습이야 말로 부산 포교를 위한 새로운 디딤돌이 되기에 충분하다.

이제 불교계는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를 준비해야 할 때다.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는 현재 불자들의 신심을 고취시키고 하나로 마음을 모으는 일일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부산지역단 포교사들이 보여준 원력과 감동이 필요하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박종수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51)405-9402
경 남 지 사 : (051)512-1761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대 구 지 사 : (053)768-800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굴셀건
80ml × 60팩
13만원
지리산 다슬기 眞 골드

無색소, 無방부제, 無화학첨가물로 만들어진 다슬기 엑기스!
껍찔채 가마솥으로 재래식 중탕해 고농축 멸균처리로 누구나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신장 기능 강화에 좋은 다슬기, 간 기능에 좋은 껍질까지 들어간 2배 엑기스!
느릅나무 유근피 원액

물 맑고 공기 좋은 지리산 일대 국산 야생 느릅나무 껍질(유근피)!
가마솥에 오래 달여 진공포장해 편리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위장을 맑게! 염증은 싹~ 가라앉히는 효과!
100ml × 60팩
6만 5천원
평안할 康
제품문의 : 칠성상회 (02) 879-2007
입금안내 : 농협 1282-17-003433 (주)한메소프트
입금금액 : 지리산 다슬기 진골드 130,000/느릅나무 유근피 원액 65,000원

영혼의 세계 빙의
|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영가의 생각을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몸에 들어온 이유를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않는다.(영가의 병이 사람에게 옮겨온 경우.)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빛은 영가가 천상으로 가는 길이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조상영가,전생영가로 인해 잡귀가 들어온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근육이 풀어지며 통증으로 고통 받는 분, 몸이 굳어지며 감각이 없는 분,** 병원 등을 수 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 풍수에 관한 모든 것 상담 가능 】
천광수련원 TEL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세계불교법왕청 & ABC 사무국 개원

아시아불교연합 공동체


세계불교법왕청 사무국 개관 행사 테이프 커팅식


양곤에 위치한 사무국 전경


우아웅고 장관 인사말


동남아시아 불교 발전의 진로에 관한 세미나


파고다 피야딘티(우산) 의식


양곤 사무국 개관 축하 행사


바간 성지순례 기념사진


사무국 개관 기념식


사무국 개관 행사 전 축하공연


우아웅고 문화 종교성 장관 인사말


미얀마 불교 수호협회회장 Dr.킨쉐이 인사말

아시아연합공동체 상임이사국 미얀마에서 미얀마, 한국,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스리랑카,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 시아, 뉴질랜드, 대만, 베트남 이사국과 중국, 일본, 네팔, 호주 단체대표단이 참석하여 전 세계불교를 이끌고 갈 강력한 조직체를 염원하며 미얀마 불교수호협회 Dr 킨쉐이 회장의 주도하에 미얀마와 태국을 중심으로 15회의 개별 국가 회의를 걸쳐 드디어 불교연합공동체를 이끌어 갈 법왕청 임시 사무실을 양곤에 마련하였다.

미얀마 문화 종교성 U Aung Ko 장관이 모든 일정을 함께하며 개관식을 봉행하였다. 세계불교법왕청 & ABC 상임부회장 목탁스님은 종교성 장관 (U Aung Ko)과 불교수호협회 회장(Dr 킨쉐이)의 노고와 태국대표 사와이 스님의 후원에 감사를 표하고 "대승권과 상좌부권이 하나가 되어 세계불교의 높은 위상과 중생교화에 최선을 다하는 하나 된 모습으로 새롭게 태어나길 기원한다" 라는 취지의 축사가 있었다.

회의 참석자 일행은 쉐다곤 파고다의 순례에 이어 바간 불교박물관을 방문하여 불교역사의 전파 과정에 대해 학술대회를 겸한 토론하는 일정을 갖았다. 12개국 대표와 종교성장관과 불교 수호협회회장(Dr킨쉐이)을 주관으로 마궤이주 짜운떠야 사원 보수 및 우산행사로 6박7일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한국 측 수석대표로 목탁스님, 혜정스님, 법운스님, 법성스님, 진성스님, 송운스님, 백련스님이 정식 등록되었다.


세계불교 법왕청 & ABC 공식 마크

사단법인 세계 불교 법왕청

종교법인 국제 불교 지도자 협회

외교법인 한국 미얀마 친선교류협회
국제붓다 평화봉사단

종교법인 대한불교 나라사랑 연합협의회
대한불교 범종단 정화 호법단

대표전화 02-733-5665 / 5670
Mobile 010-3618-6061
E-mail moktak1@korea.com

대불종 종정 만주스님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

사단법인 세계불교법왕청

2013-82호 고유번호 101-82-23205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6번지

이사장 **목탁** | 호법원장 **진성**
법왕청 각료 일동 합장

불교계에서 세계적으로 큰업적을 이루셨던 서경보큰스님께서 평소에 이루고자 하셨던 가칭 세계불교법왕청이라 칭하고 초대법왕을 지내시다가 큰스님 열반으로 가칭단체가 없어지고 한낱 물거품이 되어 안타까워하던 소승이 사단법인 세계불교법왕청을 창설하고 당시 서경보스님 문도회의 양해와 협조를 당부하였고, 또한 협조의 약속을 받은 바 있었으며 본 협회가 활발한 활동이 이어지자 갑자기 세계불교법왕청이 그들의 전유물인 것처럼 사용하는 수많은 폐단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교황청의 활동에서 우리 불교계에서도 이에 못지않은 조직과 활동을 이룰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각 나라의 승왕들에게 방문하여 설득하고 협조를 구하는 수년간 각고의 노력으로 미얀마 연방승가회 회장이시며 종정이신 우나라다큰스님이 법왕이 되시고, 각 나라 승왕들의 도움으로 세계불교 조직화에 박차를 가하고 세계조직화를 위한 본부를 창설하여 미얀마 연방정부 문화종교성장관의 주관으로 개관식을 봉행하였습니다.

그런데, 2019년 6월 14일자 불교계주간지 신문에 만주스님이 사단법인 세계불교법왕청 수석대표이고 승왕이라고 기재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본 법왕청의 명예와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었고, 500여 임원진들의 사실 확인으로 시끄러운 상황이니 사실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개 단체의 회장이나 일부군소종단의 종정이나 단체의 장이 함부로 사용할 수 있는 명칭이 아닙니다.

법왕이나 승왕은 달라이나마 존자나 서경보큰스님들과 큰스님들에게 걸맞은 명칭으로,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큰스님에게 적합한 명칭이기에 세계불교법왕청에서는 수석대표도 없고 누구를 승왕으로 추대하거나 임명한 적이 없습니다. 누가 승왕으로 임명했는지 공개적으로 임명장 공개와 법인 등록증을 신문을 통해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루나 따르겠다” 법사 40년 외길 인생

〈吾隨富樓那〉



박영동 수석 교법사는… 1957년 전라남도 화순 출생. 고등학교 2학년 수학여행에서 친구를 통해 처음 불교를 접한 뒤 불교의 매력에 빠졌다. 천운 스님을 지도법사로 조계종 광주불교학생회 창립을 주도하는 등 열성적으로 신행생활을 했다. ‘포교사가 되겠다’ 는 서원을 갖고 동국대 불교학과에 진학했고 졸업 후에는 공군 군종법사로 임관해 법사의 길을 걸었다. 1985년 명성여고(현 동국대부속여고) 교법사로 부임해 현재까지 30여 년 동안 교법사로 봉직했다. 포교 공적으로 2000년 제12회 조계종 포교대상 공로상을 수상했고, 조계종 총무원장 · 교육원장 표창을 수차례 받았다. 〈포교이해론(공저)〉〈청소년불교입문(공저)〉〈불교 내비게이션(공저)〉 등 포교 관련 서적들을 다수 저술했다.

테마人 玄道 박영동 수석 교법사 (61 · 동국대부속여자고등학교)

글= 신성민 기자, 사진= 박재완 기자

부처님의 가르침이 널리 전파될 수 있던 이유는 수승한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십대제자 중 한 명인 부루나에게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능력이 있었으니, 바로 설법이다. 설법으로 부루나가 제도한 중생은 9만 9000명에 이른다고 전한다.

설법 · 전법제일 “부루나를 따르겠다(吾隨富樓那)”고 서원하고 이를 평생에 걸쳐 실천한 이가 있다. 바로 박영동 동국대부속여고 수석 교법사다. 교법사로만 약 34년 봉직하며,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에게 부처님 가르침을 전한 그는 오는 8월 30일로 퇴임한다. 그의 공로를 기념하고자 후배 교법사들은 지난 7월 10일 퇴임 기념법회를 준비해 봉행하기도 했다. 후배들이 나서서 법회를 주관했을 정도로 포교사 · 법사로서의 그의 삶은 지남(指南)이 될 만 하다.

불교와 운명적 만남

동국대부속여고 정각원에서 만난 박영동 교법사에게 조금은 이른 퇴임 소감을 묻자 쑥스러워 하며 말했다.

“대학 졸업 이후 오로지 군법사, 교법사로만 40여 년을 살아 왔는데, 그동안 오로지 청소년들에게 불법을 가르치는 법사로서 한 눈 팔지 않고 외길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세속 규정에 의해 이제 학교를 떠나지만, 더 자유롭게 전법의 길을 갈 겁니다. 그간 가족에게 소홀했으니 가족에게도 봉사해야지요.”

그가 말한 퇴임 소감처럼 그는 한눈 팔지 않고 오로지 법사로의 삶을 살았다. 법사로서의 삶을 살게 된 연유인 불교와의 인연은 운명처럼 다가왔다.

박영동 교법사는 고등학교까지 종교에 별 관심없이 학교 공부만 열심히 하던, 소위 요즘 말로 ‘범생이’ 였다. 고등학교 2학년 4월에 떠난 전국 일주 코스의 수학여행에서 그는 불교를 처음 만난다. 당시 서울 종로 무교동에서 여행의 마지막 밤을 보내게 됐는데, 친구 한 명이 새벽녘에 일어나 숙소를 나가는 것을 보고 따라 나섰다. 그 친구가 향한 곳은 조계사였다. 대웅전에서 절을 올리고 무언가를 중얼거리는 친구의 모습이 낯설고도 신기했다.

수학여행에서 돌아온 후 친구에게 물었다. “넌 어디서 불교를 배웠니? 나도 좀 알고 싶은데 모이는 장소는 어디냐?” 그러자 친구는 밝은 얼굴로 광주 시내의 관음사를 소개해줬다. 그곳에서 시작한 불교 신행생활은 인생의 전환점이 된다.

이후 박영동 교법사는 천운 스님을 지도법사로 모시고 조계종 광주불교학생회 창립을 주도했고, 스님의 주석처인 향림사에서 신행생활을 이어갔다. 고3 수험생이었지만, 매주 일요법회에 빠지지 않을 정도로 열성적이었다.

열기 왕성한 시기였던 만큼 맹랑한 부분도 있었다. 유신독재 시절 박영동 교법사는 동아일보 광고탄압사태 등이 벌어졌는데도 불교가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는 것을 보고 법회 시간에 천운 스님에게 이를 따지듯 물었다. 그러자 천운 스님은 “그런 질문을 하려거든 교회를 가라”고 나무랐다. 이에 실망한 박영동 교법사는 한동안 사찰에 가지 않고 집에서 불교 서적을 보며 공부했다.

3개월 뒤 故 홍정식 · 목정배 교수를 강사로 불교사상강연회를 연다는 소식에 광주 학생회관을 찾았고, 그곳에서 천운 스님을 재회했다. 스님은 환하게 웃는 모습으로 자신의 등을 두드리며 “요즘 수험공부 때문에 바쁘구나. 법회에 안 나오는 것을 보니”라고 다독였다.

스님의 모습에 박영동 교법사는 혼자서 스님을 미워하고 불교를 싫어했던 자신의 좁은 소견이 부끄러워졌다. 그리고 다시 찾은 향림사에서 천운 스님의 법문을 들으며 한 가지 서원을 세우게 된다. 큰 결심을 한 학생 박영동은 천운 스님에게 자신의 뜻을 이야기 했다.

“스님, 부처님의 가르침을 올바르게 전하는 포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 동국대 불교학과에 진학하고자 합니다.”

서원 실천하며 전법의 삶

이에 천운 스님은 불교학과 진학에 도움을 주겠다며 사찰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배려해줬다. 부모님의 반대가 염려돼 일부러 전기 대학에 거짓으로 응시했던 박영동 교법사는 후기 대학인 동국대의 불교학과에 원서접수 1번으로 지원했고 1976년에 입학하게 된다.

대학 1학년 당시 일찌감치 군종장교 시험에 응시 · 합격한 그는 그해 겨울 무작정 김천 직지사로 떠났고, 그곳에서 은사인 녹원 스님을 만나 삭발염의했다. 그의 출가 이유는 명확했다. 법사가 되기 위함이었다.

“출가 상담하면서 녹원 스님에 ‘저는 법사가 될 사람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정법을 전하는 법사로 살기위해 ‘단기출가를 하겠다’ 는 말씀드린 것이고, 은사 스님은 이를 받아주셨습니다. 지금의 ‘현도(玄道)’ 라는 법명도 녹원 스님이 내려주신 겁니다. 스님은 틈틈이 저에게 ‘공부가 잘 되느냐’ 고 물으며 살뜰히 살펴주셨습니다.”

法師로서의 삶을 서원하다

고등학교 수학여행서 불교 접해
향림사서 천운 스님 지도법사로
광주불교학생회 창립 주도하기도
포교사의 꿈 품고 불교학과 진학
군종법사 앞서 단기출가 생활도

스승, 법사로 이끌다

녹원 스님 은사로 직지사서 출가
수시로 점검하며 살뜰히 살펴
대학 졸업 후 박완일 회장 곁에서
포교지 발간 · 설법하는 방법 배워

이후 서울 회기동 연화사에서 대중생활과 학업을 병행했던 그는 대학 졸업 이후 군법사 임관까지 1년여 공백 기간도 허투루 보내지 않았다. 박영동 교법사는 월간 〈법륜〉 발행이자 당대 명설법가로 이름을 날리던 박완일 전국신도회장을 모시며 그의 설법 방법을 배웠다.

공군 군법사로 임관한 그는 4년 동안 군포교에 전념했다. 대위 시절에는 그의 좌우명이 될 글귀를 받기도 했다. 당시 법주사 사리각에 주석했던 혜정 스님에게 ‘오수부루나(吾隨富樓那)’ 라는 휘호를 즉석에서 받은 것. 이후 ‘부루나를 따르리라’ 라는 뜻의 글귀는 박영동 교법사의 신념이 됐다.

군 제대 이후에는 곧바로 당시 명성여고(현 동국대부속여고)에서 교법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동국대부속여고에서 8년, 동국대부속고에서 11년, 다시 동국대부속여고에서 8년, 영석고에서 3년, 다시 동국대부속여고서 3년을 봉직했다.

박영동 교법사는 희유한 불법의 인연을 만나 법사로서 살아갈 수 있던 것은 모두 “스승때문이었다”고 강조했다.

B2면에 계속

INSIDE

B3 조준호의 미얀마 수행처 이야기 — 빠옥 총림에서 생활〈4〉
B5 문화 — 영담한지미술관 ‘10中89’展
B6 학술 — 대행선연구원 제4회 계절발표회

“불교, 말·생각·행동 일치시키는 삶”

‘박영동 수석 교법사’ B1면에서 계속

“고등학교 2학년 당시 불교를 처음 만나게 해준 친구부터 향림사에서 신행 지도를 해주신 천운 스님, 출가 은사 스님이신 녹원 스님, 불교에 대한 전문 교육을 해주신 목정배 교수님, 법사로서 설법 노하우를 가르쳐 주신 박완일 회장님까지 인생의 스승들에게 배운 것들이 저를 지탱해 줬습니다. 스승이 있어서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재학 당시 파라미타 학생회 불교반이었던 2018년도 졸업생들이 퇴임을 앞둔 박영동 교법사를 찾았다. 사진 왼쪽부터 한가현, 박수빈, 이소현, 박영동 교법사, 이소정, 이화정, 이의진 씨.



7월 10일 열린 퇴임 기념법회에서 후배 교법사들과 함께 한 기념촬영.



1973년 천운 스님을 지도법사로 모시고 창립된 광주불교학생회의 모습.



공군 군종장교 재직 시절 모습. 뒤로 혜정 스님이 내려 준 휘호 ‘오수부루나(吾隨富樓那)’가 보인다.

법사이자 스승으로 살다

사실 교법사로서의 30여 년의 삶은 녹록치만은 않았다. 지금은 수석 법사 제도가 도입되는 등 교법사의 위상이 강화됐으나 박영동 교법사가 첫 부임했던 시기에 교법사는 ‘학교에서 불교를 가르치는 교사’ 정도로 인식됐다.

“처음 학교에 부임했을 당시에는 대부분 교법사들이 법사실이 없어 교무실의 모퉁이에서 생활했습니다. 교사 명렬표나 졸업앨범 등에서도 평교사와 같이 나이 순서에 의해서 표기됐습니다. 학생과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법사’가 아닌 ‘선생’의 호칭으로 불렸죠. 매년 첫 법회에서 ‘나를 교법사로 불러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는 교법사가 단순 교사가 아닌 학생과 학보모, 교직원들의 신행생활을 이끄는 ‘법사’임을 수차례 강조했다.

“이제는 학교마다 법당과 교법사실이 마련되고, 법복이 개정돼 법사로서의 위의를 갖추게 됐습니다. 또한 담임업무, 당직 등에서 벗어나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교화활동을 하는데 역량을 결집할 수 있게 됐죠. 명렬표에서도 교장, 교감 다음으로 표기하게 됐습니다. 교법사 위상 향상은 현 조계종 원로의원 일면 스님이 학교법인 동국대 감사와 이사장 소임을 보면서부터 시작됐다고 봅니다. 학교법인 동국대 수석법사 제도도 일면 스님이 최초로 저를 임명하신 이후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30여 년을 교법사로 봉직하며 많은 학생들을 맞이하고 보냈다. 그들은 이제는 어엿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기 자리에서 역할을 다하고 있다. 인터뷰 당일도 파라미타 학생회 불교반 활동을 했던 2018년도 졸업생들이 퇴임을 앞둔 박영동 교법사를 찾아왔다. 이들은 박영동 교법사를 ‘소통하는 스승’으로 기억했다. “겉이 아닌 뒤에서 보살펴주시는 진심이 느껴지는 스승”이라는 것이다.

스승인 박영동 교법사도 제자들과의 에피소드들이 많다. 몇 가지를 꼽아달라는 질문에 박영동 교법사는 잠시 생각한 뒤 말했다.

“1989년도 명성여고(현 동국대부속여고) 불교학생회 학생들이 국어선생님이 쓴 불교연극대본으로 축제 기간에 공연을 했습니다. 아난존자가 마등가를 교화하는 게 연극의 내용이었습니다. 그 연극이 호평을 받아서 서울예대 동랑예술제 출품을 했고, 수상까지 했습니다. 주인공 학생은 이를 계기로 연극영화과에 진학했습니다. 지난 2012년 동국대부속여고에서 파라미타 학생회 활동했던 제자 6명이 모두 동국대 불교학과에 진학했을 때에는 교법사로서 정말 보람이 있었습니다.”

“얘들아 손해 보며 살자”

30여 년 동안 학생들에게 한결되게 강조했던 것은 무엇일까. 질문에 “손해 보면서 살자”라는 즉답이 돌아왔다. 자신의 이익만을 고려한 선택이 결국에는 자신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불리한 결과를 유발하는 ‘죄수의 딜레마’를 인용한 박영동 교법사는 “이기심을 버려야 나도 남도 행복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팔정도 수행법의 첫째 항목인 정견(正見)은 세상 모든 존재가 상호 연관되어 있다는 연기의 가르침을 터득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수업시간에 알아차림 같은 명상을 함께 하면서 학생들이 스스로 불교의 연기적 가치관, 세계관을 터득하도록 지도합니다. 한 마디로 제가 강조하는 것은 ‘연기를 바탕으로 손해보는 삶을 살며, 말과 생각, 행동이 일치되는 삶을 살자’입니다. 그것이 자아실현의 길이고, 잘 사는 길이고 행복한 삶을 사는 비결입니다.”

박영동 교법사는 불교는 절대 어렵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불교는 ‘언사행(言思行) 일치 운동’임을 강조했다.

“부처님의 팔만사천 법문은 ‘응병여약 대기설법(應病與藥 對機說法)’으로 상대의 상태와 근기에 따라 약을 처방하고 법을 설한 것입니다. 우리는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 자신의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올바른 안목을 가져야 합니다. 이를 통해 바르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이것이 불교입니다. 불교의 궁극 목표는 말과 생각, 행동을 일치시키고 참 생명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학생들과 함께 한 34년

1985년 명성여고 교법사 첫 부임

불교 알아가는 학생 보면 큰 기쁨

한해 제자 6명 불교학과 진학 ‘보람’

“‘손해 보는 삶’이 나의 교육철학”

교법사, 현장의 전천후 포교사

학교서 佛法을 가르치는 교사이자

학생·학부모·교직원 신행 지도자

초창기엔 인식 부재로 어려움 많아

학교법인 노력으로 현재 위상 강화

法師의 길은 계속된다

8월 30일 퇴임… 앞서 퇴임법회도

청소년 포교 프로그램 개발하고파

“전문가로 거듭나라” 후배 조언도

포교, 지속적 관심만이 해법

이야기는 자연스레 청소년 포교로 넘어갔다. 학생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는 만큼 구상하는 대안도 많을 터다. 박영동 교법사는 청소년 포교 활성화의 첫 과제로 ‘지속적 관심’을 꼽았다. 일회성 행사 위주의 종책으로는 청소년 포교가 나아질 수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일선 학교에서 특정 종교를 바탕으로 한 활동이 제한되고 있는 만큼 지역 사찰과 일선 불자 교사들이 네트워크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봤다.

“청소년 포교는 지도자 양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도자를 따르는 제자들이 반드시 있기 때문이죠. 효율적인 청소년 포교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역 사찰을 중심으로 당해 지역의 초·중·고교 불자 교사를 찾아 이들의 신행을 지원하고 간접적으로 불교의 가치관이 청소년들에게 전달 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종단의 지원과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법사의 역할에 대해서도 조언했다. 1980~90년대에는 학내 법당을 건립하고 교재를 제작하는 것이 교법사의 역할이었다면 이제는 내실있는 청소년 교화활동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 대부분의 종립학교에는 학내 법당이 조성돼 있어요. 교화 환경은 어느 정도 완비된 상황입니다. 이제 후배 교법사들은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포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일선 불자 교사 모임과 연계해 이를 보급하는 방안을 생각해야 합니다. 또한 시대가 변화하는 만큼 교법사들도 이에 맞춰 전문가가 돼야 합니다.”

퇴임 후에도 박영동 교법사는 청소년 포교와 관련된 일을 하고 싶다고 했다. 현재 청소년들의 감각에 맞게 부처님 말씀을 쉽게 풀어 쓴 책을 발간하고, 기회가 된다면 청소년을 위한 〈불교성전〉도 편찬하고 싶다고 했다. 무엇보다 여러 법회에서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법사로 살겠다는 게 그의 퇴임 후 계획이다.

마지막, 그에게 “왜 관리자로 나아가지 않았냐”고 조금은 부담될 수 있는 질문을 던졌다. 웃으며 박영동 교법사는 담담히 말했다.

“나는 교법사입니다. 교법사는 학교 법당에서 학생들을 만나야죠.”

인터뷰를 마치고 나서는 길, 미국 시인 헨리 반 다이크의 시 ‘무명 교사에 대한 예찬’의 한 구절이 떠올랐다.

“유명한 교육자는 새로운 교육학의 체계를 세우나,/ 젊은이를 건져서 이끄는 자는 무명의 교사로다.// 그는 청빈 속에 살고 고난 속에 안주하도다.”

보련기획 장엄불사 보련기획이 하면 가치가 다릅니다

조립식 도량장엄등설치



만 월 등



천불전



공 단 등



위 패



전문인력, 장비없이 조립·해체 가능 다목적 활용으로 경제적
기둥을 최소화하여 공간활용 극대화 도량 면적과 형태에 따른 다양한 연출

법당연등 자동승강장치



법당 고정식 연등설치



인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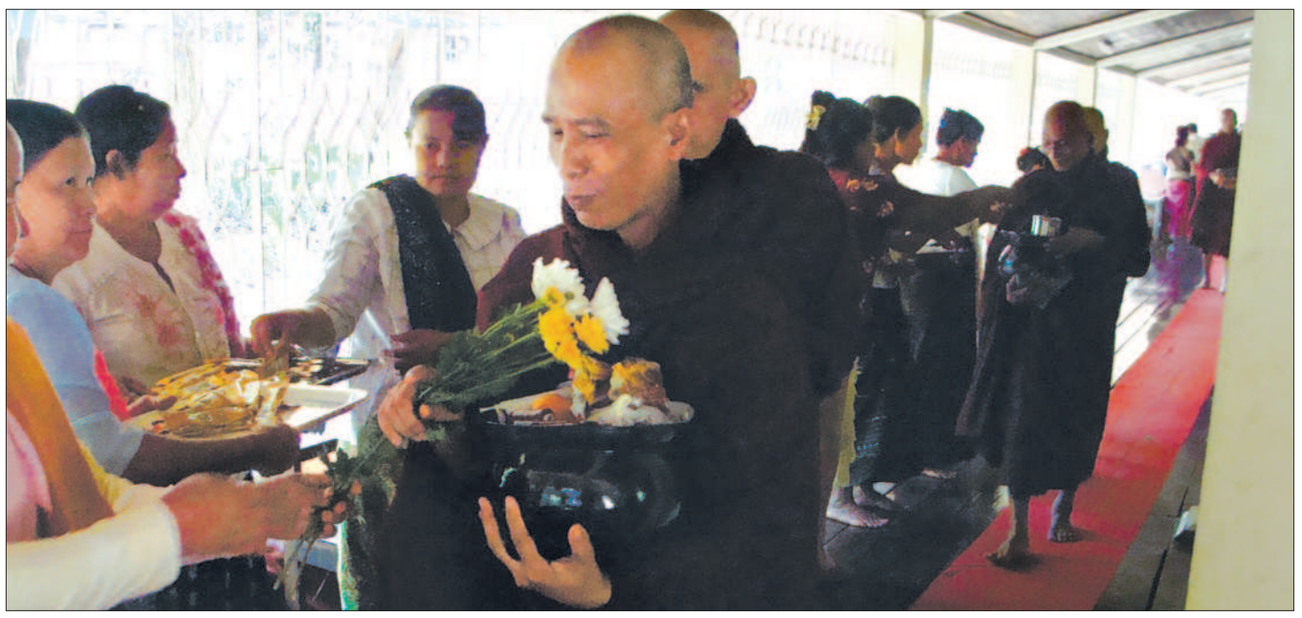
www.boryeon.com 010-5381-9355 / 031)526-2201~2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일산리 549-1

계율 따라 보시… 지극한 '신심' 감동



조준호의
미얀마 수행처 이야기

⑭ 빠옥 총림에서 생활 〈4〉



빠옥 총림의 스님들이 재가자들에게 보시를 받고 있다. 그들이 보시 받는 과일에는 일일이 칼집을 내고 잘랐다. 모두 계를 지키기 위함이다.

출입식염 사마타 수행 매진
경행 중 승복 위 백골 발견
"수행용 사용하라" 유언따라
스님 법구 다비 않고 전시해

과일에 일일이 칼집 내 보시
소소한 것까지 지계위해 노력
"공부 열심히 해야겠다" 다짐



경행 중 발견한 승복 위 백골. 백골관을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수행 점검 인터뷰 시간에 스님이 지도해 준대로, 자리를 잡고 출입식염 중심의 사마타를 시도해보려한다. 그런데 바로 이전의 마하시 선원에서 한 달 동안 훈련된 '알아차림 행법' 때문인지 자꾸 바깥의 새소리나 바람에 나뭇잎 나부끼는 소리 등을 따라 알아차리려는 습관이 나온다.

인터뷰 때 호흡 이외에는 모두 무시(ignore)하라는 지도에 따라 계속해서 호흡에만 주의를 되돌리려 하지만 일어나는 감정과 생각 등에도 계속 알아차림이 일어난다. 중간 경행 시간에 보니 한 유럽인이 특별한 좌구에 앉아 참선하고 있었다. 중간 휴식 시간에 유럽 요기가 자리를 비워서 좌구의 모양새를 찬찬히 살펴보고 이후에 하나 구했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

큰 선방 뒤에서 경행을 하는데 미얀마 스님들이 선방 뒤쪽 절벽에 무언가 있다며 긴 막대기로 헤집고 있다. 호기심이 일어 다가가 자세히 살펴보니 푸른 잎사귀와 색깔이 똑같은 파란 뱀이다. 온통 파란 색의 예쁜 뱀이지만 독사라고 한다.

평소 보여주는 스님들의 일반적인 위의와 달리 몇몇 스님들은 계속해서 긴 나무 막대기로 독사를 건든다. 젊은 스님들이 떠나지 못하고 독사에 대해 관심을 보이자 한 중년의 스님이 성큼 다가와 다른 막대기로 뱀을 잡아 저 멀리 옮겨 놓아준다.

이를 같이 지켜보았던 유럽계 한 젊은 요기는 나에게 과거 자신의 수행처 뒤 등산 시 촬영한 노란 뱀을 보여준다. 흥밋거리였던 파란 독사가 눈에 사라지자 다시 경행을 하거나 다른 곳으로 옮겨간다.

계속 경행하다보니 모퉁이 담벼락의 승복 위에 하얀 해골바가지 두 개가 놓여있다. 아마 스님들의 백골관을 위한 교육용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중앙승가대 한국 스님이 이곳에서 해골을 보았냐고 물었다. 중간절 사무실에는 선원의 스님이 입적 당시 자신의 법구를 교육 · 수행용으로 사용하라고 유언해 다비하지 않고 유골을 철사로 이어서 지금도 전시하고 있다고 한다.

불교인이라고 해도 육신의 무상과 사대(四大)의 해체를 이야기하면서도 죽을 때는 자신의 육체가 잘 처리되기를 바라는 욕망이 있지 않다. 나아가 남아있는 제자들이 스승의 육신을 여법하게 처리하기를 원하는 것도 또한 인지상정일 것이다. 철사로 이어 전시하고 있다는 스님 법구가 무척 궁금하다.

잠시 후 특별한 좌구에 앉아 참선하고 있었던 백발의 요기가 나타나 경행을 한다. 조심스럽게 "좌구 어디서 구했느냐"고 물어보았다. 그러자 이곳 선방에 하나 있는 것을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이 좌구를 쓰면 무릎과 대퇴부 등의 통증이 없다고 한다. 자신은 무릎과 대퇴부에 문제를 가지고 있어 반가부좌나 결가부좌를 할 수 없어 사용한단다. 한참 뒤 그 요기는 나에게 다가와 조용히 속삭여준다.

자신의 좌구는 내가 말한 'meditation instrument'가 아니고 'meditation stool' 또는 'meditation chair'로 이름해야 한다고 말해준다. 바로 정확한 명칭을 가르쳐줘 고맙다고 했다. 그 요기에게 좌구를 사용하지 않을 때 내가 한번 앉아볼 수 있는지를 물어 미리 허락을 받아놓았다.

잠시 후 어제 본 중앙승가대 한국 스님이 가까이 온다. 같이 걸으며 이 같이 말했다. "여기 스님들은 공부를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과자 몇 개, 과일도 조각으로 보시 받으니, 그러한 작은 것을 받으면 저절로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자기가 가진 대로 아주 작은 것, 비스켓 몇 조각, 과일 한 두개, 꽃 한두 송이 등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보시 받는 모습을 보면, 보는 사람의 마음도 찡하다. 그러한 보시물을 얻어먹고 허튼 짓, 엉뚱한 짓을 하기는 힘들 것이다. 사람이든 동물이든 얻어먹게 되면 오만해지지 않고 겸손해진다.

밤 시간 좌선은 이전보다 좀 더 진전이 있는 것 같다. 1시간 30분 동안 좌선을 마치고 경행하려 나가보니 보리수 주변에 촛불과 향불 연기로 가득하다. 스님들과 유럽 수행자들이 촛불을 켜고 향을 들고 기도를 하고, 보리수에 물을 뿌리는 의식을 거행하고 있다. 마침 한 유럽인과 순간 눈이 마주쳤는데 잠시 후 나에게 다가와 향 하나를 건네준다. 삭발한 머리가 크고 희다. 40대 중반 정도는 되었을까? 이 유럽인이나 미국 사람들은 눈을 마주치면 인사를 하는 예의를 보인다. 모르는 사람과 눈을 마주치면 오히려 경계하는 우리의 모습과는 사뭇 다르다.

그가 건네 준 향을 들고 보리수에 합장한 채 돌며, 모든 이가 평온해지기를 염원해본다. 그러면서 다시 나의 가족인 안사람과 아들과 딸도 생각해본다. 처소에 돌아와 보니 스페인 요기는 먼저 내려와 침대에 누워 잔다. 나 역시 불을 켜지 않고 조용히 양치 도구를 가지고 나가 씻고 돌아와 바로 잠을 청한다.

빠옥 총림은 4번째 날(2012년 1월 25일)이다. 3시 30분 전에 깨었으나 알람소리가 들리자 바로 일어났다. 내가 일어나니 스페인 요기도 기다렸다는 듯이 따라 일어난다. 간밤에야 그의 이름을 알았다. '하비에르 라우트르트(Javier Riutort)'라 한다. 아직 결혼은 하지 않았고, 대학에서 철학과 인류학을 공부했다.

그는 불교 수행을 좋아한다며 특히 〈자비경(Metta Sutta)〉이 감동적이라 한다. 〈자비경〉을 인류학적인 측면에서 연구해보고 싶다는 게 그의 목표다.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에는 〈자비경〉이 널리 유통되지 못했다. 포함된 경전이 안타깝게도 번역이 안 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마 부처님 시대부터 현재까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경전 중 하나임은 분명하다.

대략 씻고서 선방에 올라가 호흡을 통한 사마타 수행에 집중한다. 중간 중간 잡념이 끼어들고 밖의 소리에 집중을 순간 놓치는 경우가 있어도 계속 집중으로 돌이켰다. 선방에서 내려오면서 일본인이 마당을 쓸고 있는 스님에게 예를 갖추며 다가간다. 스님은 바로 빗자루를 바닥에 내려놓고 가까운 처소에 들어가 찻잔을 꺼내와 일본인 요기에게 축복의 독송을 해준다.

아침 공양은 양이 부족하여 재가 요기는 콩 국물과 압착한 콩 그리고 밀크차가 전부였다. 그렇지만 오히려 적게 먹으니 속이 편하게 느껴진다. 다시 선방에 올라 호흡 수행을 하고 점심시간이 되어 하나 둘 출정해 내려갔으나 아직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앉아있는 스님과 일반 요기들이 많다.

선방 안은 밤낮으로 약간 어두운 편이다. 일부러 조명을 어둡게 하고 각각 개인 처소처럼 낮에도 모기장 안에서 참선을 한다. 거의 많은 사람들이 공양을 위해 내려갔을 때 위층과 아래층을 조심스럽게 살펴보았다. 1층 선방은 기둥만 32개이다. 굉장히 넓은 공간으로 족히 200여명이 줄을 맞추어 좌선 할 수 있을 것 같다. 2층으로 오르는 데는 약 25개의 계단으로 위 아래층 모두 미얀마가 자랑하는 티크목재로 아주 고급스럽게 지어졌다. 2층에 올라가 밖을 바라다보면 저 멀리 바다로 연결되는 강과 드넓게 산림이 펼쳐져있다. 산림의 산등성이마다 중간 중간 요기들의 수행처가 보인다.

아래에서 선방에 이르는 계단을 세워본다. 111개로 대단히 가파르다. 바로 올라가면 왼쪽에는 긴 목어가 세로로 세워져 있어 오전 3시30분, 7시15분, 12시45분과 오후 5시45분 하루 네 번 참선 시간을 알리는 둔탁한 나무통 소리를 낸다. 긴 목어 뒤쪽에는 약품과 음료수 공급원이 있어 스님들이 중간 시간이나 경행시간에 물을 마시고 약품을 찾는다.

재미있는 것은 선원 곳곳에 발을 지압할 수 있도록 하는 기구가 널려 있다. 오른쪽에는 인도의 아소카 석주를 본 따 세운 탑이 있는데, 이 큰 선방을 건립하는데 보시했던 중국계 보시자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그것을 천천히 읽으면서 그 보시자는 많은 사람에게 참으로 큰 이익을 주는, 공덕을 지은 사람이란 생각에 부러움마저 들었다.

선방에서 내려오면서 사무실에서 보았던 한 스님을 만나 좌선 중에 닭 울음소리를 중간 중간 들을 수 있는데 어디서 나는 소리인지를 물었다. 절에서 닭을 키울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무척 궁금했다. 율장에 불교 수행처의 건립위치가 민가의 닭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의 거리임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나중에 알고 보니 민가에서 도망 나온 닭들이 야생 닭이 되어 수행처 산림 속에서 무리지어 산다는 것이다. 실제로 산림으로 들어가 보니 닭들의 무리를 볼 수 있었다. 이를 보면 이 수행처의 산림에는 밤낮으로 닭울음소리를 듣고 닭을 잡아먹는 다른 포식동물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점심 공양도 일부러 적게 먹었다. 편하다. 줄을 서서보니 스님들의 발우에는 귤과 사과, 포도, 드링크 병 그리고 하얀 장미 꽃다발을 쥐고 나온다. 오늘 공양 보시자는 스님들께 하얀 장미까지 공양물로 올린 것이다. 재가자는 스님과 같이 과일과 드링크는 받을 수 있었는데 꽃은 받지 못했다. 이곳에서는 출가 스님들께 존경과 함께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신심이 특별하다. 원래 스님들께 올리는 과일이나 야채는 생명 있는 것이기에 반드시 재가자가 먼저 손을 댄 다음 올려야 들 수 있는 것이 부처님의 계율이다. 그래서 포도나 귤은 너무 많아 상징적으로 몇 개를 칼집을 내어 올린다. 인도 유학 당시 미얀마 스님과 여행할 때도 나에게 칼집을 내달라 주문했던 기억이 난다. 또한 사과와 같이 과일 하나를 통째로 베어 먹어서는 안 된다는 율장 조항에 따라 재가자들이 미리 칼로 나눴다. 살아있는 계율문화를 마주하고 있다.

〈동국대 미래융합교육원 외래교수〉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7/24~7/30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천태소지관	천태대사/윤현로	운주사	6	정선 디가 니까야	이중표	불광출판사
2	우리는 늘 바라는 대로 이루고 있다	김원수	청우당	7	사찰의 비밀 (불교 상징과 문화에 대한 안내서)	자현스님	담앤북스
3	고요할수록 밝아지는 것들	혜민스님	수오서재	8	보살핌의 경제학	달라이 라마 외	나무의마음
4	요가 디피카	B.K.S.아헹가/현천스님	선요가	9	월호 스님의 선가귀감 강설	월호스님	조계종출판사
5	진흙에서 핀 연꽃처럼 (조계종 신행수기 공모당선작)	법보신문 편집부	모과나무	10	연잎에 맺히는 이슬처럼 (그림과 만나는 경전 말씀)	혜조스님/신창호	운주사

노장과 불교, 어떤게 통하고 무엇이 다를까?



노장으로 읽는 선어록(상, 하)
이은윤 지음/각권 22,500원/민족사 펴냄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노장(老莊)사상과 선(禪)불교는 서로 통한다고들 한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책은 거의 없다. 이런점에서 이은윤 前 중앙일보 종교전문 대기자 〈오른쪽 사진〉가 〈노장으로 읽는 선어록〉(상·하)을 펴내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 책은 한국불교 선학연구원장도 역임한 저자의 역작으로, 중국선이 노장의 사상과 어떻게 통하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자세히 탐구하고 있다. 특히 이 책은 오랜 종교담장 대기자의 선과 노장사상에 대한 안목이 두드러진다.

저자는 머리말에서 "이 책은 본격적인 학문적 천착이 아니라 선어록을 〈노자〉 〈장자〉와 함께 읽은 독후감 같은 것"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저자의 이 말은 단지 지극한 겸사(謙辭)에 불과하다는 것을 책 몇 쪽만 읽어보아도 금방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노장과 불교는 무엇이 같고 다를까? 저자는 책 속에서 "양쪽 다 근본적인 도(道)를 깨달은 수준에서는 사실상 같지만, 노장이 그 도를 표면적으로 정치 철학화시킨 점은 선사상과의 현격한 차이점이다. 노자·장자가 설법의 우선 대상으로 삼는 자는 일반 백성이 아니라 정치 지도자다. 또 하나의 차이점은 선가의 도가 번뇌를 벗어나는 길을 제시, 자기 해탈에 중점을 두는 데 비해 노장의 도는 만물과 하나 되는 길을 제시해 '우주 해방'을 강조한다는 점이다. 노장의 '무위'는 질서의 부정이나 해체가 아니라 더 높은 차원의 질서를 의미한다."라고 설명한다.

이 책의 가장 큰 매력은 어렵고 모호하게만 느껴지는 노장과 선의 세계가 아주 쉽게 다가오게 한다는 것이다. 특히 막연한 깨달음의 세계, 감히 일반인들은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멀게 느껴지던 선의 세계가 노장과 연결해 읽을 때 아주 분명해진다는 사실을 일깨워 준다.

저자는 "노장(老莊)은 저 멀리 설정해 놓은 이상을 향하지 말고 가까이서 접촉하는 자연적·일상적 직접성에 충실할 것을 강조한다. 이 같은 설법 속에는 본체의 작용으로 나타나는 차이와 다양성, 즉 '현상계의 삼라만상'을 체용일여(體用一如)의 세계관으로 인정하고 수용하자는 깊은 철학이 들어 있다. 선사상도 같은 입장이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며, '푸른 대나무'와 '계곡물 소리'가 부처의 법신이고 설법이 되는 도리도 바로 이것이다. 선가(禪家)의 현성공안(現成公案)은 공(空)과 색(色), 유(有)와 무(無) 양쪽 둘 다를 초월한 절대긍정의 존재론으로 두두물물의 실존을 기꺼이 수용한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노장과 선불교가 서로 통하는 점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지점은 바로 이러한 삶의 실존적 통찰이다. 도와 불법 진리는 어디에나 다 흩어져 있다. 선어록에 자주 등장하는 공안들, '뜰 앞의 잣나무' '간시궐(똥 젓는 마른 막대기)' 에서 엿볼 수 있듯 삼라만상 두두물물, 심지어 오줌·똥 속에도 진리가 들어 있다는 것이 선과 노장의 공통된 진리관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노장과 선불교는 절대 평등, 절대 긍정을 설파함으로써 권력에서 소외된 민중들을 위로하고, 삶의 희망을 갖게 한다. 명예, 부귀영화 같은 뜬구름 같은 욕망에 휘둘리지 않는,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의 진정한 행복, 대자유를 보여 준다.

저자가 밝힌 선과 노장의 유사점을 정리해 보면 몇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선사상과 노장사상의 도가 일치한다는 것이다. 선과 노장은 결코 세속을 떠나거나 버리지 않는다. 노장사상은 중국 고대 사상이 모두 그렇듯이 세속을 떠난 세계에 대한 언급이 없다. 선도 그렇다. 도가 이루어지는 영역도 시간(天)과 공간(地) 안의 세계이고 그것을 체득한 성인·대종사로 신이 아닌 신적인 인간일 뿐이다.

둘째, 분별심을 금기시한다. 선림의 사유에서는 '분별심을 버리라'는 한마디로 수행 해탈의 관문을 제시한다. 세속의 시비 분쟁, 모든 번뇌가 만사를 대립적으로 분별해 선-악·귀-천의 한쪽만을 일방적으로 간택한 데서 비롯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노장도 이 같은 사유에 철저하다.

셋째, 존재론의 인식 사유체계가 동일한 점이다. 노장은 관계와 변화, 선은 연기론과 제행무상이 존재론의 기본 인식 사유인데 단어가 다를 뿐 그 내용은 거의 동일하다. 선불교의 세계관은 만물의 상의상관성(相依相關性)을 전제로 한 입체론적 세계관, 즉 일체는 다양한 관계를 기초로 성립된 유의 존재다. 불교는 모든 사물이 자성이 없이 연기에 의해서만 존재한다고 말한다. 실체로서 존재하지 않아 가유이지만 모든 존재가 서로 의존하면서 상호 작용하기 때문에 없다고 할 수도 없다. 이 같은 존재 인식은 노장과 전적으로 같은 맥락이다.



선가, 개인의 번뇌 해탈에 중점
노장, 만물과 하나되는 길 제시
두사상 공통점 '삶의 실존 통찰'
〈노장〉, 道를 정치철학화 시켜

선에서는 극과 극이 하나이며 사물이 사물이면서 사물이 아님을 아는 것이 깨달음의 본질이며 해탈로 가는 길이다. 〈노자 58장〉은 "복 속에 화가 깃들어 있고 화 속에 복이 숨어 있다"는 설법으로 양극이 하나임을 일깨운다.

넷째는 낙관주의다. 장자는 도(자연)와 더불어 하나가 되는 체험을 적극 추구하면서 광활한 우주와 함께 하는 데로 나아가고자 했다. 그는 생사의 구별을 꿰뚫어보고, 영욕의 득실을 잊으며, 초연히 스스로 즐거워하고 한가하게 마음대로 할 것을 주장했다. 이같은 낙관주의는 사람들에게 신기하고 차분하며 즐겁고 자유분방한 일종의 미적 감정을 제공하며 사람들로 하여금 현실 속의 모순 투쟁을 잊고 정신상의 쾌락을 얻어 향유할 수 있게 한다. 이런 것이야말로 장자 철학이 끼친 큰 영향이며 많은 찬사를 받게 된 중요 원인의 하나다. 선수행의 내용과 목표도 이와 같은 맥락의 정신적 자유와 무소유의 쾌락을 향유하고자 한다. 운문 선사의 화두 '일일시호일(日日是好日: 날마다 좋은 날이다)'이 바로 이런 낙관주의를 대표한다. 견성한 사람은 현재의 삶에 충실하다. 결코 세상을 혐오하거나 포기하지 않는다.

선자(禪者)는 시끄러움 속에서 정적을 즐기고 고요 속에서 움직임을 보는 지혜로 날마다를 소중하게 살아간다. 수행자가 지향하는 세외지심(世外之心) 또한 이 세상 속의 삶에 있는 것이며 지구 밖이나 바다 끝에 있는 것이 아니다.

마지막은 '무심이 곧 도'라는 것이다. 선어록들에 목마(木馬)·목계·석녀(石女)·석인 등이 자주 등장하고 "목마가 울며 내달리고" "석녀가 아이를 밴다"고 한다. 이 때의 목마·석인 등은 무심 도인의 상징이다. 목계·석녀는 바로 마음을 비운 도인이다. 조사선이 누누이 강조하는 '무심이 곧 도(無心是道)'라는 법문 또한 장자의 나무닭 우화와 같은 맥락이다. 이렇게 저자는 일목요연하게 노장과 선불교가 궁극의 지점서 만난다는 것을 거듭 강조한다.

그렇다면 노장과 불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저자는 이 책의 결론 부분이라 할 수 있는 하권 끝자락서 약간의 지면을 빌어 노장과 선불교의 상이점에 대해 밝혔다.

첫째, 노장사상은 도를 정치철학에 과감히 접목시켜 그 설법이 주로 정치 지도자(성인)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다. 선사상도 부처와 중생의 세계를 이원화하지 않고 범성(凡聖)의 분별을 떠난 만민 평등을 강조해 당초(當初) 이후 보잘것없는 소농 지주 가문, 즉 한문(寒門) 출신으로 과거제도를 통해 진출한 신진 사대부들이 그 같은 선사상을 배경으로 문벌 귀족에 대항하는 배경의 하나가 됐다는 분석도 있긴 하다. 그러나 돈오 남종선은 적어도 표면적으로 적극적인 정치·사회철학을 표방하진 않았다. 선사상과 노장사상의 도는 일치한다. 그러나 양쪽 다 근본적인 도를 깨달은 수준에서는 사상이 같지만 노장이 그 도를 표면적으로 정치 철학화한 점은 선사상과의 현격한 차이점이다. 노자·장자가 설법의 우선 대상으로 삼는 자는 일반 백성이 아니라 정치 지도자다.

둘째, 선가의 도가 번뇌를 벗어나는 길을 제시, 자기 해탈에 중점을 두는 데 비해 노장의 도는 만물과 하나 되는 길을 제시해 '우주 해방'을 강조한다. 노장의 '무위'는 질서의 부정이나 해체가 아니라 더 높은 차원의 질서를 의미한다. 즉 본연의 상태로 귀환하는 우주적 해방을 뜻한다. 선사상도 이러한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강도가 노장에 비해 약하다.

선과 노장은 '무아의 실천'을 거듭 강조한다. 이는 〈주역〉이 말한 '영허(盈虛)의 소식'이기도 하다. 소멸하고 태어나며, 가득 찼다 텅 비는 현상을 자연법칙 또는 우주질서라 한다. '영허'란 바로 이를 말한다. 선과 노장은 이를 도라고 말한다. 불교는 생로병사, 노장은 정동(靜動)으로 영허의 소식을 설명하기도 한다. 도는 구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며 절대로 밖에서 찾는 것도 아니다. 각자가 도(불성·본래면목)를 지니기 때문에 스스로 깨달아야 한다. 쉽게 말해 자기 자신이 도이고 법이고 진리다. 그래서 도는 천하에서 가장 귀한 것이고 내가 곧 '천상천하서 지극히 귀하고 높은 존재(天上天下唯我獨尊)'인 것이다.

선불교는 중국에서 이루어진 불교다. 불교가 중국 문화를 만나서 이루어진 '중국화 된 불교'다. 그 속에는 중국문화가 배어 있을 수밖에 없다. 이것은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다. 인도불교에는 우파니샤드, 바가바드기타 등 힌두이즘과 인도문화가, 일본불교에는 신도(神道)와 무사문화가, 중국 선불교에는 도가사상과 도가문화 그리고 유가문화가 들어 있다. 저자는 이렇게 그 나라와 그 지역의 문화적 영향을 받지 않는 종교나 철학은 없지만, 그 점을 제대로 알고 장점을 활용한다면 이 시대의 유용한 종교, 철학으로서 거듭날 것이라고 강조한다.

또한 저자는 선시(禪詩)의 세계도 노장의 시선으로 읽는다. 평생을 갈고 닦은 언론인의 명쾌하면서도 유려한 필치는 이 책의 또 다른 묘미다. 4차산업혁명이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모든 산업의 융합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국가와 국가 간의 소통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대다. "선과 노장은 '무용지용'을 통해 새로운 가치 창조를 이끈다. 선가의 해탈과 노장의 초월은 실용적 측면에서는 별 쓸모가 없는 것 같지만 그 '쓸모없음의 큰 쓸모'가 정신적 양식이 된다"는 저자의 말처럼 오늘날 융합과 소통을 통한 새로운 가치 창조의 시대에 이 책은 현대인들에게 밝은 혜안을 열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저자 이은윤은?

중앙일보에 입사해 문화부장·편집국 국장·논설위원·종교전문위원을 지냈다. 한국불교선학연구원장, 금강불교신문 사장 겸 주필을 역임, 대중들에게 선(禪)을 알리기 위한 강연과 저술 활동을 하였다. 저서로는 〈혜능평전〉 〈선시〉 〈한국불교의 현주소〉 〈중국 선불교 답사기〉(전4권), 〈화두 이야기〉 〈왜 선문답은 동문서답인가〉 〈너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큰 바위 짊어지고 어디들 가시는가〉 〈격동하는 라틴 아메리카〉 등이 있다.

불교학술서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는 도서출판 운주사의 〈프라즈냐 총서〉



1 불교철학의 역사
D. J. 칼루파하나/김종욱 역//544쪽/25,000원

2 한국의 불교의례 I
정각/양장/460쪽/27,000원

3 밀교학 개론
종석/양장/286쪽/12,000원

4 법화경의 성립과 배경
塚本啓祥/이정수 역양장//576쪽/27,000원

5 성철선사상
도대현/양장/448쪽/23,000원

6 인도불교사
정순일/양장/726쪽/33,000원

7 주역선해 연구
청화/양장/510쪽/25,000원

8 율장의 승단분열 연구
자현/양장/280쪽/15,000원

9 불성론 연구
최현민/양장/368쪽/18,000원

10 불교의 마음챙김과 사상의학
불교와 사상의학 연구회 편/416쪽/23,000원

11 청송의 선과 철학
소광희 외/양장/312쪽/18,000원

12 불교미술사상사론 (우수학술도서)
자현/양장/304쪽/18,000원

13 천수경 연구
정각/양장/500쪽/25,000원

14 역경학 개론 (우수학술도서)
최종남 외/양장/454쪽/23,000원

15 현수 법장 연구
계환/양장/252쪽/15,000원

16 유식삼십송 풀이
후카우라 세이분 저/500쪽/25,000원

17 불교사회복지개론
조보각 외/양장/408쪽/20,000원

18 한국 고대 정토신앙 연구
현송/양장/320쪽/17,000원

19 경봉 선사 연구
정도/양장/304쪽/17,000원

20 화엄경의 문학성 연구
도업/양장/360쪽/18,000원

21 정토 수행관 연구
법상/양장/524쪽/25,000원

22 정토불교의 역사와 사상 (우수학술도서)
현송/양장/436쪽/23,000원

23 동산의 불교계 정화운동 연구
진관/양장/242쪽/15,000원

24 한국불교 의례체계 연구
이성운/양장/454쪽/23,000원

25 청송의 생애와 선철학
소광희/양장/212쪽/15,000원

26 불교세시풍속
오인/양장/446쪽/23,000원

27 삼계교 사상 연구
법공/양장/424쪽/23,000원

28 범망경보살계본휘해
이원정 편/목정배 역/556쪽/28,000원

29 심오한 중도의 새로운 문을 여는 지혜의 등불
게쎄 텐진 남카/양장/484쪽/24,000원

30 중국불교사상사
김진무/양장/496쪽/25,000원

31 숭산행원의 생애와 사상
최용운/양장/292쪽/17,000원

32 불상점안의식 연구
해사/양장/488쪽/25,000원

33 불교사회사상의 이해
이병욱/양장/364쪽/18,000원

34 분황 원효의 생애와 사상
고영섭/양장/464쪽/25,000원

35 삼계교 연구 (우수학술도서)
서본조진 저/박부자 역/716쪽/35,000원

36 대각국사 의천 연구
무원·진관 공저/양장/272쪽/16,000원

37 티베트 돈점 논쟁 연구
박건주/양장/364쪽/20,000원

38 중국 불성론
라이용하이 저/법지 역/696쪽/33,000원

39 송시의 선학적 이해 (우수학술도서)
박영환/양장/536쪽/27,000원

40 대행선사의 수행법 연구
청강/양장/312쪽/17,000원

41 불교교육론
이송곤/양장/528쪽/27,000원

42 균형의 마음, 우뻬카
박재은/양장/328쪽/18,000원

43 한국의 죽음 의례의식 연구
탄탄/양장/384쪽/20,000원

44 불교학의 사회화 이론과 실제 (우수학술도서)
박경준/양장/824쪽/37,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전화 (02) 926-8361 ● 주문 (02) 3672-7181 ● 인터넷 서점: 붓다북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전통한지, 미술을 넓히다

〈韓紙〉

영담한지미술관 '10中89'展
7월 24일부터 8월 24일까지
'한지에 오일' 등 다양한 형식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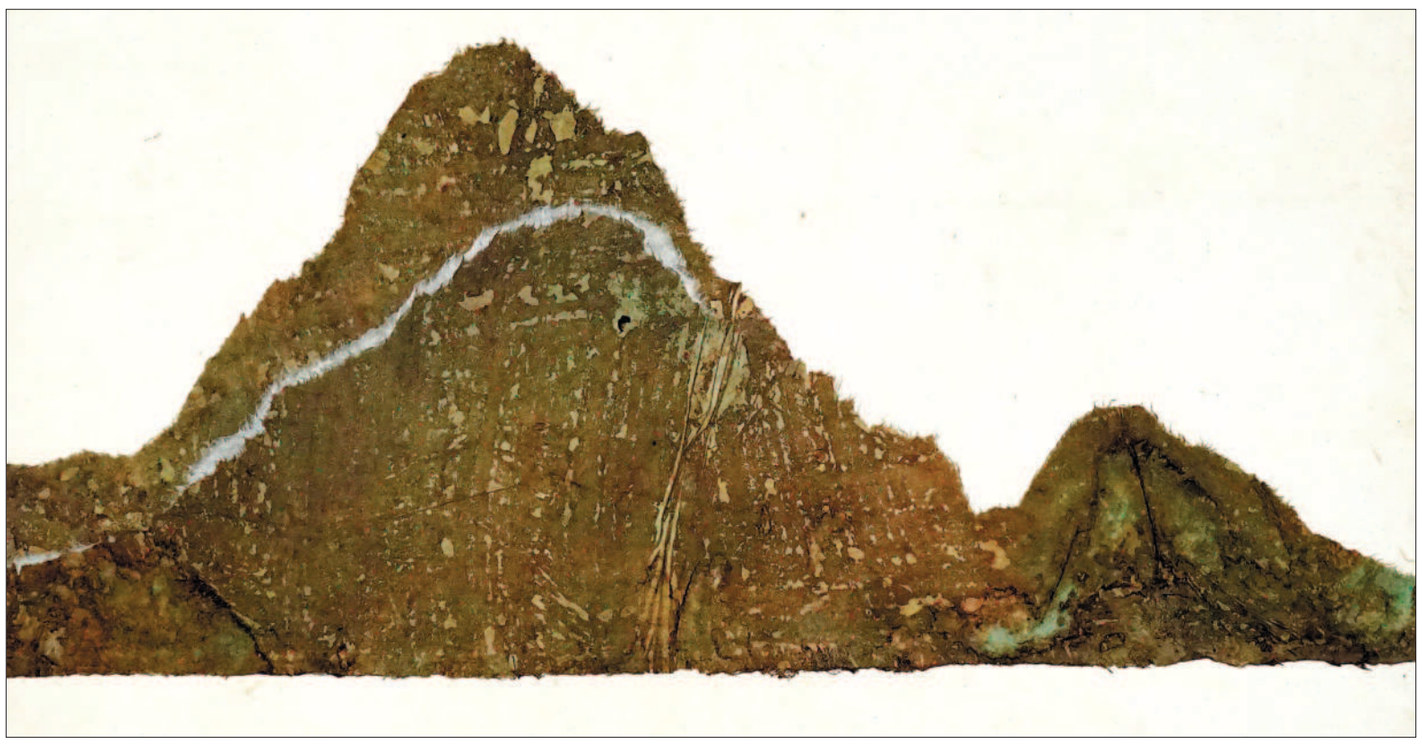
청도 영담한지미술관(관장 영담)은 7월 24일부터 8월 24일까지 초대전 '10中89'를 개최한다.

경상북도 지역문화예술특성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열리는 이번 전시는 영담한지미술관 레지던스작가와 경북 · 대구 현역 작가 26명이 함께하는 전시로, △영담 스님의 '그 섬(43.0×35.0cm 자연염색 닥종이 꼴라쥬)' △김명해의 '自一生(15.0×20.0cm, 한지에 수묵)' △김병집의 '개울(80.0×40.0cm, 혼합재료)' △현정오의 '천지인(74.0×140.0cm, 한지에 혼합물감)' △이창효의 '자두-풍요, 45.0×45.0cm 한지에 오일)' 등 '한지에 수묵'을 비롯해 '한지에 혼합물감', '종이에 수채', '수묵채색', '캔버스에 오일', '한지에 오일'까지 다양한 형식의 작품들이 전시된다.

"영담한지미술관이 경북도청에 개관한 지 12년의 성상이 흘렀습니다. 한지가 동서양을 막론하고 예술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며, 한지미술관도 동서양을 아우르는 순수예술의 영역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지'를 통해 구현할 수 있는 예술의 영역을 확장시키기 위해 마련된 이번 전시는 주제와 소재 모두 고정된 관념을 벗어난 다양한 미술을 보여준다.

영담한지미술관은 이번 전시를 통해 한지에 국한되지 않고 동서양의 순수예술을 소개, 전시, 홍보, 교육하는 공간으로 그 영역을 확장 · 변신하는 계기와 영담한지문화학교 건립의 태동이 될 것을 기대한다.



영담 스님 作, '그 섬' 43.0×35.0cm, 자연염색 닥종이 꼴라쥬.



최우식 作, '상' 72.7×53.0cm.



이창효 作, '자두-풍요' 45.0×45.0cm.

기획전문가이며 영담한지미술관의 운영고문인 김영호 화백의 기획으로 이루어진 이번 전시는 영담 스님, 김상택, 김광한, 김명해, 김병집, 김영목, 김영호, 김용진, 김윤종, 김하균, 리홍채, 이미영, 박분자, 박해동, 박형석, 서무진, 소선영, 이다겸, 이영철, 이창효, 이태형, 최우식, 최한규, 현정오, 홍대권, 홍원기 작가가 참여했다.

제목 '10中 89'는 염원의 가능성을 상징한다. 일상에서 쓰이는 말 그대로 '많은 가능성'을 품고 살자는 뜻으로, 그림을 그리는 작가와 그림을 감상하는 관객 모두 그림을 통해 많은 가능성 속에 있기를 염원하는 것이다.

전통한지연구가이며 닥섬유예술가인 영담 스님이 운영하는 청도 영담한지미술관은 국내 유일의 한지전용미술관이다. 영담한지미술관은 40여 년 동안 한국전통종이를 연구하고 작품 활동을 해온 영담 스님의 재현종이 40여 종 2만여 장과 400여 점의 한지미술작품을 소장하고 있으며, 매년 기획전과 특별초대전, 상설전 등으로 전시, 교육, 체험의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한지를 표현재로 쓰는 현역작가를 발굴, 지원하고 경상북도 레지던스프로그램 지원사업과 문화가 있는 날 지원사업 등으로 지역민과 함께 문화예술을 통한 소통과 향유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영담한지미술관은 우리나라 전통종이의 맥을 지켜온 사찰종이의 문화가 되살아나고 현대인의 다양한 문화활동의 새로운 표현재로 한지가 애용될 수 있는 방안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있다. 이번 특별전 역시 한지가 대중 속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는 기회라고 할 수 있다.

영담 스님은 1985년 강원도 원주에 '전통한지연구소'를 열고 전통한지제작과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1986년 '동국대 개교 80주년 기념' 〈신수화엄경〉과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의 영인본 한지를 제작했다. 2007년 영담한지미술관을 열었으며 어린이한지미술대회를 개최하는 등 한지문화 활성화에 앞장서 왔다. 영담 스님은 옛 스님들이 닥나무에 향수를 주어 기르면서까지 종이를 만들어서 정성을 다해 사경(寫經)하고 불화(佛畵)를 그리며 종이문화를 발전시켰던 정신을 이어 수행과 작품 활동을 겸하고 있다. (054)373-3638.

철과 불상의 이야기

국립춘천博 '문화가 있는 날 갤러리 토크'
'철, 불상이 되다' 7 · 8월 마지막 수요일

국립춘천박물관(관장 김상태)은 7월과 8월 마지막 주 수요일인 7월 31일과 8월 28일 두 차례 '철, 불상이 되다'라는 주제로 '문화가 있는 날 갤러리 토크'를 진행한다.

이번 '문화가 있는 날 갤러리 토크'는 관람객들과 원주 학성동 철불에 대해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7월 31일 오후 4에는 조용한 학예연구사가 원주 칠불에 관한 내용을 흥미롭게 스토리텔링하여 전반적으로 이해해보는 시간을 갖는다. 8월 28일 오후 4시에는 권윤미 학예연구사가 문화재 보존과학자의 시선에서 철불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원리와 과정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나눈다.

원주 학성동 철불은 일제강점기까지 강원도 원주시 학성동 들판에 방치되었던 다섯 구의 철불을 말한다. 이 철불들은 일정한 공통양식을 취하고 있어 나말여초에 제작된 '원주철불', 혹은 '원주철불양식'으로 불린다.

'문화가 있는 날 갤러리 토크'는 사전예약자에 한해 전시 설명이 끝난 후 바리스타의 커피와 기념품을 제공한다. 개인과 단체 모두 예약 가능하며 사전예약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현장에서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사전예약은 프로그램 하루 전 오후 6시까지 홍보팀(033-260-1521)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국립춘천박물관 누리집(http://chuncheon.museum.go.kr/)을 참고하면 된다. (033)260-1500. 박재완 기자



원주 학성동 철불 5구

네팔 학생이 보내온 부채 그림

'설산동자 부채전' 8월 31일까지
대원사 티벳박물관 기획전시실

네팔 학생들이 보내온 부채그림이 전시된다. 전남 보성 대원사 티벳박물관(관장 현장)은 8월 31일까지 기획전시실에서 여름특별기획전시 '설선동자 부채전'을 개최한다. 설선동자 부채는 자연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네팔 안나푸르나 그림반 아이들〈사진〉이 설산의 풍경을 부채에 그린 부채그림이다.

네팔 학생들의 부채그림은 김규현 화백으로부터 시작됐다. 김규현 화백은 4년 전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 찾았던 네팔에서 미술교육을 전혀 받지 못하는 그곳의 아이들을 위해 미술교육을 열었다. 그리고 현장 스님이 보내준 부채에 아이들이 히말라야 설산과 그곳의 풍경을 그려 보내왔다. 이번 전시는 네팔 전문 화가가 그린 그림과 현장 법사 부채 80점도 함께 선보인다. 부채 판매금은 전액 네팔 안나푸르나 그림반 아이들을 위한 학용품 지원 기금으로 쓰인다.



우리 옛 선비들에게도 시를 적고 그림을 그려 넣은 부채로 한여름 무더위를 나는 풍류와 지혜의 전통이 있었다. 문명의 이기에 의해 점점 사려져 가는 예전의 멋들이다, 우리의 전통이 설산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네팔 아이들의 손에서 다시 살아나고 있다. (061)852-3038. 박재완 기자

현대불교신문 구독안내

불교의 현대화 1 시대의 요구를 수용하고 삶의 보편적 가치를 올곧게 지탱하는 힘

불교의 생활화 2 생활 속의 지혜와 자비로 꽃 피는 가르침

불교의 세계화 3 국경과 인종을 초월한 모든 인간, 모든 생명의 행복한 삶

현대불교신문 을 검색하세요!

신문을 구독하시면 생활안내 / 불자정보(사찰, 포교당 양도 및 기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2-2004-8200

長壽漢醫院印 장수한의원

원장 이영수

▣ 진료과목 : 침구과, 내과·소아과, 부인과, 이비인후과
▣ 특수치료 : 약침요법
▣ 점심시간 : 오후1시~오후2시

진료시간
평 일 (오전9시 30분 ~ 오후6시 30분)
목요일 (오후 2시 ~ 오후7시)
토요일 (오전10시 ~ 오후2시)
일요일·공휴일 휴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샘골로 148번지
(본오동 872-19)한양프라자 사거리(GS25시 건물2층)
TEL. 031)409-0541~2

대행선, 인도철학 · 유식관법 관계성 모색하다

대행선연구원, 20일 제4회 계절발표회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한마음 주인공 관법' 으로 중생교화에 힘쓴 묘공당 대행 선사(1927~2012)의 한마음 사상과 수행법을 인도철학 쉬바파와 불교 유식 관법으로 각각 비교 고찰한 연구들이 발표됐다.

한마음선원 부설 대행선연구원(원장 이평래)은 7월 20일 한마음선원 안양본원 3층 법당에서 제4회 계절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날 계절발표회에서는 대행 선사의 한마음 사상과 주인공 관법을 인도철학 · 유식에 각각 비교 고찰한 연구 논문들이 대중들에게 소개됐다.

심준보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원 연구교수는 '대행 스님의 한마음과 쉬바의 개념 비교' 를 통해 인도철학 내 불이론 쉬바파와 한마음 사상이 상동함을 분석했다.

심준보 교수에 따르면 불이론 쉬바파는 힌두신 쉬바의 가르침을 따르는 쉬바교 중에서도 현상과 절대의 근원을 마음(citi)으로 보는 교설을 따르는 일파다. 또한 힌두 탄트라의 대학자 아비나바굽타의 사상체계를 불이론 쉬바파로 총칭하기도 한다.

그는 아비나바굽타의 상수제자였던 크세마리자가 저술한 〈재인식정수〉 내 귀경송의 '영원히 다섯 행위를 일으키시고, 의식과 환희이신 진아, 최고의 실재로 빛나시는 쉬바께 경배합니다' 를 인용하며 다섯 행위가 '우주의 방출 · 유지 · 귀멸 · 은폐 · 은총' 임을 제시했다.

이에 심준보 교수는 "방출 · 유지 · 귀멸은 불교의 생주이멸의 개념이며 은폐는 불교의 무명, 분별 망상을 의미한다. 무명을 벗어나면 일체 개체를 쉬바로 보게 되는데 이것이 은총으로 불교에서의 깨달음과 같다"면서 "우주의 생멸과 집착, 깨달음, 즉 나와 대상을 포함한 일체의 모든 것이 쉬바"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불이론 쉬바파는 〈대승기신론〉에 나타난 일심이문과 같은 논리 구조를 가지며, 대행 선사의 한마음 사상과도 상관성을 갖는다는 게 심준보 교수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심준보 교수는 "〈대승기신론〉의 일심이문의 논리는 초기불교부터 내려온 불교의 마음 이론을 일심으로 체계화 시킨 것"이라며 "대행 선사의 한마음 역시 〈대승기신론〉에서 주장한 일심과 다르지 않다. 이는 기존 연구를 통해서도 여러 번 주장되고 논증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일심이문의 논리란 생멸하는 현상으로서 생멸문과 생멸 현상이 드러나는 바탕으로서의 진여가 둘이 아니라 불이의 관계로 존재하며 이 모든 것이 일심이라는 것"이라면서 "최상의 쉬바인 '파라마쉬바' 가 기신론의 일심이고 대행 선사의 한마음"이라고 주장했다.



한마음선원 부설 대행선연구원는 7월 20일 한마음선원 안양본원 3층 법당에서 제4회 계절발표회를 개최했다. 사진 왼쪽부터 이날 발표자로 나선 심준보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원 연구교수, 안유숙 동국대 외래 교수.

대행사상 · 수행 비교 연구 발표

심준보 교수 '쉬바' 개념 비교

"한마음 · 쉬바, 일심이문과 상통"

안유숙 교수 '유식' 상관성 고찰

진여=유식, '五共' 보살행 귀결

이와 함께 안유숙 동국대 외래교수는 '유식관법과 대행의 주인공 관법에 나타난 상관성 고찰' 을 통해 유가행파 유식관법과 대행 선사의 주인공 관법의 연계성을 조명했다.

유가행파의 유가행은 산스크리트어 'Yogācāra' 의 번역어로 수행 · 적정수행 · 상응행 · 관행 등으로 번역된다. 즉, 유가행은 지관의 삼매를 이루는 것으로 수행 측면에서 사마타와 위빠사나를 닦고 교법에 통달해 진여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다. "유식성의 증득"이 '유가행' 이라는 것이다.

유가행파의 유식관법을 3단계 주인공 관법과 비교 분석한 안유숙 교수는 두 수행법의 도리가 일맥상통한다고 봤다.

그에 따르면 유가행파는 자아가 실재한다고 보는 아집에 의해 '번뇌장(煩惱障)' 이 일어나고, 안식의 대상이 실재한다고 보는 법집에 의해서 '소지장(所知障)' 이 발생하며 이를 인식해서 무분별지(無分別智)를 수습하게 된다고 본다. 유가행 유식관법은 번뇌장과 소지장을 제거하고 진여성을 획득한다. 이를 통해 개인의 해탈만이 아닌 생명계 전체를 이롭게 하는 존재, 즉 보살로 거듭나는 방법을 제시한다는 것이다.

안유숙 교수는 "'五상의 표상' 조차 끊는다는 일종의 의식혁명을 불러일으키는 수행도가 유식관법의 목표"라며 "자비 정신과 보살 사상의 중요성을 고려하며 삼매를 실천하는 유가행파의 유식관법은 '본래 만물만생이 모두 본래로 한마음' 이라는 대행 선사의 주인공 관법이 추구하는 것과 일정 부분 상통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깨달음은 자신의 보리와 열반뿐만 아니라 공생(共生) · 공심(共心) · 공용(共用) · 공체(共體) · 공식(共食)이라는 무심의 보살행으로 귀결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명상 문화에 대한 안유숙 교수의 제언도 이어졌다. 그는 "대중화된 명상은 영원한 나를 찾아 일원성의 세계를 자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일상에서 겪는 스트레스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되고 있어 여러 한계점이 드러나고 있다"면서 "유식관법과 주인공 관법의 원리를 정교하게 다듬어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다면 이원성의 세계에서 오는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하고 의식은 더욱 높은 차원으로 고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회에서 논평자로 백도수(능인대학원대) · 심재관(상지대) · 김성철(금강대) · 김재권(능인대학원대) 등이 참석했으며, 참가자들과 연구자들의 질의 · 토론도 이어졌다.

한편, 이날 발표회에는 한마음선원 이사장 혜수 스님, 안양본원 주지 혜솔 스님, 부산지원장 혜도 스님, 대행선연구원 연구실장 혜선 스님을 비롯한 선원 스님들과 박종수 현대불교신문 사장, 이평래 대행선연구원장 등 사부대중 200여 명이 참석했다.

'중론 · 중관사상' 국제 연구 성과 담다

東大 불교학술원 〈IJBTC〉 29권 1호 발간

중론과 중관사상에 대한 국제적 연구 성과를 만날 수 있는 학술지가 발간됐다.

동국대 불교학술원(원장 정승석)"〈International Journal of Buddhist Thought & Culture (이하 IJBTC)〉 29권 1호를 6월 30일 발행했다"고 7월 23일 밝혔다.

국내 최초 불교전문 국제저널인 〈IJBTC〉(공동편집장 김종욱, 리차드 맥브라이드)는 한국불교 국제화와 불교학의 학제적 연구의 장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2010년에는 한국연구재단의 등재학술지(KCI)로 선정돼 현재까지 등재 자격을 유지하고 있으며, 2018년부터 톰슨로이터사의 새 데이터베이스 'Emerging Sources Citation Index(이하 ESCI)' 와 미국신학도서관협회의 아틀라 종교분야 데이터베이스(Atla DB)에도 색인 등재 선정된 바 있다.

이번 〈IJBTC〉 29권 1호는 '중론과 중관사상' 을 주제로 한 특집 논문 4편과 연구논문 4편, 2편의 서평이 게재됐다. 참여한 집필자들은 해당 국가의 역사, 철학, 불교학의 명문인 보스톤대 · 북경대 · 상하이대 · 샌디에고주립대 · 홍콩대 소속 대표연구자들이다.



북경대 · 보스톤대 · 홍콩대 등

세계 학자 논문 · 서평 수록

특히 사이토 아키라 도쿄대 명예교수가 객원편집장으로 참여한 점이 눈길을 끈다. 그는 특집인 '중론과 중관사상' 에 '바비베카VS찬드라끼르티: MMK 1.1에 나타난 논리를 중심으로' 를 게재했다. 또한, 말콤 데이비드 에켈(보스턴대) · 니사쿠 요시아키(무사시노대) · 예 사오용(북경대)이 특집 저자로 참여했다.

동국대 불교학술원은 "중관 사상은 유가행파와 함께 인도 대승 불교철학의 양대 산맥을 이루며 크게 발전해왔다"면서 "이 분야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학자들의 최신 연구 성과에 근거한 논문을 통해 중관사상에 대한 이해를 한층 더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특집논문 외에도 〈십이유경(十二遊經)〉에 대한 연구, 죽음에 관한 선의 통찰, 불교의 수호신으로 여겨진 라훌라에 대한 미술과 중국적 변천, 김기덕 감독의 영화인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 에 대한 불교미학적 연구 등 다양한 논문들이 게재됐다.

불교학술원은 "최근에 발행돼 주목할 만한 불교학 연구서를 진지하게 토론한 2편의 서평 역시 지금 현재 불교학의 좌표를 탐색하는 데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번 호에 실린 모든 논문과 서평들이 불교학의 지평을 넓히고 사회와 소통하는데 도움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IJBTC〉는 인도 · 미국 · 태국 · 대만 · 캐나다 · 노르웨이 · 영국 등 9개국의 해외 학자가 편집위원으로 참가하며, 6월과 12월 연2회 발간되고 있다. 신성민 기자

조선 후기 불교계 안팎 변화는

한국불교사연구소 8월 4일 제24차 집중세미나

조선 후기 불교계 안팎의 변동과 전환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한국불교사연구소(소장 고영섭)는 8월 4일 오후 1시 남양주 봉인사 지장전에서 '조선 후기 불교계 안팎의 변동과 전환' 을 주제로 제24차 집중세미나 및 광해군 추선기념 제11차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 불교계가 어떤 변화를 맞았는지 조명하는 연구논문들이 발표된다.

고영섭 동국대 불교학과 교수가 '광해군대 사찰 복원과 불교 문화' 를, 손신영 한국미술사연구소 연구원이 '봉인사 사리탑의 양식과 이주 시말' 을, 민순의 박사(서울대)가 '송광사 새발견 연희대본의 검토' 를, 박수호 중앙승가대 교수가 '한국불교의 주요 과제와 해결 방안' 을 각각 발표한다.

논평자로는 양혜원 동국대 불교학술원 전임연구원, 김성연 동국대 불교학술원 일반연구원, 유근자 동국대 미술과 겸임교수, 조기룡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 오대혁 서울교대 외래교수 등이 참여한다. 신성민 기자

불교학硏 〈불교학연구〉 59호발간

불교학연구회(회장 임승택)는 학회지 〈불교학연구〉 제59호를 발간했다.

〈불교학연구〉 제59호는 '인도불교전통의 현대적 해석' 을 특집으로 다뤘다. 특집논문으로는 △'고귀한 (이의) 네 진리' 를 담은 표현의 문법적 문제와 초기불교의 이해에 대하여(강성용, 서울대) △은유의 불교적, 전일론적 해석(홍성기, 아주대) △초기 유가행파 문헌에 인용된 '5지정형구' 와 신념처(김성철, 금강대) △불교상담에서의 카르마 개념 적용(이충현, 서울불교대학원대학)이 수록됐다.

투고 논문으로는 '유가행 체계에서 공관과 진여관-〈해심밀경〉과 〈해심밀경소〉의 분별유가품을 중심으로(조윤호, 전남대)' 가 게재됐다.

청동불상 조성업체 대원불교미술원



그 동안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을 성원해 주신 여러 스님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 드립니다.

그 성원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하여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청동불, 개금, 탁자, 단청, 천불전, 특수불 등 일체를 혼을 담아 조성(제작)하여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법당 철거 및 정리 일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수거해 온 물건 및 퇴불은 파불없이 좋은 인연으로 어려운 스님들께 무료로 조성해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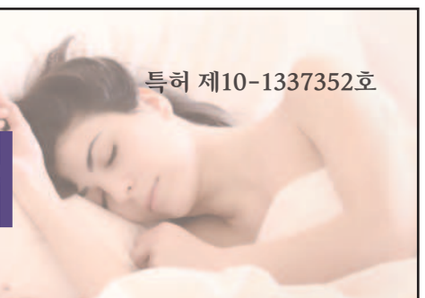
감사합니다. 원장 임영달 올림.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진목리 565-5
전화 031)573-3722 팩스 031)573-3723 H·P 010-7171-2636

정성을 다하는 대원불교미술원이 되겠습니다

숙면이 보약입니다. 특허 제10-1337352호

숯침대



숯침대의 효능 효과

① 부항과 뜸 효과를 볼 수 있으며 좌욕효과가 탁월합니다.
② 신체의 전자장을 조절하여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쾌적한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③ 요통환자와 중풍, 고지혈증, 콜레스테롤에 도움이 되며, 손발이 차고 저리는 분에게도 효과가 있습니다.
④ 숯에는 수많은 공기구멍이 있어 구멍 속으로 공기분자의 흐름에 진통을 일으켜 원적외선 방출합니다.
⑤ 컴퓨터를 오래 사용하여 피로해진 눈과 어깨를 보호, 전자파를 상쇄시켜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⑥ 강한 원적외선 복사열이 공기 중으로 방출되므로 이불을 덮지 않아도 구들장처럼 뜨겁게 방안 구석구석의 공기를 데워줍니다.
⑦ 냄새 제거, 공기 정화, 습도 조절, 전기요금 절감, 뛰어난 영구 보존.



취급 품목
◆ 숯침대
◆ 숯카우치
◆ 좌훈기
◆ 족욕기

숯침대Q : 3,300,000 → 판매가 2,200,000
숯침대S : 2,200,000 → 판매가 1,480,000
카우치 : 2,670,000 → 판매가 1,780,000
평 상 : 2,220,000 → 판매가 1,480,000
보료Q : 2,190,000 → 판매가 1,460,000
보료S : 1,590,000 → 판매가 1,060,000

주소 |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작은넙고개1길 78
구입 및 문의 | 031-532-3277. 533-3722. 010-7171-2636. 010-3576-6802



대안 스님의
24절기 사찰밥상
⑭ 대서(大暑)
완두콩국수 · 머위찜국 · 애호박채전

'식물보살'이 나눠준 감사 에너지

앞산 뒷산의 흰 구름이 겹치며 흐른다. 산새소리 맑고 청량하여 무더운 날씨도 잊게 하는 여명의 시간 속에서 꽃비는 이미 그치니 좌선을 풀고 포행에 나선다. 내면에 귀 기울이고 자성과 만나는 이 소중한 시간, 하안거에 더욱 집중하는 시간이 전국 각지 수좌스님들의 용맹심과 함께 한다. 마음이 머무는 정진시간은 출가자 누구에게나 긴장과 조급함을 부르는 시간이기도 하다. 완급을 잘 조절해야 항상 물들지 않는 마음자리를 지킬 수 있다.

금수암 텃밭은 27년간 한 번도 제초제나 살충제를 뿌리지 않고 토양을 지켜왔다. 더운 탓에 김을 매기가 쉽지 않지만 매일 아침 동트기 전에 30분씩 잡초를 메는 일을 꾸준히 해온 덕에 도량이 깨끗하게 유지될 수 있었다.

이 무더운 여름, 풀이란 존재가 새삼 고맙기도 하다. 땅에 잡초가 자라지 않는다면 지구는 태양열에 더워진 지열 탓에 생명이 살기에 더욱 척박한 환경이 될 수도 있을 테니 말이다.

말복을 이기는 사찰보양식을 만들기 위해 머위대를 한소쿠리 낫으로 베어서 가마솥에 삶는다. 얇은 껍질을 벗기는데 꽤 시간이 걸린다. 머위찜은 한 솥 만들어 두세끼니 해결하기 좋은 음식이다. 통들깨를 갈아서 즙을 만들어 집간장으로 간을 해 만드는 머위찜국은 부드러운 맛이 강렬함을 잊게 하는 여름 보양식이기도 하다. 들깨찬미라고 보습과 습윤을 도맡아하는 들깨는 인류의


완두콩국수


머위찜국


애호박채전

은인 콩과 더불어 고마운 식물이다.

땀이 송글송글 맺히는 시간에 점심 한 끼 보리밥으로 강정을 만들고, 콩국수를 시원하게 만들어서 해결하니 번거로움도 잊고 만다. 요즈음에는 백태를 콩가루를 만들기보다 서리태콩으로 콩물을 만드는데, 이는 심장의 열기를 내리는데 안성맞춤이기 때문이다.

콩은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지만 공기 중의 암모니아를 모아서 자신이 저장고를 만들어 자양분을 자급자족한다. 인류의 은인이란 소리를 들을 만한 식물이다.

호박은 애호박과 잎으로 수없이 국을 끓이고 쪄서 먹는다. 호박잎은 이 시기를 돕는 식물 중 으뜸이다. 애호박채를 곱게 썰어 전을 지지면 얇고 밀가루가 적은 다이어트 식품인 애호박채전이 된다.

애호박편수도 간편식으로 쉽게 만들 수 있다. 만두재료는 공이 많이 들지만 편수는 한 가지 재료로 만두를 만들기 때문에 무척 간편하고, 호박즙의 단맛은 과일과 비교할 수 없는 맛이다. 여전히 오이는 텃밭의 한편에서 끊임없이 노란 꽃을 피우고, 어린 오이와 누런 오이를 함께 키우고 있다. 오이는 더운 여름 열기를 식히는 냉국으로 자주 맛보는 음식이다. 미역과 함께 만드는 것이 보편적인데, 이는 여름에 땀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 해조류의 미네랄이 건강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대신 오이채를 곱게 만들면 음식은 더 고와진다. 오랫동안 사찰음식 현장에서 강의를 해보니 점점 더 단순해지고 정갈해지고 칼끝에서 솜씨가 나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거칠게 보이는 음식, 정갈한 음식, 투박한 음식, 각기 그 품새가 다르지만 조리자의 손길에 따라 전혀 다른 형태의 음식이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음식을 만드는 일이 종합예술이라고 평가 받는 이유다. 그 사람의 마음이 빚은 음식이니 각자의 창조력이 훈습되어 만든 이의 공이 느껴지는 것이다.

여름을 무사히 나게 해준 오이보살, 호박보살, 가지보살과 더불어 수많은 식물보살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완두콩국수
재료: 소면국수 200g, 완두콩 2컵, 땅콩가루 2T, 잣 1T, 참깨 1T, 머위대 100g, 소금 ½T, 수박 약간
1. 풋콩은 씻어서 물에 소금을 넣고 삶는다.
2. 머위대는 삶아서 껍질을 벗기고 잘게 썬다.
3. 삶은 풋콩을 견과류와 참깨. 소금을 함께 넣고 동량의 물을 넣어 믹서에 곱게 갈아 콩물을 만든다. (완두콩 2배의 물을 넣고 간다. 물과 얼음을 같이 넣고 갈면 더 시원하다.)
4. 국수를 삶아 그릇에 담는다.
5. 잘게 다진 머위대를 국수 위에 고명으로 올리고 콩물을 붓는다.
6. 수박으로 장식한다.

머위찜국
재료: 머위대 200g, 마른표고 3~4개, 다시마(5*5) 4장, 들깨가루 2T, 쌀가루 1T, 집간장 1T, 들기름 1T, 소금약간
1. 머위대는 삶아 찬물에 헹군 후 껍질을 벗긴다.
2. 물 2컵에 다시마와 마른표고를 넣고 7분간 끓여 채수를 준비한다.
3. 껍질을 벗긴 머위대는 두꺼운 부분은 2등분해서 5㎝ 길이로 잘라준다.
4. 채수에서 건진 표고버섯은 채를 썰어 참기름과 집간장으로 밑간한다.
5. 들깨가루와 쌀가루는 섞어서 채수 2~3큰술을 부어 불려 놓는다.
6. 달군 팬에 들기름과 채수를 넣고 머위대와 표고버섯을 넣고 덖는다.
7. 어느 정도 익으면 집간장을 넣어 간을 한 후 채수를 부어 끓인다.
8. 걸쭉하게 끓을 때 들깨와 쌀가루 불린 물을 넣은 후 불을 줄이며 끓인다.

애호박채전
재료: 애호박 2개, 전분 ⅓컵, 밀가루 2T, 부침유(들기름 1T · 식용유1T), 소금 약간
1. 애호박을 가늘고 곱게 채를 썬다.
2. 전분에 애호박을 무친 후 소금을 약간 넣고 버무린다. 물이 생기기전에 빨리 부치도록 해야 한다.
3. 팬에 부침유를 두르고 애호박을 손으로 펴놓고 그 위에 밀가루를 살살 뿌리며 익으면 뒤집는다.



김동일의 건강 한방
⑭ 난임(불임)의 예방과 치료

임신 중요한 조건은 배아의 질

근무하는 방에 난화분이 몇 개 있다. 매주 화요일마다 한 번 씩 물을 준다. 불 '화(火)'가 들어간 날에는 난초도 목이 마를 것이라는 공연한 생각에서다. 공기의 흐름과 물, 그리고 은은한 볕이 난을 키운다.

난임이라는 말은 다소 생소할 수 있는데, 과거에 '불임'이라 불리던 말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순화한 용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정상적인 결혼생활에서 1년이 지나도록 임신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환자의 연령에 따라 6개월(35세 이상), 혹은 내원 즉시(40세 이상)로 그 기준을 달리 하기도 한다.

나는 난을 키우면서 얻은 생각들을 난임 진료에 적용하고자 한다. 햇빛은 부부의 사랑으로, 공기는 주변의 정서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로, 그리고 물은 음식을 통한 영양으로 연결된다고 생각한다. 적당한 볕이 들어야 건강한 성장이 이루어지듯 정신의 사랑과 몸의 사랑이 어우러져야 임신의 기본이 마련된다고 생각한다. 공기의 흐름과 기온의 변화가 적당해야 꽃이 피듯 지나치게 안일하거나 정서적인 긴장이 심하면 배란과 수태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또한 영양이 너무 과하면 뿌리가 썩거나 잎만 무성하고, 부족하면 메말라 죽는 것처럼 적당한 영양섭취와 체중 유지도 필요하다.

건강한 여성은 대략 초경 이후에 만 44세 정도까지는 임신 가능성이 있는 난자를 만들어낸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35세를 지나면서부터 생산되는 난자의 임신 가능성은 점점 낮아지기 시작한다.

배란된 난자는 나팔관 끝에 있는 난관채에 의해 거둬져서 질과 자궁목, 나팔관을 따라 거슬러 온 정자와 만나 수정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형성된 수정란은 이후 1주 정도의 시간을 거친 후 배아되어 자궁내막에 착상된다. 그러므로 배란장애 및 배란된 난자를 잘 거둬들이지 못하게 하는 질환, 정자의 생성 및 정자의 운동성 장애, 자궁목과 난관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을 방해하는 병변, 착상을 곤란하게 하는 자궁내막의 질환 등이 난임의 주원인이 된다. 물론 원인불명도 20~40%까지 보고되고 있다.

그런데 난임의 원인이나 유형을 잘 살펴보면, 오늘날 난임이 늘어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결혼이 늦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나이가 들면 난소기능이 저하되어 배란된 난자의 질이 떨어지고 여성호르몬의 분비에 이상이 생기게 된다. 이것은 배란은 물론이고 착상과 임신유지를 방해할 수 있다. 아울러 긴 미혼 기간 동안 부인과 질환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또한 발견과 대처가 늦어지기도 한다. 그리하여 난관과 자궁에 이상이 생기는 경우가 증가한다. 늦은 결혼은 배우자의 나이를 많게 할 가능성이 높고, 이것은 성생활 횟수가 적어지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적당한 영양섭취 · 체중 유지 중요
배아 상태의 결정적 영향은 '나이'
난임증가 원인에는 '만혼'도 한 몫

남녀에 따라 난임의 원인 비중을 나눠보면, 여성인자 37~50%, 남성인자 8~25%, 남성과 여성의 양쪽 인자 18~35% 정도로 보고되고 있다. 날이 갈수록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서 문제점이 발견되는 경우다 늘어간다는 것이 새로운 추세라고 할 수 있다.

난임을 예방하기 위해서 월경통, 월경불규칙, 대하 등 부인과 관련 증상이 있으면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기본이다. 그런데 임상연구를 진행하면서, 외래 환자를 진료하면서 생각하게 된 것은 결혼 적령기에 결혼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늦은 결혼을 하는 사람들 중에는 월경이 규칙적이어서 임신과 출산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하다 정작 임신을 시도할 때는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월경의 규칙 여부와 무관하게 난소의 노화는 진행되기 때문이다.

연령 증가로 인해 난소의 노화가 시작되면 자연임신율만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관아기 시술의 성공률도 낮아진다. 이때 임신율도 낮아지고 이로 인해 출산율 역시 낮아진다. 출산을 할 경우에도 조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우선 난임의 예방이 중요하고, 35세 이전의 여성이라면 1년간 임신 시도 후에도 임신이 되지 않으면 우선 원인을 규명해 볼 필요가 있다. 35세~39세 여성이라면 임신 시도 6개월 후에 검사를 통해 원인을 찾아본다. 40세 이상이라면 바로 이상이 없는지 검사를 하는 것이 좋다.

검사 후 이상이 있다면 원인 질환을 치료하고, 원인에 따라 자연임신 시도,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을 시술 할 수 있다. 만약 특별한 원인이 없고 부부생활에 문제가 없다면 한의약치료를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연령에 따라 3~6개월의 치료에 반응하지 않으면 38세 이하의 경우 한의약 치료를 더 진행해보거나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을 시도할 수 있다. 이보다 연령이 많을 경우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을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간 짧지 않은 난임 임상 경험을 통해 배란과 착상 모두를 개선하는 효과를 가진 것으로 판단되어 만든 처방이 있다. 특허청에 착상개선 효과에 대한 특허를 등록하기도 했다. 물론 이러한 처방과 침구치료를 병행하여 적용하는 한의치료가 임신율과 착상률을 높이긴 하지만 무엇보다 임신과 출산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배아의 질이다. 그리고 난자와 정자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배아의 상태를 결정하는 데 가장 결정적인 것은 '나이(시기)'임을 잊지 말아야겠다. 생명을 만나는 것은 참으로 큰 인연이고 그 생명이 내 몸에 깃드는 것에 있어서는 자궁내막의 수용성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끝〉

〈동국대 일산불교한방병원장〉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광명선원

항상 나한테 감추어 숨어있는 그 마음을 발견해서 불을 켜서 밝히라는 뜻입니다.
부처님 마음과 내 조상의 마음과 둘이 아닌 까닭에 항상 내 한마음에 모든 것을 맡겨놓고
마음을 내는 것이 불을 켜는 것입니다.

— 대행선사법어 中

七 칠 석 백 중 百 中

칠월칠석 법회

8월 7일(음력 7월 7일 水) 오전 10시 30분

모든 중생들과 더불어 부모, 가족이
선근인연이 될 수 있도록 마음을 밝히며
축원을 올리는 날입니다.

• 축원문 접수 : 가족, 직장, 개인

백중 합동천도재

8월 15일(음력 7월 15일 木) 오전 10시 30분

점등식 도량돌이

8월 15일(음력 7월 15일 木) 저녁 7시 예불 후

조상님 은혜에 감사하며 왕생극락을
발원하는 날입니다.

• 연가등 접수 : 조상님, 무명영가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광명선원

